

문화비전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문화원 임직원 일동





응진문화원 비전

비전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창조적 문화 실현



목표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



핵심
과제

자체역점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문화예술활성화사업

특성화사업

주
요
사
업

- 응진문화지 발간
- 양서 보급
- 문화유적 탐방
- 신년인사회

- 응진문화 예술인의 밤
- 찾아가는 예절교실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생활예절 UCC공모
- 명사초청강좌

- 심청효학생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 생활문화 활성화
- 문화활동가 양성
- 응진문화강좌
- 응진문화학교
- 슬기로운 문화 생활 강좌

- 응진 섬 민요집 발간
- 지오갯잇길 여행 발간
- 향토유적지 보존 홍보
- 향토문화발굴 아카이브
- 취약지역 어르신문화누림 _ 문화로 동행



CONTENTS

2024 웅진문화 제 7 호

문화 비전 선언문	1
웅진문화원 비전	3
웅진의 명승 향토유적 천연기념물	8
웅진군민의 노래	10
발간사	11
축사	12
웅진문화원 소식	14
웅진군 소식	15
웅진군의회 소식	17
2024 웅진 축제	19

1. 문예마당

시

고향의 노래 - 강도영	28
등대 - 강명한	29
봄비의 소원(所願) - 김경협	30
귀뚜라미 - 김근종	31
바람의 지도 - 김수원(정숙)	32
억새 꽃 - 김춘연	33
1분의 길이 - 김현주	34
행복한 길 - 류인채	35
이름을 지우며 - 박정숙	36
섬진강 - 백덕순	37
서포리의 아침 - 서현순	38
섬 날, 가을 날 - 손영덕	39
실례 이야기길 - 손옥경	40
나비의 비행 - 유희숙	41
집단적 독백 - 이문자	42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 - 이소철	43
바다 사냥꾼 - 이영노	44
스웨터 가족 - 임경남	45
하루살이의 하루 - 정규영	46
아! 내고향 대이작도여... - 정철진	47
일상의 고요 - 조승래	48

수필

친구 - 강명한	49
내 이름은 덕꾸 - 김근종	51
소리를 찾아가는 길 - 김도희	56
정한수 - 김용준	59
그 남자의 앞치마 - 김이경	60
삶은 작품처럼, 인생은 소풍처럼 - 김종억	63
집에 가야 한다 - 류인채	66
할아버지 귀여워 - 서완수	69
꽃은 소리로 울지 않는다 - 이명지	71
연평in, 그 안에서 담은 학교, LIFE - 이승갑	74
단풍나무 그늘 아래에서 - 이원환	76
차인 큰잔치에 다녀와서 - 이정희	79
건달농부 - 임선철	81
인연 - 황용운	85

소설

이사 - 채인숙	88
----------	----

자유기고문

웅진군 관내 섬의 상징조형물 소개 - 김기룡	95
북한의 연평도 연해 도발사 - 김재범	100
최고의 효(孝) 실천은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 이문주	104
영흥면 소방서를 유치하기까지 - 임평택	106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교육문제 - 장종철	114
웅진을 푸르게 물들이는 섬, 대청도 - 최이현	134

감상문

흙으로부터 얻는 삶의 지혜 - 김국희	145
예수를 닮은 라틴아메리카의 돈키호테 - 김수원(정숙)	149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 이명수	156
찐 고구마를 동치미와 함께 먹는 방법 - 임경남	158
진정한 나를 찾아나서는 여행 - 차윤옥	162





기행문

일본 삿포로-오타루 자유여행을 다녀와서 -
 확인화 169
 태동철 원장님 모자가 멋있었다 - 이지영 175
 호주·뉴질랜드 기행문 - 태동철 180

작품

서각 - 김홍중 196
 서각 - 박용만 197
 서각 - 조재식 198
 캘리그래피 - 길정연 199
 캘리그래피 - 김수원(정숙) 200
 캘리그래피 - 신미현 201
 캘리그래피 - 육광자 202
 그림 - 송지인 203
 그림 - 전미선 204
 사진 - 정규영 205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북도면 - 시도 화살탑 208
 연평면 - 처음 건립했던 서방파제의 기점표석 210
 백령면 - 백령진장선정비 212
 대청면 - 소청도 등대 215
 덕적면 - 능동의 전설 216
 자월면 - 자월도 장골의 옛 수레길 218
 영흥면 - 왕씨 묘비 220

3. 아름다운 웅진

아름다운 웅진 223

4. 문화원 주요 사업

1. 문화원자체역점사업
 - 웅진문화 제7호 발간 232
 - 문화유적탐방 233
 - 신년인사회 234
 - 도서지역 양서 보급 235
 - 홈페이지 유지 보수 236

2. 문화예술진흥사업

- 2024년 제1회 웅진문화예술인의 밤 237
 - 찾아가는 예절교실 238

3. 문화예술활성화사업

- 심청효학생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243
 - 웅진문화학교 244
 - 찾아가는 생활문화강좌 '꿈꾸는 섬' 246
 - 슬기로운 문화생활 강좌 247

4. 공모사업

-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 '문화로 동행' ... 249

5. 특성화사업

- 2024 웅진섬(북도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250

5. 2024 심청효학생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

글짓기

할아버지가 아기가 된다면 '할아버지는 여든 아기'를
 읽고 - 오주하 252
 하늘도 감동한 '효녀 지은'을 읽고 - 조이안 ... 253
 마법 같은 효도 - 유다경 254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 이하은 255
 작은 마음 하나 - 최윤아 256
 우리 외할머니 - 김유은 257
 작은 변화 나부터 시작 - 정환 258
 어버이날 - 박가은 259
 가족 - 문지은 260
 나의 효도 - 김륜아 261
 작은 효도 - 장서하 262
 孝道 - 김예지 263
 효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 장민준 264
 가족에게 효를 실천하는 나 - 조수빈 265

그림

옥구슬, 김서연, 정채은, 박소울, 창우현, 이서진,
 김태린, 김유리, 최세은, 한서현, 황금물결, 김소윤,
 이강우, 이강교 266

6. 임원 및 회원명단

..... 270



옹진의 명승 향토유적 천연기념물



명승 백령도 두무진



향토유적 백령도 패총



향토유적 연평도 충민사



천연기념물 백령도 사곶 해변
(천연비행장)



천연기념물 신도노랑부리백로와 갯이갈매기 번식지

옹진의 명승 향토유적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천연기념물
백령도 진촌리 맨틀포획암 분포지



천연기념물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천연기념물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천연기념물 소청도 선캄브리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분바위

용진군민의 노래

윤 석 중 작사
손 대 업 작곡

행진 빠르기로



1. 서 해 에 널 려 있 는 수 많 은 섬 들
2. 이 옷 섬 이 옷 사 촌 정 다 운 마 을



파 도 와 싸 우 면 서 나 라 지 키 네
산 과 물 다 스 려 서 살 찌 는 고 장



푸 른 섬 을 거 - 느 린 용 진 군 민 아
황 금 어 장 차 - 지 한 용 진 군 민 아



우 리 는 빛 이 되 자 등 대 가 되 자
힘 모 아 마 음 모 아 잘 살 아 보 자

웅진문화 제7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2024년은 웅진문화원이 개원한 지 7년차입니다. 웅진문화誌도 7호 발간입니다. 웅진문화지는 우리 웅진문화원의 역사이고 연륜입니다. 문화지 발간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문화의 힘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웅진문화의 지속적 발간은 문화의 힘의 축적이며 문화의 뿌리며 문화의 꽃이며 열매입니다.

웅진문화원의 기본 사업인 인문독서의 함양을 위한 양서 보급과 그에서 얻어진 인문교양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기승전결(起承轉結)이 있는 글로써 표현함은 자신의 삶에 전성기를 꽃 피우는 것입니다. 웅진문화지는 회원님들의 꽃밭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열매는 충만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웅진의 지리적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웅진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인문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과목으로 회원님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과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그 향학열에 힘입어 문화생활의 지평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도 팔미도 골짜기만큼이나 깊어져 확고한 가치관이 확립되었을 것입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이 되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의 집중과 정리는 글쓰기를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자기표현의 역할로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오래도록 생명력을 가질 것입니다.

금년 강릉 문화유적 탐방길에서 본 오죽헌, 허균·허난설헌 생가터 등 500년 전 사람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곁에 서성거림은 시문(詩文)의 힘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웅진문화지에 게재된 글들은 역사와 신화로 후세인들에게 우리의 체온을 전해 줄 것입니다. 웅진문화지는 날이 갈수록 소임에 충실하고 글의 무게감이 생겨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웅진문화지를 애독하신 독자여러분! 웅진문화지의 연륜이 일천함에 항상 깊으신 관심과 이해로 지도편달 해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웅진문화원 회원님! 회원님의 꽃씨를 모종할 꽃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회원님의 생각을 꽃씨로 뿌리고 김매고 가꾸어 화사한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수확하시기 소망하며 회원님의 평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웅진문화원장

축사



문화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 했습니다.

문화란 우리 군민이 살아온 이야기, 역사, 생활방식이나 행동양식, 우리의 환경터전 등 군민의 삶의 전체가 우리 용진군민의 문화입니다.

용진문화지는 매년 변화하는 용진군민의 의·식·주, 용진군민의 이야기와 발전상, 용진군 환경의 변화, 군민의 의식 등을 마음에서 글로 표현한 용진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기록이자 지역 향토사의 소중한 자료로 우리 군민의 거울과 같은 삶의 발자취이자 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용진문화』 제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용진문화지 발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 알찬 원고를 보내주신 군민과 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용진문화원은 전국 232개 문화원 중 막내 문화원으로써 문화원 환경이 많이 열악하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 낸 태동철 초대 원장님을 중심으로 임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금년 한해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용진문화학교 운영, 용진섬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용진문화예술인의 밤 개최 등 새로운 사업의 발굴 추진을 응원하며, 용진문화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용진문화』 제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진문화지가 용진군을 이해하는 자료로 꾸준히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진군수

축사



우리 군의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옹진문화』 제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옹진군은 100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 보면 볼수록 새롭고, 천혜의 자연 환경이 바탕이 되어 풍요롭고 활기찬 고장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바로 문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짧은 시간에 형성될 수 없고, 정치나 경제의 발전과는 또 다른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다채로운 자연 환경을 보유한 우리 군에는 높은 가치의 문화 자원과 인력이 풍부하지만, 아직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옹진문화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각 섬의 주민과 문화 인프라를 연결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옹진군의회에서도 옹진 문화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옹진문화』는 옹진군과 옹진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엮어낸 우리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주민의 생활, 감성, 기량 등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에서 우리 지역 문화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느껴져 매우 기쁩니다.

옹진문화원 태동철 원장님과 임직원 및 회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옹진문화』 제7호 발간을 위해 좋은 원고와 작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옹진문화』 제7호에 담겨진 우리 군의 다양한 매력이 많은 이들의 감탄과 공감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옹진문화』 제7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옹진의 문화와 옹진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의회회장 이 위연

🍷 응진문화원 소식

2024년 제1차 이사회(2024. 1. 30.)



제1차 이사회

2024년 제7차 정기총회(2024. 2. 27.)



제7차 정기총회

2024년 제2차 이사회(2024. 8. 30.)



제2차 이사회

🍷 응진군 소식



응진군, 2024년 갑진년 새해맞이 참배

응진군수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흥면 해군 전적비에서 신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본받아 응진군민이 새롭고 신나는 2024년 갑진년이 되기를 기원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 센터 준공식 개최

주민과여행객들의여행선이용편의개선과대이작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월면 대이작도에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 준공



‘영흥 반딧불이 하늘고래 스카이워크’ 준공식 개최

영흥도의아름다운 해안경관 조망 해상보행로와 야간 경관 조명이 조성된 ‘영흥 반딧불이 하늘고래 스카이워크’ 준공식 개최



‘시·모도 연도교 건설공사’ 준공식 개최

북도면의 교통과 정주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시도와모도를 잇는 ‘시·모도 연도교 건설공사’ 준공식 개최

🍷 응진군 소식



‘백령 옹기포신항 바다쉼터 조성’ 준공식 개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백령도 해식 절벽과 절리의 경관을 가까이서 산책하듯 즐길 수 있는 ‘백령 옹기포신항 바다 쉼터 조성사업’의 준공식을 옹기포신항에서 개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응진군은 (주)한솔해운과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톤수 2,000톤 이상의 쾌속카페리여객선을 신규 건조하여 운항하고, 향후 20년간 운항 결손금 지원



응진군, 조선일보 「2024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지역발전 부문 대상 수상

2024년 7월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4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 대상 수상



응진군 동백합창단, 전국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4년 제15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인천시 대표로 출전한 응진군 대청면 동백합창단이 최우수상의 영예

🍷 **웅진군의회 소식**



웅진군의회, 북한 포 사격 도발에 따른 안보 태세 확립 관련 연평면 방문

1월 8일 북한 포 사격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된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연평도를 방문하여 주민대피소 등 안보태세 점검



웅진군의회, 자월면 현장방문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자월면을 방문하여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지역 현안 수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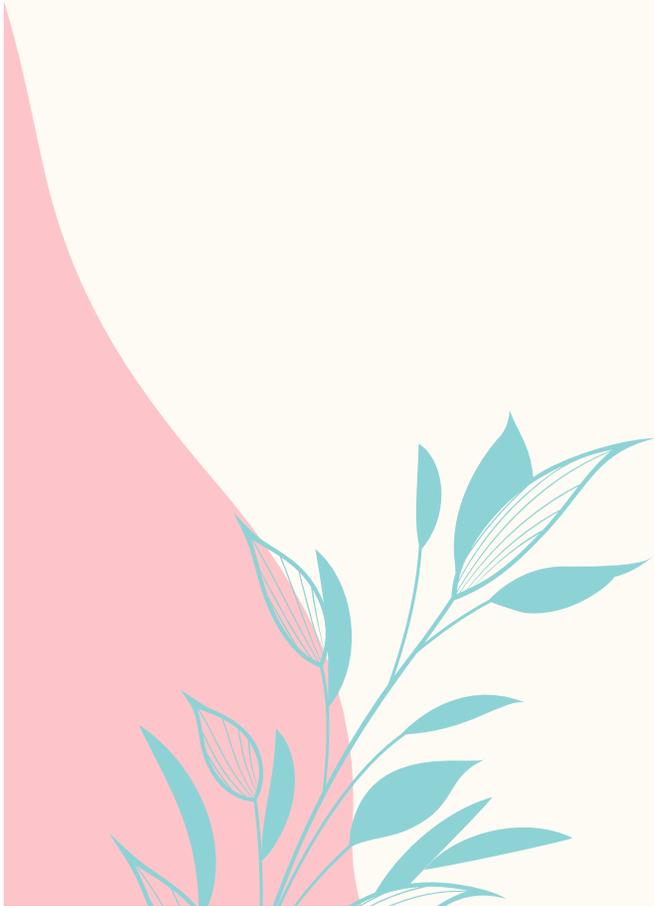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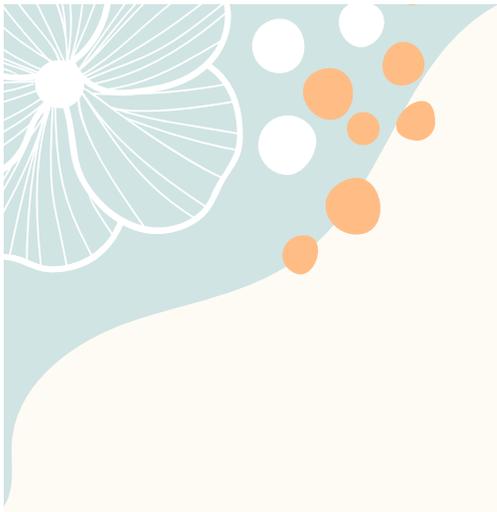
웅진군의회, 백령·대청면 현장방문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백령면과 대청면을 방문하여 백령면, 대청면, 소청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지역 현안 수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웅진군 의원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촉구 건의안 의결

6월 28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존권, 지역균형개발 등의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안 의결



2024 옹진 축제

- ▶ 제12회 장봉도 벚꽃축제
- ▶ 제2회 연평 꽃게체험 걷기축제
 - ▶ 제8회 주섬주섬음악회
- ▶ 영흥도 십리 for you 칠링의 밤
- ▶ 제51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
- ▶ 2024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제12회 장봉도 벚꽃축제

4월 13일 북도면 장봉도에서 제12회 장봉도 벚꽃축제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가장 늦게 벚꽃 축제가 개최되는 섬인 장봉도는 수도권에서 차량으로 40~60분 거리에 있어 당일여행이 가능하며, 고운 백사장을 자랑하는 웅암해수욕장과 한들·진촌 해변, 바다 경관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등산코스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매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다.

이번 행사는 식전행사로 장봉풍물패의 길놀이 및 모듬 북 공연과 색소폰·얼후(전통악기) 동호회의 공연이 펼쳐졌고, 장봉부녀회에서 운영하는 푸짐한 먹거리 장터와 벚꽃 포토존·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초대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제2회 연평 꽃게체험 걷기축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연평도 연평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제2회 연평 꽃게체험 걷기축제’가 열렸다. 연평면 봉사단체인 연가지기가 주최하고 응진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연평도 꽃게의 우수성과 연평도의 숨은 자연경관을 알리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올해 행사에는 관광객 20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꽃게장 담그기 및 문화공연을 체험하고 꽃게찜, 꽃게무침, 굴국밥 등 연평도의 다양한 먹거리를 즐겼다. 다음날 오전에는 함상공원을 출발하여 등대공원, 매드라까리, 아리카리 해안도로 등 연평도 둘레길을 걷는 걷기 대회가 이어졌다.





제8회 주섬주섬음악회



8월 1일부터 3일까지 덕적면 일대에서 ‘제8회 주섬주섬음악회’가 열렸다. 웅진군이 주최하고 경인방송이 주관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해변을 배경으로 버스킹과 노래방, 기념식, 음악회, 화려한 불꽃쇼 등이 펼쳐졌다.

3일 연속 열린 버스킹 공연에는 싱어송라이터 허정인과 노화정, 덕호씨, 유주호와 핑거기타리스트 김나린, 아코디언 주연, 인디밴드 경인고속도로가 함께 했다. 이와 함께 덕적도 주민들이 만든 동아리인 섬사랑과 덕적사랑예술단, 은빛, 큰물섬 등 5팀이 풍물, 민요, 색소폰, 라인댄스 등을 선보였고, 맨손으로 살아있는 새우를 잡는 수산물 잡기 체험, 씨글래스 목걸이 만들기, 천연면사 인형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 행사, 그리고 푸드존과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특히 경인방송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된 음악회는 MC 김양의 사회로, 가수 김혜연과 나태주, 신혜, 정다한, 조성자, 한유채가 출연하여 주민들의 큰 환호 속에 무대를 빛냈다.



영흥도 십리 for you 칠링의 밤

8월 10일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에서는 '십리 for you 칠링의 밤' 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십리포 물놀이장 개장식 축하를 겸하여 이뤄졌으며, 오후 6시경 십리포 통합안전센터 앞에 마련된 상설무대에서 영흥도 합창그룹 '여고동창생'의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감성 버스킹 ▷요가, 노르딕 워킹 ▷먹거리 장터, 특산물 판매 ▷행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십리포 해수욕장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피서 차 십리포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주민, 관광객 500여명에게 여름날의 추억 한 페이지를 선사했다.

버스킹 공연은 '여고동창생', '붉은노리', '고운슬', '툰어라운드' 4팀이 출연하였고, 주최 측에서는 공연 4팀 중 '여고동창생'과 '붉은노리' 2팀을 영흥도 출신으로 특색 있게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버스킹과 동시간대 소사나무 숲과 바닷가에서는 피서객들을 위한 힐링요가와 노르딕워킹도 진행됐다.





제51회 용진군민의 날 기념식

9월 20일 용진군청 효심관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용진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용진군민의 날을 축하했다. 원기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군민상 시상,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국회의원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 대청도 동백합창단의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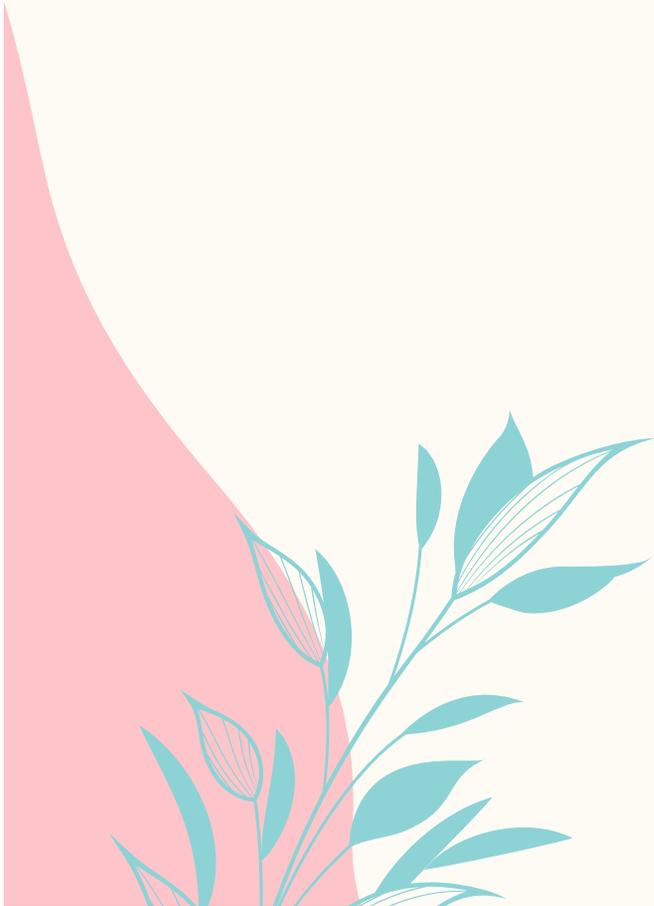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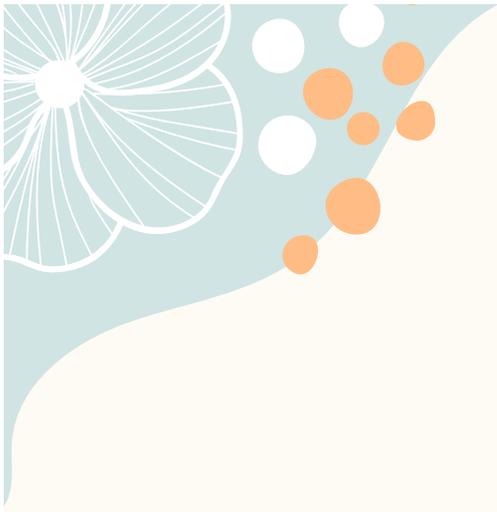


2024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9월 28일 옹진군과 경인방송은 대이작도 해양생태박물관 특별무대에서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대이작도의 자연을 배경으로 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행사를 선사했다.

주요 공연자는 대이작도와 신·시·모도, 영흥도, 백령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각 섬마을 음악동아리이며, 특별공연으로 가수 백영규와 한유채가 축하 무대를 꾸몄다.





1. 문예마당

- ▶ 시
- ▶ 수필
- ▶ 소설
- ▶ 자유기고문
- ▶ 감상문
- ▶ 기행문
- ▶ 작품(서각, 캘리그래피, 그림, 사진)



고향의 노래

강도영

이 작은 포구가
커다란 항구 같은 건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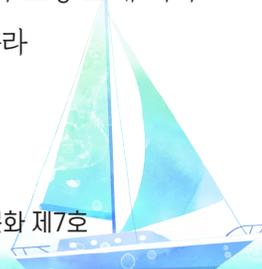
저 앞바다가
태평양처럼 보이는 건
여기가 내 고향 바다가기 때문이다

해변에 깔린 자갈들이
보석처럼 보이는 건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이다

하늬바람 세차게 불고
집채만 한 파도가 밀려들어도
무섭지 않고 정겨운 건
여기가 나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갈매기, 물오리가 친구 같은 건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 나의 고향 그대 여기
길이 영원하라



등대

강명한

노을이 붉게 물든 저 멀리 수평선에
외로이 깜박이는 이름 없는 등대
누구를 기다리나 외로운 등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한 없이 깜박 여도 깜박 여도

어둠 많이 어둠 많이 짙어만
가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외로운 등대



봄비의 소원^{所願}

김경협

봄비!

소리만 들어도 따스함을 느낀다

새싹들이 상처를 받을라 조용히 내린다

농부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논밭에도 내린다

목 마른 동·식물에 꿀 같은 생명수를 뿌린다

녹음이 우거져 지구의 생명력을 충족하게 온 천지에 내린다

봄비!

삼라만상^{森羅萬象}을 골고루 일깨운다

봄비 같은 세상이

봄비 같은 나라가

봄비 같은 인간이

봄비 같은 사회가 되길

봄비 소리를 들으며 손 모아 기원^{祈願}해 본다

귀뚜라미

김근종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은 깊어 가는데

사랑 찾아 세레나데
 짝을 찾아 세레나데

귀뚜라미 사랑놀이에
사람들은 처량할까?

찌르륵 찌르륵 찌르륵

귀뚜라미 가을에만 우나요

귀뚜라미는 깍쟁이



바람의 지도

김수원(정숙)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발바닥을 본다
바람을 밟고 다녔던 그곳엔
어둡고 습한 천상열차분야지도가 있었다

하늘의 지도를 만들려고
가장 높은 바닥을 그렸지만
가장 낮은 바닥을 딛어야 하는 숙명

걸어온 여정을 천문의 지도는 보여주었다
발이 밟았던 바람의 지도를
별자리로 바꾸는 아버지는 연금술사였다

북극성을 따라가다 보면
가족은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별자리마다 경락 자리로 빛났지만 척추는 무너져 있었다

바닥은 바닥이라서 걸음마다 바닥이었다

숨을 들썩이는 발등을 바라본다
산다는 건 별자리를 찾는 일이어서
깜박이는 발가락을 펴 보는 것이어서

지도를 그리는 일은
발바닥부터 뜨거워지는 일이다



억새 꽃

김춘연

겨울바람이 흐느껴우는
 바닷가언덕
 듽성듬성 억새꽃이
 허연 몸짓으로 나부낀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바랜 머릿결을 닮은
 억새꽃의 몸짓에
 얼핏 서글퍼진다...

사납게 철썩이는
 파도소리도
 스산하게 불어대는
 바람소리도
 내 가슴속을 파고들어
 후비듯 아파온다...

그립다 참 많이도 그립다
 내 어머니의 바랜
 억새꽃과 같은
 머릿결을 가슴으로
 안고 싶다...
 이 가슴으로 꼬옥
 안아 보고 싶다...



1분의 길이

김현주

혼자 중력의 고통을 느끼는
프랭크 운동, 1분의 길이를 힘겹게 체감하면서
저 밑줄 친 가을별 행간 어디쯤
그리운 이들은 숨어 눈동자를 깜빡이는지
눈을 감아도 타오르는 마음의 별채에서
새소리가 날 때마다
땀방울이 꽃잎처럼 똑똑 진다
내 몸이 빈 무덤이었나,
사후까지 깜빡이는 초신성처럼
제 몸의 성근 깃털을 잊은 수평의 자세로
만개한 꽃잎을 당겨 커튼을 치고
비지땀을 흘리는 동안
오늘은 예고도 없이 누군가
깨금발로 건너와 요란하게 울다 간다
헤어진 1분조차 안타까워하면서도
만산홍엽의 전후로 나른해지는 허밍은
늘 '괜찮다'는 혼잣말
대지의 싹뿔줄을 따라 흩어지는
저 분홍잎사귀 좀 봐봐!
긴장한 경추 밑으로 숨어드는 그림자와
싸우는 절대 고독의 시간
숨을 곳이 고작 여기밖에 없었다니!
떠나라, 떠나라, 청량산 중턱의 목탁 새가 시끄럽게 울지만
급하거나 심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낯지도 않는
만성^{慢性}의 징후, 내 안에서 내가
너무 오래 너를 버티고 있는 것 같다.

행복한 길

류인채

뽕잎을 따다가 콩밭을 매다가 때늦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 가는 길이 매일 소풍 같았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오른손엔 책가방 왼손엔 영어 단어장을 들고 학교에 가던 길
 산모퉁이를 지나 신작로를 지나 언덕 아래로 내달리면 초록 들판
 좁은 논두렁길에서 단어를 외우며 가다가 무논에 빠지기도 하면서
 이슬 젖은 풀을 헤치고 걸다가 뱀을 만나면 소름이 돋기도 하면서
 낙지천에 이르러 마음을 행궤다
 고동이 새까맣게 붙은 징검다리를 건너 볼모루를 지날 때
 일찍부터 논밭에 나가시는 어른들께 다소곳이 인사하면서
 자전거를 탄 급우들을 만나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기도 하면서
 교문 앞 규율부 앞에서도 당당하게
 넓은 운동장 가장자리 노란 결명자 꽃과 눈인사를 하면서
 교실로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으면
 단발머리들이 무슨 탐스러운 꽃송이 같았다
 첫째 시간부터 끝까지
 오늘은 또 무슨 새로운 것을 배울까 설레던 날들
 그 힘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일까
 결핍이 나를 키웠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날이 그리운가
 내 생애 다시 그런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이름을 지우며

박정숙

핸드폰에 우연히 뜬,
막걸리를 즐겨 먹던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찾아보면 지워야 할 이름
더 있을 듯도 한데
아침 일찍 지우개 들긴 썩 내키지 않는 일

소중하게 적었다가
확인 하나로 지워지는 이름
결국 나도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

더함에 기뻐고
모자람에 안타까움의 연속인
이 무한의 공간에서

서로 비추다가 바꾸어 들어가는 어둠
암흑과 빛의 반복 속에
여명도 노을도 있느니

마냥 우울할 일만도
마냥 기뻐할 일만도 아닌 것
다시 채워 가야 할 환한 아침이 있어 좋은,

섬진강

백덕순

섬진강과 비의 만남은
 내 가슴에 내리는 비의 연가
 어느 구름자락의 흐느낌 같이
 낮은 목소리로 가락을 맞추는

문학의 수도 섬진강
 서울 간 첫사랑을 기다리는
 하동 매실 아가씨도 없고
 슬피 우는 물새도 없는 하동포구

삿대도 없는 뱃머리에서
 풀피리 붙어주던 청개구리는
 어머니 무덤가에
 비바람 비껴가소 필릴리 릴리
 빗방울만 하나둘 세다가
 구멍 난 하늘 보고 통곡하다 잠이 들고

빗방울 소리에
 맑은 영혼의 음표를 달아주는
 섬진강 최고의 소리꾼
 빨강 악동들이 불러주는 비의 연가는
 기타 줄 높은음 자리에 앉아
 언어의 꽃씨를 뿌리고 있는가.

서포리의 아침

서현순

푸른 파도에 감싸인 작은 항구
서포리의 아침 고요한 바람
어부의 그물 바다의 선물 담고
흰 깃발 펄럭이며 하루를 알리네.

섬의 정취 소박한 집들 사이
갯내음 가득한 길을 걷다 보면
덕적도의 숨결 사람의 이야기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곳 서포리.

섬 날, 가을 날

손영덕

창문 앞엔 이미 가을

걸다가 툭 채인 돌맹이
뚝데구르 구르다가 멈춘 곳
가을 섬이 눈부시다

손 내밀어 스윽 훑은 잡풀
윤슬바람으로 바스라진다

아스라한 전설의 시공간에서부터
움직였을 법한 햇살 한줄이
시리게 따갑다

장봉의 가을을 이리 본다

실례 이야기길

손옥경

청년 김유정의 자애로운 눈길
머물다간 금병산 자락은 그대로인데
아늑분지 떡시루 같다는 실례의 길
출랑출랑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
청년 김유정의 1930년대 고향 산골
스물아홉의 짧은 생애는 봄날에 스러져 갔지만
들병이들 넘어오는 눈웃음길
금병산 아기장수 전설길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
덕돌이가 장가가던 신바람길
복만이가 계약서 쓰고 아내 팔아먹던 고갯길
춘호처가 맨발로 더덕 캐던 비탈길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고샅길
낮은 산비탈 기슭에 난 자드락 길
도련님이 이쁜이와 만나던 수작골길
응오가 자기 논이 벼 흙치던 수아리길
금병의숙 느티나무길과 맹꽁이 우는 덕만길
실례 이야기 길은 근·현대사의 에움길
추억의 고향 산골이 따스하게
동구 밖 언덕길도 우리의 길이기에
그림처럼 시공^{時空}을 넘어 다가온다.

나비의 비행

유회숙

가슴골 보일락 말락 문득 리본이 풀어지는,
 봄의 난간에서 나비가 피워 올리는,
 환한 곡선으로 도시의 거친 호흡들 꽃잎이 되는,
 주위를 살피는가 싶더니 나비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날개의 반점 점점 넓히며 맘껏 가슴을 부풀리는,
 꽃은 꽃대로 나비의 배경이 되는,
 푸른 고요도 한 송이 걸음 멈추는,
 아직은 사거리 꽃집을 떠날 수 없는,
 핑음과 속력이 질주하는,
 빌딩숲과 근린공원을 접고 그 찬란한 순간을 접는,
 저만치 나풀나풀 나비를 쫓아가는,
 사거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나비와 나와 꽃의 보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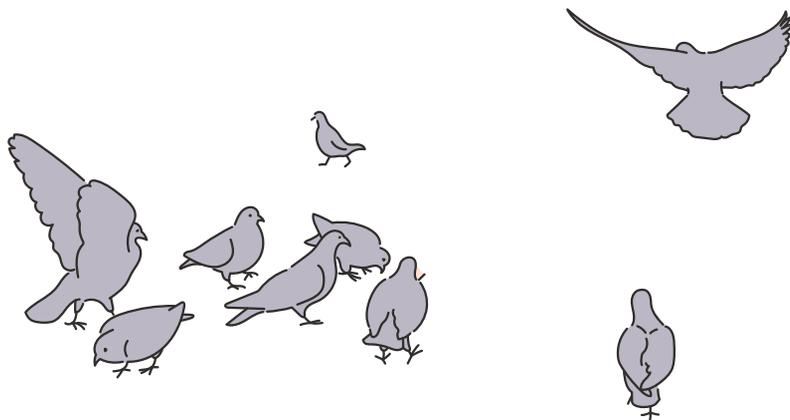
집단적 독백

이문자

비둘기들이 모여서 모이를 쪼고 있다
먹이를 먹으면서 실 새 없이 울어댄다
이쪽에서 먹이를 쪼며 울고
저쪽에서도 끝나기도 전에 울어댄다

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소리 지르는 것일 수도 있다
소리가 소리를 말이 말을 지우고
자신만의 말이 말이라고 구구거린다
듣는 이는 없이 다들 제 말이
완전한 소리라는 듯 목소리를 높인다
어느새 울음은 소음으로 난장판을 만든다

평화가 모여서 평화를 지우고 모두가
자신만의 평화에 갇힌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

이소철

자연의 이치란 정말 오묘하다
가을의 마른 바람은 대지의 풀과 나무들을
말려서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하고
봄에는 습한 바람으로 풀과 나무들이
푸르름의 옷을 입히고 꽃을 피운다

푸르름은 생명이요 꽃은 꿈인데
살구나무는 꽃을 먼저 피운다
사람에게 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였던가

오늘 교회 단상에 놓인 화병의 살구나무 꽃을 보며
활짝 열린 커튼 사이로 불어오는 훈풍에
내 손을 담귀 새봄을 만나본다



바다 사냥꾼 (부제: 씨헌터)

이영노

그 바위섬을 돌아 지나는
사릿물 때의 성마른 물살은
염장되어 비린내 나던 밥상을
챙겨놓던 아버지의 바다

어느새 선대로부터 이어진
바다사랑을 닮아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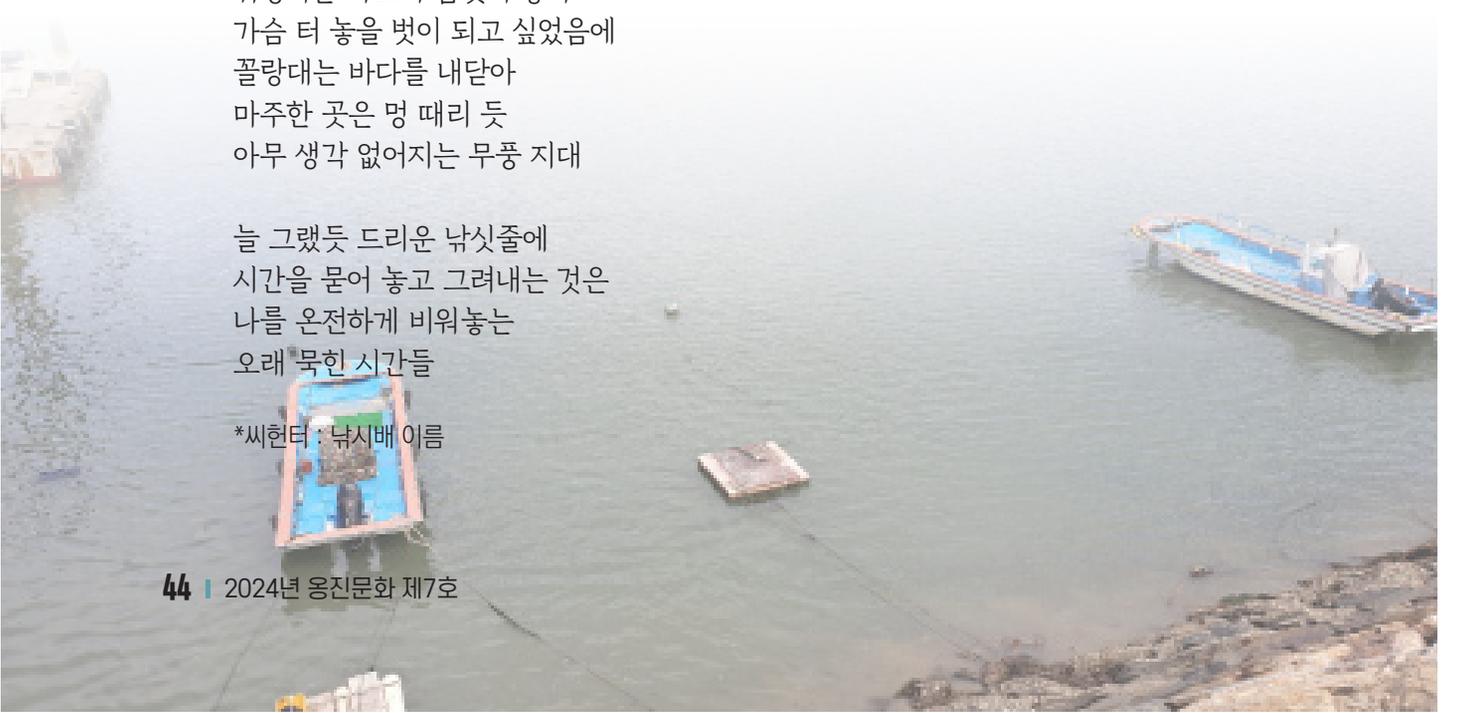
새벽 바람에 삐걱대던
씨헌터^{sea hunter}의
성급한 들썩임은 너른 바다를
내달리고 싶은 질주 본능

목젖에 이는 배멀미 속으로
퍼덕이며 내뱉어지는 고물의 포말이
하얀 목마름을 만들고 있다

휘청이는 파도의 몸짓이 좋아
가슴 터 놓을 벗이 되고 싶었음에
꼴랑대는 바다를 내달아
마주한 곳은 멍 때리 듯
아무 생각 없어지는 무풍 지대

늘 그랬듯 드리운 낚시줄에
시간을 묻어 놓고 그려내는 것은
나를 온전하게 비워놓는
오래 묵힌 시간들

*씨헌터 : 낚시배 이름



스웨터 가족

임경남

병원을 다녀온 언니가 스웨터를 짠다
 언니의 손끝에서 구멍이 생겨난다
 휴일 하나 없이 달려온 날들이
 몸 안에 가득 퍼진 것이다
 언니는 스웨터가 아닌 구멍을 뜨는 사람
 나는 그녀의 구멍에 뛰어들 수가 없다

퇴근한 남편이 스웨터를 짜고 있다
 회사 어디쯤에서 코를 놓쳤는지
 스웨터를 짜다가 길을 잃는다
 스웨터에서 사라진 남편이 스웨터를 짜고 있다
 내 코가 석자라며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아들이
 반쯤 남은 실뭉치를 들고 문을 닫아걸어서

오늘밤은 천천히 지나가겠구나
 언니의 밤이 아들의 밤이
 스웨터 무늬처럼 지나가겠구나
 달맞이꽃 무늬로 격자창 무늬로

혈령한 런닝을 입은 아버지도 스웨터를 짠다
 저 스웨터 끝나고 나면
 30년 직장이 끝나고 통장잔고도 끝나고 실뭉치도 끝날 텐데
 온 가족이 스웨터를 짜서
 밤새도록 내 잠에도 스웨터가 생기고 스웨터가 풀리고

아침 격자창으로 들어온 햇빛이
 거실 바닥에서 스웨터를 짜고 있다



하루살이의 하루

정규영

하루만 산다 해서 하루살이라 부른다
하루만 살고 사라지는 하루살이의 속마음 어떨까?
그 마음속엔
왜 하필이면 이런 운명을 안고 태어났을까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주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시간과 여유는 오늘 하루 뿐이기 때문이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
이렇게 중얼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모기가 찾아와서 친구가 되었다
우린 둘이서 하늘도 날아보고
강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숲속에서 오손도손 즐기는데
어느덧 어둠이 찾아온다
하루살이는 자신을 알기에 자꾸 두려워진다
그런데 그때 모기가 다가오더니 하는 말
친구야 오늘은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 말에 하루살이는 먼 산을 쳐다보다 말문을 연다
모기야 나는 하루살이야
오늘 하루밖에 못 사는 바보란다
오늘 너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웠고 행복했어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를 만날거야
말을 남겨 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 내 고향 대이작도여...

정철진

섬 깃든 바다소리
 휘감아 돌아
 잉태한 작은 희망의 끝자락에
 송이산 긴팔로 업고 내달린
 어머니의 품이시여...
 태고에 긴 여정 따라
 오늘에야 내달려 안착한
 내 작은 희망의 땅
 아! 그리운
 내 고향 대이작도여...



일상의 고요

조승래

물이 제 몸 바꾸어 가면서 순응한다는
말은 흙 앞에서 재평가 받아야 한다.

흙은 찌적 제 몸 갈라져도
스스로를 위해 물 한 모금도 쓰지 않았고

뿌리랑 새싹이랑 뺏어나가려고 하면
노잣돈처럼 물을 딸려 보내지 않았나,

억만년을 그저
제자리 찾기에만 열중한 흙은

주변이 평평해지자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친구

강명한

5년 전 어느 건축 현장에서 키는 작고 뚱뚱한데 목소리는 기차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엄청나게 큰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알고 보니 그는 목수 책임자였다. 항상 현장은 시끄러웠다. 그래서 매일 고품을 지르다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았다. 목소리가 커도 너무 컸다.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 자빠질 정도였다.

나는 창호공사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술을 같이 하게 되었다. 재미있는 친구였다. 예의도 바르고 술 매너도 좋고 맘에 드는 친구였다. 그 뒤로 자주 술자리를 갖고 일도 늘 같은 현장에서 하게 되었다. 나는 그 친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 잘 해줬다. 언젠가부터 현장이 달라 따로 떨어져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내가 부부싸움을 하여 집을 뛰쳐 나왔다. 나와 보니 갈 데가 없었다. 나는 그 친구를 전화로 불러냈다. 동암역에서 오이소주 한 잔씩 하면서 집 나온 이야기를 하였다.

어디 한적한 곳이 없냐고 했다. 그랬더니 서천에 친구가 있으니 그리 가자고 하였다. 일도 마침 없는데 잘 됐다면서 서천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관을 잡아 잠을 자고 새벽에 출발하였다. 새벽 5시에 출발하여 9시 정도 도착하였다. 겨울철이라 날씨가 무척 추웠다. 서천 친구는 옛날에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듯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내가 아닌 목소리 큰 친구를...

우리는 아침을 먹고 목공소 문을 걸어 잠그고 총을 가지고 차를 타고 멀리 핑을 잡으러 나갔다. 의외로 핑이 많았다. 우리는 순식간에 핑을 3마리 잡아 목공소에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밤이고 낮이고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며 즐겁기만 했다.

즐거움도 잠시, 3일째 되니 술술 집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현민 애비야, 현민이 엄마가 베란다에서 아파트 정문 쪽만 바라보며 울고 서 있단다.

어서 집으로 와라.” 하시는 거였다.

원 없이 실컷 놀고, 5일째 되던 날 집으로 왔다. 좀 미안한 감은 있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다. 정사장(목소리 큰 친구)이 자기 와이프한테 식당을 차려 주었다고 개업식에 오라고 하였다. 그것이 그 친구가 크게 잘못 되어가는 시발점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쁜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 인감을 잘못 사용하여 집도 식당도 모두 날려 버렸다.

그뿐 아니었다. 보증을 서 주는 바람에 남의 빚까지 떠안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끝내는 와이프와 이혼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아야 했다.

그때만 해도 믿을만한 보증인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내가 보증을 서 주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로 내 생일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챙겨준다. 지금까지도.

미안하게도 난 한 번도 그 친구 생일을 챙겨 주질 못했다. 지금 그 친구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 태안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잘 살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 집사람하고 태안에 가서 그 친구 생일을 거하게 차려 주고 왔다. 일부 빚은 갚은 셈이다. 내년에도, 앞으로도 꼭 그 친구의 생일을 꼭 챙겨주고 싶다. 그 친구 덕분에 나도 태안을 5년 넘게 다니다 보니 동리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그 친구 집 밑에 땅을 사서 집을 짓게 되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였던가? 그 말이 나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우리의 만남은 영원히 같이 살라는 신의 뜻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서천 친구는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다.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끝까지 일을 해 주고 갔다. 참 고마운 친구들이다.

내 이름은 덕꾸

김근종

연락선이 오고 가는 서해의 작은 섬, 시도. 수기해수욕장 가는 길의 고즈넉한 언덕배기에 어느 날인가부터 자그마한 녀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몸을 숨긴 채 간간이 나타나 주변을 맴돌다가 이내 풀숲으로 숨어 버리는 하얀 복실 강아지.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허구한 날 언덕을 오르내리며 초췌한 물골로 떠날 줄 모른다. 그 자리, 그곳만 한결같이 지키고 섰다.

그러다가 하얀 자동차만 지나가면 느닷없이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뒤따라 달린다. 쫓아가다 자동차가 작은 점처럼 멀어지면 기진맥진해서 또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사람들을 경계하며 두려움에 몸을 감춘다. 하얀 털의 복실 강아지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어이하여 긴긴 시간, 언덕배기 풀숲을 드나들며 여러 날이 지나도록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그곳을 떠나지 못할까.

날이 갈수록 녀석은 비 맞은 참새처럼 경계심이 극에 달해 사람만 보면 부르르 몸을 떨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얀 복실 강아지가 안타까울 뿐 무엇 하나 도와줄 수가 없다. 어느 집 누구네 강아지길래 배고픔도 잊은 채 언덕배기를 수십, 수백 번을 오르내리며 안타깝게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백방으로 알아봐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

빨간 찔레꽃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과 파란 대문. 하얀 벽 아래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엄마 젓을 맛나게 먹으며 형아 동생들과 뒹굴며 물고 뜯고 행복하게 시간이 흘러가던 때였죠. 나는 매일매일 무럭무럭, 아무 걱정 없이 자랐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이른 아침. 하얀 자동차를 타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웅성대는 소리와 처음 보는 모습에 내 귀가 쫑긋해졌어요. 처음 보는 누나가 다가와 나를 안고 쓰다듬었어요. 그러더니 주무르고 뽀뽀하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나는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누나와의 첫 만남은 어색하게 이

루어졌지만 나를 예뻐해 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속마음이 마냥 싫지는 않았어요.

“와, 털복실이 그놈 참 잘 생겼구나. 애들아, 너희들도 마음에 드는 거지?”

나이 지긋한 아버지의 말씀에 형아와 누나는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 씩씩한 대답에 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인자하게 생기신 새 아버가 나를 번쩍 들어 하얀색 자동차에 태웠고, 이름도 지어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네 이름은 덕꾸(Dog)다, 덕꾸야.”

덕꾸. 나는 처음 가져본 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형아와 누나가 역수로 기분이 좋은가 봐요. 하하 호호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자동차는 시원한 고속도로를 달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네모난 콘크리트 건물에는 마당도, 빨간 짙레꽃도 없지만 그래도 근사했어요.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 집이니깐요.

“새엄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덕꾸예요.”

나는 씩씩하게 새엄마께 인사를 했어요. 그러나 새엄마는 한참을 통명스럽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무언가 못마땅한 듯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형아와 누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엄마의 무서운 눈초리는 내 기억 속에서 금세 잊혀졌죠.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한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죠.

어느덧 나는 두 살이 지나, 세 살이 되었어요. 조금 자라고 나니 무서운 엄마의 얼굴만 바라봐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얄전하고 조용하게 지내기였죠. 엄마는 정말이지 나를 싫어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무서웠고, 엄마만 보면 주눅이 들었죠.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밤. 엄마와 아버가 말다툼을 했어요. 자다가 깬 나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 덕꾸, 덕……꾸.”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했어요. 엄마의 입에서 중간 중간 내 이름이 나왔다는 것. 엄마는 계속 역정을 냈고, 아버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꼬리를 바짝 내리고 귀를 덮었어요. 아마도 내가 엄마에게 무엇인가 많이 잘못한 거 같았죠. 무섭고도 긴 밤이었습니다.

다툼이 있고 며칠 후, 이른 아침이었어요. 가족들은 해수욕장으로 놀러 간다고

분주했죠. 가방 가득 먹을 것을 준비하고 수영복과 비치볼을 챙겼어요. 형아와 누나, 심지어 엄마까지 모두 신이나 있었어요. 챙길 것 없는 나도 덩달아 마냥 즐거웠어요. 바다라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났어요. 언젠가 아빠를 따라 바닷가에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바다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후련해지고 발바닥에 닿는 까슬한 모래는 그 어느 곳보다 재밌었죠.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닷가를 마음껏 뛰어놀았었죠.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재밌게들 놀다 와. 우리 덕꾸 신나겠네.”

아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와 함께 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으나 급한 일로 출장을 가신다니 어쩔 수 없었어요. 서운하기는 했어도 형아랑 누나랑 함께이니 다행이었어요.

엄마와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얼마나 달려왔을까. 아침 햇살에 물비늘이 반짝이는 삼목 선착장이란 곳에 도착했어요. 난생처음 커다란 배도 타 보았죠. 연락선을 타고 섬에 도착했어요. 바다 위를 등실 떠온 자동차는 다시 땅 위를 씩씩 달렸고, 파도가 넓은 모래사장을 쓰다듬는 수기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누나와 형아는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모래성을 쌓고, 조개와 고동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어요. 나도 신이 나서 자그마한 돌계를 잡으려고 뛰어다녔죠.

“애들아, 밥 먹고 놀아라. 덕꾸야, 덕꾸도 빨리 오렴.”

엄마가 웬일인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셨어요. 나를 그토록 미워하던 엄마가 그날따라 참 달랐죠.

“덕꾸야, 덕꾸가 좋아하는 고기야. 많이 먹어라.”

따뜻한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간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맛난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태어나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죠.

어느덧 수기해수욕장 위로 노을이 곱게 밀려들었고, 가족들은 섬을 나가는 마지막 배를 타기 위해 차를 달렸어요. 까무룩 잠이 들려는데 차가 멈췄어요. 엄마는 언덕배기 귀퉁이에 차를 세우고 말씀하셨죠.

“덕꾸야, 덕꾸 간식 사러 우리 슈퍼마켓 다녀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나를 안아 차 밖 언덕배기에 내려놓았고, 형아와 누나가 갑자기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안 돼, 엄마.”

뭐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는 걸까? 나는 형아와 누나가 걱정되어 멍멍 짓었습니다. 그리고는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말라고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보였죠. 그 사이 차가 부웅 하고 떠났습니다.

혼자가 된 나는 의젓하게 앉아 가족들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코끝에 닿는 공기에 물기가 가득했어요.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로 어둠이 내려왔죠. 시간이 한참 흐른 거 같은데 슈퍼마켓 다녀온다던 엄마의 모습도 하얀 자동차도 보이지 않았죠.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꼼짝 말고 기다리라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나무 밑으로 비를 피하지 않고 언덕에 앉아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추웠지만 참았어요.

비가 그치고 날이 밝았어요. 다시 땡볕과 더위가 내려왔고 목이 말랐어요. 밤과 낮이 그렇게 반복되었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엄마를 볼 수가 없었죠. 혼자라는 두려움에 무서웠어요. 형아와 누나,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배고픔의 고통도 잊은 채 가족들이 꼭 올 거라는 믿음으로 버텼죠.

이제야 형아와 누나의 눈물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얼마를 더 기다려야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얀 자동차만 지나가면 혹시나 엄마일까, 사력을 다해 따라갔어요. 그러나, 점점 그것조차 힘들어졌죠. 엄마의 모습은 차츰차츰 지워졌고, 추위와 배고픔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물려드는 아픔에 나는 결국 배를 땅에 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덕꾸야, 내년엔 아빠랑 수기해수욕장에 가야지.’

‘쓰러지면 안 돼, 덕꾸야.’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빠의 간절한 외침에 나는 눈을 뜨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죠. 내 마음을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느님도 아시는 듯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빗물이 씻어 줬죠. 풀숲의 풀벌레들이 노래를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허공을 향해 손사래를 저으며 애타게 불렀죠. 그러나 끝내 엄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어요.

‘덕꾸야, 미안하구나. 끝까지 지켜 주질 못해 미안하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렴. 아빠가 곁에서 지켜주마.’

내 숨은 그렇게 멈추었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지만, 아빠를 보고 가기에 나는 행복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축 늘어진 두 손을 아빠 품속에 살며시 올려놓자 내 고향이 보였어요. 빨간색 짙레꽃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고향으로 은하수 물결을 따라갔어요.

멍멍, 멍멍. 엄마와 내 형제들이 나를 마중 나왔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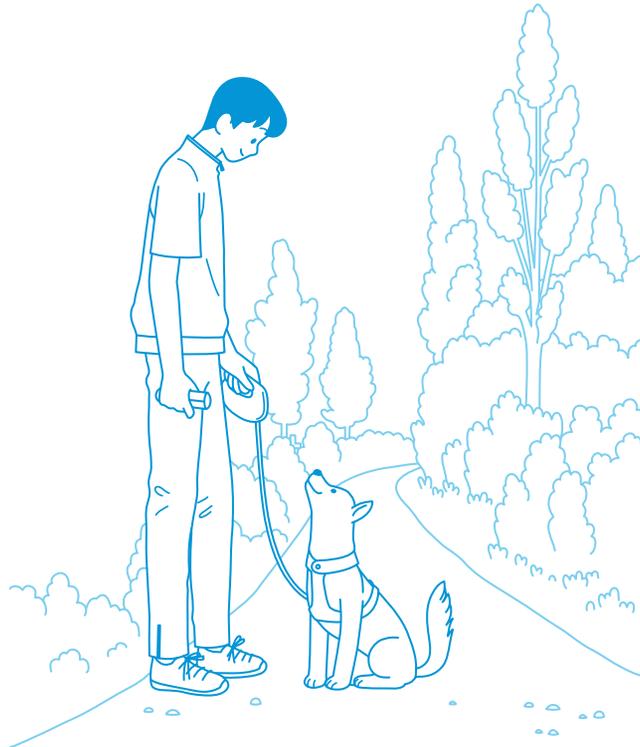
녀석은 그늘진 풀숲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바짝 말라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뽀뽀 꼬여대는 파리떼를 쫓아내고는 아가, 불렀지만 대꾸가 없었다.

하얀 복슬강아지는 이미 무지개다리를 건넌 뒤였다. 이름이라도 한 번 불러주면 좋으련만, 끝끝내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알 수 없을 터였다.

아가야, 네 이름이 뭐니?

“할아버지, 내 이름은 덕꾸예요.”

덕꾸요.



소리를 찾아가는 길

김도희

해가 맑다. 장마도 끝났는데 몇 분 간격으로 게릴라성 비가 들이 붓다 멈춘 뒤라 눅눅하지만 깨끗하게 정화된 도로를 달린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갈고 닦았나 벌써 반백으로 소리 길을 달려간다. 처음 만난 선생님과 아쉽게 이별을 하고 여기 저기 기웃대다 보문동에 새로운 동지를 틀어본다.

유년이 아파서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정을 트고 나누지도 못하는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어정쩡하게 소리만 바라본다. 주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선생님의 눈과 입술 북소리에 귀를 연다. 나이가 육십을 훨씬 넘어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답이 약해서 깜짝 깜짝 잘 놀란다. 사람들이 으박지르거나 큰소리에도 겁을 먹는다.

왜 이렇게 나약한지 가슴 안엔 한 덩어리만 큼지막하게 심장 뒤편에 화병으로 밀어두고 눈치만 보다 사람들 관계가 나를 향해 냉기가 돌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다른 곳으로 찾아든다. 철새처럼 새로운 동지를 틀고도 방황하는 소리는 객기만 부리는 듯 맘에 들지 않는다.

소리 선생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데 첫 선생님의 소리가 너무 좋았다. 오십대에 만나서 8년을 함께하였다. 그땐 무조건 질러댔다. 장단이 뭔지, 소리길이 어디인지 목 안에 핏대를 세웠다. 낭창낭창하게 탁구공처럼 타다악 튀어올라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코로나로 마스크를 끼고도 열정을 불태웠는데 그만 연세도 있고 시고 학생들도 떨어져나가 졸업 아닌 졸업식을 했다.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마음에 응어리진 돌덩이들을 하나둘 소리로 뽑아가다 보니 소리는 뒷전이고 그만큼 음정 박자도 무시하던 음치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들기 힘들고 어려운 고비사막 같은 시간을 헤매어 돌았건만, 이제 기대하던 소릴 접으려 애를 써도 소린 자꾸 다른 길을 찾아 떠나라고 날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이 길을 걷다 안타까운 사연의 선생님도 만나보았다. 여성처럼 체구도 여리신 남자 선생님은 자꾸만 소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때론 무리지어 떠나는 게 병이 되어 마음을 앓고 계셨는데, 그만 소릴 접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한다.

어차피 사람들은 우 몰려왔다, 우르르 떠날 때도 있다. 집착과 미련은 버려야 한다. 가는 사람은 막지 말고 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살다보면 거름망에 걸려지는 작은 결정체처럼 맺은 남아 오랜 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내 것은 하나 없다. 무소유로 멋진 풍류와 즐기다 빈 몸으로 가는 것인데 뭘 그리 안타까워하는가 모르겠다.

인생은 덧없더라. 어제 분명 내 곁에서 숨 쉬고 함께했던 이가 내일 보면 먼 곳으로 떠나고 없다. 오늘 하루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게 제일 좋은 일인 듯하다.

요번에 만난 소리꾼은 선생님을 잘 만난 듯하다. 소리가 제대로 살아 공력든 목을 대를 올려 나올 때 난 거의 무아지경이 된다. 처음 만난 선생님의 소릴 듣는 듯하다.

난 바람이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리고 오래도록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그 건 하늘에 맡겨야 한다. 바람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뜬구름처럼 방향을 튼다.

우리 소리, 특히 남도민요나 판소리는 한이 뻗속 깊이 웅이처럼 박혀있다. 그래서인지 한이 깃든 소릴 내기란 힘들다. 내게 선생님이 말했다. 넌 한이 골골이 박혀 있어 소리에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거라 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야 어설프게 풀어내는 소리들마다 한이 기웃댄다.

2024년 8월 9일 금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짧은 소리 공부의 길을 떠났다. 여자 6명, 남자 고문님 한 분과 남양주에 있는 수동계곡의 한 펜션으로 갔다. 계곡물이 2급수라 그런지 모기와 염분을 꿀처럼 물어 나르는 벌떼들 속에서 발 한 번 제대로 담가보지 못하고 주인장은 소릴 내놓으려고 하면 곰팡이네 술술 풍겨 오는 지하 노래방 안으로 우릴 밀어 넣었다.

서로 음식은 풍족하게 배를 채웠지만 소리는 고파서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헤매며 돌아다녀도 산세가 험악해서 어디로 갈 수도 없다.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다 가기엔 좋지만 소리를 하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았다.

이제야 소리 눈이 조금 트여지는데 어디쯤에서 후우욱 뿜아 마지막 남은 잔가지

1. 문예마당

들을 쳐내고 힘이 들어간 부분들을 골라 새털처럼 보드랍게 때로는 세차고 굴곡지게 때로는 맑고 단아하게 사람들이 들을 때 심금을 울리고 가슴살 골골이 박힌 한들을 제대로 풀어 낼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수도 있어야하는데 나이가 들어 그만큼은 안 되어도 조금은 가게 해야 하는데 갈 길이 멀다.

아직 둔탁하고 연약한 목소리에 탐탁지 않다. 거기다 기관지 천식까지 있으니 언감생심 소리 욕심을 키워내지 못한 채 늘상 다람쥐 쳇바퀴만 돌린다. 마음만은 명창을 원하여도 꿈이다.

몇 십만 원 들여서 개인공부도 하고 싶은데 접어야 한다. 취미로 배우다 더 나이 들면 혼자 여행하면서 한 소절씩 쏟아내어 위안을 삼으려 한다. 자꾸만 열정이 식어간다. 예전에는 소리 대회가 열리면 가보려 난리인데 멀찌감치 바라볼 뿐이다. 젊음이 좋다. 우리 소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소릿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나이드니 목소리도 갈라지고 쉬어 터져서 즐기다 가야지 무언가 되려하면 안 된다. 역마살이 나를 끌고 늘 밖으로 나가자 한다. 그러면 어느 산자락에서 소리 한 보따리 풀어내고 와야겠다.

먼발치 산마루에 햇살이 곱다. 여름도 어느새 가을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정한수

김용준

아버님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시면 3, 4개월 뒤쯤 집에 오시곤 했다. 바다에 나가신 그 날 저녁이면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있는 뒤주 위를 깨끗하게 닦고 사기그릇에 쌀을 수북이 담은 뒤 뚜껑을 덮어 뒤주 위에 정성스레 놓는다.

북두칠성이 손짓을 하고 수많은 별들이 소곤소곤 유난히 반짝이던 밤. 뒤뜰 장독대로 살며시 다가가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촛불을 켜 뒤, 두 손으로 비비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님께 비나이다, 정성스레 주문을 외우시며 빌고 또 빌었다.

밤벌레도 춤을 추며 지켜보았고, 밤 부엉이도 살구나무 위에서 몰래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 등 뒤에서 철없는 나도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러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는 아련한 어머니 등 뒤를 그리워하며, 철없던 아들이 소리 없이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본다. 저승에서 서로 두 손 꼭 잡고 꽃길만 걸으소서.

이승에서 철없던 아들 올림

그 남자의 앞치마

김이경

말쑥하게 생긴 남자가 빨간 앞치마를 입고 있다. 그는 한 할머니 앞에 식판을 놓아주었다. 걸음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말을 하는데 아마도 맛있게 드시라는 것 같았다. 그는 또 다른 쪽을 돌아보더니 휠체어를 탄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의 밥을 나르는 그가 봉사단의 회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요일이면 노인복지관에 와서 점심을 먹는 것이 두어 달 되었다. 척추 수술 후, 며느리들이 반찬을 챙겨다 주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제 살림도 바쁘는데 마냥 시어미 뒷바라지만 하라기에는 내가 편치 않았다. 반찬 한 가지 만드는 것도 두어 번 쉬며 만들어야 할 만큼 힘들지만, 어차피 내 일이다. 그러던 중 토요일이면 복지관에서 천 원에 국수나 떡국을 준다는 말에 솔깃해졌다. 천 원이 밥값일 리는 없으니 누군가 봉사하는 것일 터였다.

한 달에 한 번 떡국 먹는 날, 벌써 세 번째다. ‘떡봉회’라는 단체가 봉사하는데 떡국 외에도 잡채 같은 별식이나 음료도 곁들인다. 맛도 좋았지만, 천 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나르고, 앉는 것을 도와주는 남자. 대부분이 여자들인 봉사단원 중에서 남자라 더 눈에 띄기도 했지만 내내 입가에 떠나지 않는 미소가 돋보였다. 그에게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앞치마가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릇이 거의 비어갈 때 마침 그가 내 곁을 지나기에 말을 걸었다. 역시 그는 봉사단의 회장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곧 나이 먹을 것이라 미리 준비한다며 아직은 젊은 사람이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이것저것 두서없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잠시 앉으시라고 해도 어르신들 앉는 자리라며 끝내 서서 이야기했다.

봉사회를 조직한 것은 13년 전인데 경비는 자신이 전부 부담하다시피 한다고 했다. 연초에 오백여만 원을 복지관에 입금해 놓고 매월 첫 토요일에 나와 음식을 만

들어 봉사한다. 천 원을 받는 것도 복지관의 다른 봉사에 쓰이고 그마저도 어려운 노인들은 무료라고 한다. 150명 정도 생각했는데 200명이 넘어 일손도 달리고 경비도 빠듯하지만, 아내를 비롯해 20여 명의 회원들이 협조하며 봉사해 주기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회원 자랑도 아끼지 않았다.

명함 한 장을 주었다. 내게 젊은 사람이지만 이미 초로에 접어든 그는 기업의 대표이고, 공학박사이고, 대학의 겸임교수이고, 여러 단체의 고문이나 임원직을 가진 사람이었다. 앞치마와 그다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직함들이 적힌 명함을 들고 그의 뒷모습을 다시 보았다.

13년 전이면 내가 퇴직할 무렵이다. 잠시 공무원 봉사단체에 발을 들였지만, 부실한 몸을 핑계로 봉사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남 보기엔 천하장사급이지만 늘 편치 못한 몸이 핑계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이 간절했다면 무슨 방도로든 할 일을 찾지 않았을까. 이제 나이 먹었다고 젊은이들의 봉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부끄러웠다.

한 달이면 200여 명, 일 년에 2,400여 명의 노인이 그들이 마련한 떡국을 먹는다. 조금 여유 있다고 해도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에게겐 천 원에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더구나 그중엔 정말 한 끼가 아쉬운 노인도 많다. 일 년에 2,400여 번 느끼는 행복은 추운 날 온도계의 눈금을 올리고, 더운 날 온도계의 눈금을 내리게 하지 않을까.

사람 중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 온도계는 추위와 더위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정확하고 정직하지만, 더위를 식힐 줄도 추위를 보듬을 줄도 모른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땀 흘릴 때 살포시 손수건을 내밀고, 추울 때 따뜻한 손을 내민다. 나는 아무래도 온도계처럼만 살아온 것 같다.

잠깐 시간을 내거나 한두 번 성금을 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꾸준히 주말을 바치며 봉사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오래도록 재물과 시간과 노동을 바치는 봉사는 그것으로 주위의 온도를 보듬는다. 추위와 더위를 보듬으며 13년.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오백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든 하룻저녁 유흥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든 가족이 한 달간 살아갈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든 일 년의 삶을 이어주고, 때로는 목숨을 거는 돈일 수도 있다.

1. 문예마당

그 남자의 오백만 원은 어떤 돈일까. 그의 명함에 적힌 많은 직함이 그 돈은 그에겐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남자의 토요일과 앞치마가 더해진다면, 거기에 봉사단원 20여 명의 토요일과 앞치마가 함께 한다면 그 가치는 얼마가 될까?

앞치마는 기업의 대표, 공학박사, 대학교수라는 직함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에게는 어울려 보였을까. 그 남자가 입은 앞치마는 오랫동안 추위와 더위를 보듬어 오며 몸에 달라붙은 피부 같은 것이고, 더위와 추위를 보듬는 온도 조절기가 아닐까. 그것은 그를 일꾼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한 계단 더 높여주고 빛나게 하는 훈장 같은 것이리라.



삶은 작품처럼, 인생은 소풍처럼

김종억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듯이,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예로부터 사람이 칠십을 살기는 드문 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에는 인생 칠십을 살고 만다면 그보다 더 서글픈 일은 없을 정도로 칠십은 노인 축에 들지도 못한다. 인간의 수명도 의료체계의 발달과 함께 길어졌다.

나는 이 년 전에 칠순 기념 시집 출판회를 했다. 솔직히 칠순 잔치를 한다는 자체가 남사스럽고 어디 소문낼 일도 아니나,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서운해서 칠순 기념 첫 시집을 내고 아주 가까운 지인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도 60여 명의 지인들이 찾아와 축하를 해주는 바람에 축하의 장은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다. 내 삶의 뒤안길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지만 가까운 몇몇 지인들은 잘 산 인생인 것 같다고 격려해 주었다.

취미활동이라고 시작한 당구는 어느덧 내 일상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옛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내친김에 2년 전에 심판 자격을 취득하였다. 심판 자격을 취득해서 무엇을 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이 나이에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누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금은 디렉터로 발탁되어 당구 시합의 전반적인 주관자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렉터(Director)는 감독이라는 뜻이다. 아날로그 세대인 나에게 디지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 잔재하고 있으나 과감하게 나는 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1. 문예마당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해도 좋았을 도전이란 없다’라는 말에 더욱 공감이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과정에서 배움이 있다. 설령 배움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 도전해 가는 그 과정, 그 여정(旅情) 자체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서울시 디비전 리그 당구 시합에 한 리그를 맡아 디렉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첫 경험, 누구나 살면서 첫 경험은 있게 마련이다. 디렉터로 첫 임무 수행을 앞두고 걱정이 되어 잠도 설쳤다. 그러나 세상은 혼자만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첫 임무를 마치고 나니 다소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다.

7년 전 인생 3모작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일하던 중 뇌경색 판정을 받고 스스로 걸어서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극복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고뇌와 고통은 오롯이 나 혼자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1년 후, 거의 20여 kg에 육박하는 배낭을 짊어지고 지리산 종주 산행길에 나섰다. 나 스스로에게 나를 묻기 위해서다. 옛 전우들과 함께 그 험한 3박 4일의 산행길은 내 인생의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희의 시간이었다. 내 스스로 극복해 냈기 때문이다. 이 또한 50여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젊은 날의 전우들이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 두 권의 수필집과 한 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물론 그 이전에 두 권의 수필집을 발간했지만, 이후 세 권의 서적은 뇌경색 발병 이후에 펴낸 책이었다. 지금도 틈만 나면 창작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한국문학협회에서 개최한 2024년도 전국 디카시백일장에 작품을 냈다.

디카시(디지털카메라 + 詩의 합성어)는 디지털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를 말한다. 디카시는 영감을 주는 영상이 먼저 있고, 그 영감을 시로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5행 이내의 문장으로 함축된 시와 관련된 사진을 말한다.

올해에 봄을 주제로 한 디카시 백일장에서는 231명의 전국의 시인들과 경합하여 은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여름을 주제로 한 디카시 백일장에서는 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목표는 또 생겼다. 대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 총 여섯 번의 디비전 리그 디렉터로 활동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별

씨 그 절반인 3라운드가 엇그제 지나갔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자신감도 올라가고, 할 수 있다는 의지도 높아졌다. 라운드 횟수가 다가올수록 더욱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본다.

또한 끊임없는 창작의 열정은 쉼 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면에서 용솟음친다. 평생 20권의 책을 상업 출판하겠다는 야심 찬 나의 버킷리스트가 완성되는 날까지 난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것이다.



집에 가야 한다

류인채

여섯 살 때이다. 한겨울에 태어나서 양력으로 따지면 다섯 살이던 나는 새벽녘 잠에서 깨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삿날이라 큰집에 함께 갔던 식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만 혼자 낯선 방에서 자고 있었다. 순간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서글펐다. 평소 애소에 부모님은 나보다 언니와 남동생을 편애한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결혼한 지 칠 년 만에 언니를 낳고 둘째인 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청상인 할머니는 내가 남동생을 보라고 돌림자인 ‘寅’ 자 밑에 ‘연다’라는 의미의 ‘採’ 자를 넣어 ‘寅採’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가난했지만 장곡사에 쌀 두 말을 시주하고 스님에게 내 이름을 받아오셨다고 한다. 그 후 신통하게도 남동생이 태어났다. 세 살 무렵부터 신문 제목을 줄줄 읽어 신동으로 소문난 언니에 비해 설은 나는 내 이름조차 쓰지 못했다. 잔병치레가 잦은 동생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사랑을 받았다. 그런 속에서 나는 말수가 적은 아이로 자랐다. 마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눌했다.

그날 나는 가족과 분리된 불안감 때문에 무작정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달밤에 어린 여자아이가 걷기에는 만만치 않은 길을 혼자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슬그머니 큰집 방문을 열고 검둥이가 짓지 않도록 깨금발로 걸어 앞마당에 나와 보니 달빛이 흰했다. 나는 단숨에 무랑골을 지나, 도치정골을 지나 느락골에 다다를 것만 같았다. 그러나 굽이굽이 논길을 몇 개 지나고 언덕을 지나고 산모퉁이를 돌아 오르막길로 한참 올라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큰집 텃밭을 끼고 논둑길에 들어서자마자 시퍼렇게 자란 벼 잎이 송곳처럼 종아리를 찔렀다. 여러 번 뺨을 만난 좁은 논둑길을 지나 도치정골 앞 언덕에 다다르자 갑자기 다리의 힘이 풀렸다. 밭둑에 일렬횡대로 선 미루나무들이 검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흉물스러웠다. 순간 나는 발을 헛디뎠다. 내 키의 서너 배는 될 듯한 높은 언덕 아래 도랑으로 데굴데굴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온몸이 아팠다.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 큰길로 나왔다. 낮에 소꿉놀이하며 놀던 산이 시커멓게 우거져 있고 그 속에서 사나운 짐승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만 같았다. 어디서 호랑지빠귀(귀신새) 울음소리도 들렸다. 보름을 지나 조금 이지러진 달이 구름 속에 숨어들었다. 나도 어딘가에 몸을 감추고 싶었다.

어슴푸레 느락골 산모퉁이가 보였다. 아이들은 밤마다 거기서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흐느낀다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갑자기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솜털이 오소소 일고 머리끝이 치솟는 느낌이었다. 자꾸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는 내가 멈춰 서면 사라지고 걸으면 다시 들려오곤 했다.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각, 오히려 내 울음이 잠자던 귀신을 깨울 것 같아 최대한 발소리를 줄여가며 살금살금 걸었다.

산모퉁이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올라왔던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가슴이 쿵쿵쿵 뛰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나는 어떤 힘에 떠밀리듯 재빨리 마루로 뛰어올라 안방 문고리를 잡아채며 바닥에 엎어졌다.

곤히 자던 식구들이 깜짝 놀라 후다닥 일어났다. 동생이 자지러지게 울고, 어머니는 지푸라기 투성으로 젖은 내 옷을 갈아입히며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야!”를 연거푸 되뇌시고, 아버지는 서둘러 무랑골로 가셨다. 전화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큰집에서는 안방에서 곤히 자던 어린애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뒷간을 뒤지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발각 뒤집혔더라.

제사는 끝났다. 내가 잠든 사이 식구들이 사라졌다. 무랑골 큰집 낫선 방에 나만 두고 갔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 칠 년 만에 낳았다는 언니, 남동생만 데리고 갔다. 여섯 살 나는 버리고 갔다. 집에 가야 한다. 보름을 넘긴 이지러진 달빛을 이고 굽이굽이 논둑길을 지나 산과 맞닿은 신작로 끝 밤마다 누가 흐느낀다는 산모퉁이를 지나 집에 가야 한다. 시퍼런 벼 잎에 종아리를 찔려도 뱀이 나와 좁을 길을 막아도 이슬에 흠뻑 젖은 언덕에서 구르다 나무 꼬챙이에 얼굴을 긁혀도 도랑에 빠져도 집에 가야 한다. 당숙네로 가는 볼모루 쪽 벌판을 보며 낮에 누워 놀던 무덤가 상석을 지나 허름한 상엿집을 지나 집에 가야 한다. 소름

1. 문예마당

이 오소소 일고 으슬으슬 추울 때까지 질금질금 오줌을 지리며 팔뚝질을 할 때까지 집에 가야 한다.

집은 멀고 귀신새 울음이 발목을 잡는 밤, 나는 홀로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지금도 여섯 살 아이 혼자 밤길을 걸을 때가 있다. 동트기 전 서둘러 집에 가야 한다.

- 졸시 「집에 가야 한다」 전문

그날부터 나는 담대해졌다. 달밤에 오줌을 싸며 혼자 집에 간 '간 큰 애'라고 놀림 받을 때마다 이슬에 흠뻑 젖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원체험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로 태어난 설움, 딸로 태어난 설움을 극복하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자립심이 강하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 고난을 인내하며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며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인생관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그해 가을 어느 청명한 날, 나는 유 씨 문중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어두운 밤 혼자 걷던 그 길에서 놀다가 교회 유치부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갔다. 오직 집에 가야 한다고 다짐하던 여섯 살 아이는 훗날 가정의 선교사가 되었고, 어른 아이는 이제 '천국 집에 가야 한다'고 되뇌며 하늘만 우러른다.

할아버지 귀여워

서완수

우리 부부는 막내아들 가족과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늦장가를 가더니 1년 후 이란성 쌍둥이 남매를 낳아서 기쁨과 긴장을 한꺼번에 주었지요. 사돈 내외 분이 오셔서 2년간 애들과 함께 사시면서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니 두 돌이 지나도 기저귀를 떼지 않고 이웃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차로 데려다주는 것이 저희 내외의 몫이 되었고, 오후에는 제 엄마가 퇴근하면서 애들과 함께 왔습니다. 따듯한 봄날엔 두 녀석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다가 곱게 핀 영산홍 꽃 앞에서 사진도 찍고 민들레 꽃대를 뜯어 씨앗을 날리며 어린이집까지 가기도 했지요.

처음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어느 한 녀석이 감기에 들면 다음 날은 반드시 옮겨서 병원에 늘 함께 가야 했습니다. 돌 전후에는 함께 잘 놀다가도 갑자기 울음소리에 달려가 보면 한 녀석이 물어서 팔뚝에 자국이 났지요. 물면 안 된다고 나무라면 짱 고동 소리가 났고요.

다섯 살이 되니 유치원은 좀 떨어진 시내로 다니게 되어 유치원 버스가 아침마다 왔습니다. 차가 8시 20분에 오니 아침에 일어나 옷 입히고 밥 먹이기가 바쁩니다. 아침은 먹는 등 마는 등 그렇게 차에 태워 보내면 첫 아침 일과가 끝납니다.

애들이 부르는 사부인의 별명은 ‘앙 할머니’고 우리 집사람은 ‘이거 할머니’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며 귀엽다고 배에다 얼굴을 대고 ‘앙앙 앙아앙’ 소리를 낸 것이 별명이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기척을 듣고 손녀 딸이 쪼르르 나와서 하는 소리가, “할아버지 귀여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응, 어저께 나한테 ‘초콜릿’ 주었잖아!”

또 어느 날 아침에 가니 손자 녀석이 뛰어오면서 대뜸,

“할아버지 싫어!” 소리를 쳤습니다.

“그게 뭘 소리야,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팡’ 터지듯 하는 대답은 “할머니가 아니잖아!” 명쾌하고 단순했습니다. 늘 할머니가 가다가 사정에 따라 대신 가면 이런 소리도 들었지요.

쌍둥이를 돌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든 우선 순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디 그런가요? 내 앞으로 먼저 뛰어오는 녀석을 들어 안아주게 되고, 먹을 것도 한 개면 나누게 되는데 똑같지 않을 때도 있고, 나무 열매를 따줄 때도 같은 열매 수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식탁 위에 발을 올려놓거나 하면 야단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는 여자아이가 좀 까다로울 때도 있어요. 어미가 출근하기 전, 애들이 입고 갈 옷을 방바닥에 꺼내서 퍼놓고 갑니다. 사내 녀석은 별문제가 없는데 여자아이는 ‘양말은 이게 아니다’, ‘옷 색깔이 틀리다’, ‘어제 입은 옷 내놔’라는 등 심술을 부릴 때도 있었지요. 겨울철에 한 녀석이 아파서 엄마가 업어주면 다른 녀석도 안아달라고 하니 뒤로는 업고, 앞으로는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쌍둥이 엄마가 힘들다는 현장을 보기도 했지요.

여름방학에는 외가에 가서 자연학습을 하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요. 옛날 같으면 기차로 5시간 걸려서 갔던 곳을 이제는 KTX나 SRT 고속철을 타면 2시간만에 갈 수 있으니 세상 참 좋아졌어요. ‘앙 할머니’ 댁에는 과일나무도 많고 밭농사를 하시니 모두가 자연 학습장입니다. 물놀이와 모래찰질도 하고 밭에 나가 오이나 토마토를 따며 놀다가 옵니다. 애들이 시골에 머물다 오면 얼굴도 그을리고 아주 활발해져서 돌아오곤 합니다.

두 녀석이 이제 20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가 가까워 쌍쌍이(스쿠터)를 타고 가서 학교 정문 안에 보관했다가 올 때 타고 옵니다. 학교 오가는 일이 참 즐거워 보입니다. 이제는 도우미 이모가 애들의 등하교를 도우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해방되었지요.

꽃은 소리로 울지 않는다

이명지

우리 집 마당 풀꽃 화단에는 언제나 비발디의 사계가 연주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언제나 봄이다. 신문 배달부가 차로 돌며 대문 안으로 던져둔 조간을 가지러 어슬렁어슬렁 나가보면 어제 한창이던 꽃들은 밤새 지고 새 꽃봉오리들이 피거나 맺혀있다. 공들여 고대하던 녀석들이 피었을 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아이구 기특해라! 아이구 이빠라! 애썼다 참 애썼다! 마치 어린 자식이 좋은 성적표를 들고 온 것처럼 찬사하고 또 찬사한다.

자연의 양분을 쪽쪽 빨아들이며 세력을 키우는 화단에 물을 부릴 땐 콘닥터처럼 팔을 휘저으며 지휘도 해본다. 노래하고 연주하는 풀꽃들의 지휘자가 되어본다. 풀꽃들은 악기 대신 향기로, 빛깔로 어우러져 마주 보며 핀다. 때론 서로 다투고 엉겨 형클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조율하는 만큼 화음하고 화답한다. 이들이 어깨를 겹고 화목을 이룰 때 나는 훌륭한 조율사가 된 듯 뿌듯하다.

한 손에 신문을 든 채 보이는 족족 잡초를 솟아내며 풀꽃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만치 올라와 있다. 작은 마당에서 신문을 집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걸음일 때도, 한나절일 때도 있다. 날씨가 맞춘 날은 단풍나무 아래 있는 평상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햇살이 얼굴을 간질이고 산들바람이 말을 거는 마당의 시간, 신문을 펼쳐놓았지만 기실 나는 풀꽃들의 연주에 더 눈과 귀를 주고 있다. 아, 햇살이 쨍한 오늘은 모차르트 현악 4중주가 흐르는구나! 꽃이 피면 반갑지만, 꽃이 졌다고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피면 지고, 지면 또 필 날을 기다리면 그뿐, 지는 꽃은 소리로 울지 않는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벼동대며 오열하는 내게 되려 “울지마라 몸 상한다.”고 나무랐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긴 병도 아니고 두어 달 병석에 계시다 가신 아버지는 병원비로 가산을 탕진 하지도, 병간호로 힘들게 하지도 않았다. 평생 병원 출입도 잘 안 하신 건장한 분이 뚜렷한 병명도 없이 두어 달 앓다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황망해 남

겨진 어머니를 더 걱정했다. 두 분은 정이 좋으셨고, 평생 가녀리고 병약했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다. 뜻밖에 어머니의 의연한 모습이 다행이라 여기며 육 남매는 각자의 자리로 안심하고 돌아갔다. 어머니의 슬픔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꼬박 3년여를 두문불출하며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을 혼자 감당하며 오직 묵주 하나에 의지해 울음을 기도로 삼키고 있었다.

슬픈데 울지 않는 것은 우는 것보다 더 비통해 보인다.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한다. 뱉어낸 말은 공허하게 흩어지나 침묵은 애간장을 녹인다. 꽃들은 피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지는 것으로 말을 건다. 꽃은 피었을 때에야 찬사받고 가치를 인정받기에 온 존재로 말을 거는 것이다. 필 때는 모두 아름답게, 질 때는 제각각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벚꽃은 꽃잎을 날리며 최후마저 하늘하늘 미련을 남기고, 동백은 최고의 정점에서 툭 하고 향거하듯 진다. 목련은 한껏 우아하다가도 질척거리는 연인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간다. 그러나 풀꽃들은 소리 없이 피었다 지고 또 피어난다. 아침 화단의 분꽃은 밤새 누구와 놀아났는지 분내를 풍풍 풍기며 생글거리다가도 해가 뜨면 스르르 고개를 숙이고 까무룩 잠이 든다. 소리 내지 않는다고 몸부림이 없는 건 아니다. 까만 씨앗을 품고 처연하게 사위어 가는 분꽃을 보고 있으면 그 작은 개체에서 순환하는 우주의 역동이 느껴지기도 한다.

꽃은 지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시한부의 비장미랄까. 그래서 더 절박한 생명력이 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의 간절함은 영원한 것의 아름다움을 이긴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이나 사랑이 아름다운 것도 이와 같다. 변하기 때문에 가치를 만들고 예민하게 베풀 감성으로 최고의 것을 찾으려 혼신을 다하는 것이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던 드라마 대사가 있다. 변하니까 사랑이다. 그래서 애뜻하고 소중한 것이다.

마당에 화단을 가꾸다 보니 마음에도 화단이 생긴다. 계절이 자유롭고 벌 나비가 무시로 나들며, 풀씨들이 날아와 꽃을 피울 수 있는 화단.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도 부끄럼 없이 꺼내놓고, 서로 토닥이는 다정함이 깃드는 화단, 모차르트 4중주가 흐르는 내 안의 화단은 언제나 봄이다.

3년 전 세상에 번아웃된 채 저갯거리를 떠나 전원으로 든 후 나는 외로움과 화해하고 있다. 두런두런 자연의 소리에서 음악을 듣고 식물이 내쉬는 숨에서 온기를

광합성 한다. 타자에게서 오는 외로움이 내적 고독으로 숙성되면 평범한 일상에서도 언어의 결정체로 길어 올리는 샘터를 만든다. 바이올린을 몰라도, 비올라를 몰라도 자연이 내는 소리가 음악으로 들리고, 흐르는 시간에 나를 내맡길 수 있게 된다. 파란 하늘 아래 바지랑대 받친 빨랫줄 위의 하얀 이불 훌청처럼 보송하게 나를 펴놓이게 된다. 하루가 그저 피고 질 뿐, 안달하지 않게 된다. 이제야 마음 밭에 물을 대는 법을 터득한 게다.



연평in, 그 안에서 담은 학교, LIFE

이승갑(연평초등학교 교사)

연평으로 향하는 쾌속선인 코리아킹의 뱃고동 소리는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과 소연평도, 대연평도를 거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2시간 남짓의 바닷길을 가르며 오고가는 여객선에는 꽃게 상자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담아 몸을 싣는다. 그 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육지에 다녀온 학생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선생님들도 있다. 어느새 섬 생활 4년차가 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연평 여기저기가 더 정겨워진다. 4년간의 시간 동안 연평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요양원, 담수화시설,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주말에 학교 앞 카페(루프탑)에서 학교부를 바라보면 흰구름, 먹구름이 바람을 타고 노닐고, 학교 운동장으로 찾아오는 갈매기 떼에 시선을 멈춘다. 주민들이 한 땀 한 땀 쌓아올린 돌담 위를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자적 거니는 모습, 학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여행객들, 모교를 찾아 온 노신사의 추억거리가 담긴 섬. 이곳이 바로 평화의 섬 연평도다.

매년 인사철이 되면 기존 선생님들은 새내기 선생님들이 연평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평투어를 한다. 망향전망대-해안산책길-서정우하사 묘표-평화전망대-백로서식지-구리동해변-가래칠기-평화공원-벚꽃길(연평 윤중로)-조기박물관-등대공원-일출명소(소연평도 뷰)를 따라 이동한다. 나의 연평 선배들이 연평이 처음인 나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듯 나도 그 길을 따라 이곳저곳을 설명해 준다. 그 때마다 첫날의 연평투어가 더 새롭게 다가온다. 북녘 바다에 떠 있는 중국어선들,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섬들을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낯선 그들의 시선이 흥미롭다.

학교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일상과 삶이 늘 연결되어 있다. 학교로 찾아오는 섬마을프로젝트, 연평꽃게축제, 연평의 소리를 찾아 온 국악공연, 주민들과 함께하는 면민체육대회 등으로 하나 된 연평을 만날 수 있다. 행사 때마다 만나는 마을 사람들은 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10월에는 마을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기관(연평발전소, 마을상수도, 연평소각장)을 체험한다. 또 마을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기형도공원, 망향전망대, 농작물수확(포도, 고구마체험)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활동을 통하여 마을 구석구석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11월에는 텃밭에서 김치담그기 재료를 수확한다. 여름방학을 보내고 나니, 텃밭에 풀들이 가득 차 마치 아마존 같다.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는 아이들, 조그만 수레에 뽑은 풀을 담아서 함께 버리는 아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가득하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새 아마존 같았던 텃밭이 다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에 환하게 웃음 짓던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귀엽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모종을 키워가면서 재배식물의 성장과정을 눈으로 마음으로 담는다.

아이들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장화를 신고, 물조리개에 물을 담아 텃밭으로 향한다. 혹여나 다칠까 조심조심 물을 주는 모습이 대견스럽다. 추석 연휴 동안 내린 비로 쓰러진 식물을 다시 세워주고, 흙을 북돋아주는 아이들. 연평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주는 23명의 어벤저스가 있다.

글을 쓰는 지금(9월 23일), 바로 내일이면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문화예술진로체험(생존수영)을 떠난다. 오랜만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대연평도를 떠나 육지에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기는 날이다. 육지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여기에서는 특별한 것이 되어 버렸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숙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파자마 파티, 연평 생활에서 꼭 필수인 생존수영을 한다.

이렇듯 섬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찾아오는 프로그램을 통해 채워주고, 우리가 섬 밖으로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아이들은 더 단단하게 여물 것이다. 23명의 어벤저스와 선생님들은 오늘도 그 길을 함께 동행한다.

단풍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원환

집 마당 가장자리에 크고 무성한 청단풍나무와 어울려서 오랫동안 잘 살고 있었다. 넓고 둥그스름한 자태는 하얀 우리 집에 잘 어울리고, 3층 높이까지 이르렀다. 수령은 칠십이 넘어서 몸통은 전봇대처럼 단단하고 굵었다. 마당 한편에서 소리 없이 잘 살아가니 걱정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병이 들어 가지마다 검은 버섯이 솟아나고 껍질이 벗겨지더니 잎마저 시들어갔다. 병들어 죽어 간 큰 가지들이 하나둘씩 잘려나가고, 몸통과 가까운 몇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이윽고 몸통에도 검은 버섯이 창궐하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죽음이 엄습하고 있었다.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처럼 남은 가지와 시들어 가는 잎 속으로 회색 선녀벌레들이 몰려들어, 마지막 남은 진액마저 뽑아 먹으며 최후의 만찬을 벌이는 듯 했다.

뒤늦게 심각한 병세를 알아차리고 조경 기술자와 나무 의사에게 방제 치료를 의뢰했으나, 이미 병이 너무 깊어 살릴 수 없으니 베어 내고 새로 심는 것이 상책이라는 공통된 의견이었다. 인터넷을 뒤지고 다양한 방책을 찾아 나섰지만, 희생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 안타까움만 더했다. 뒤이어 임업 전문가를 초빙해 보였더니, 죽어 가는 부위에 바셀린을 발라서 병세가 번지지 않도록 해보라는 조언을 받아 그대로 시술했지만 희생의 기미가 없었다. 말 없는 단풍나무의 강건함만 믿고, 병충해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한 나의 소홀함을 자책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친 것이다.

25년 전 철거를 앞둔 친척 집 마당에서 마흔 중반의 젊고 싱싱한 단풍나무를 옮겨와 정성 들여 심었었다. 여름에는 청록의 풍성한 자태와 그늘이 고맙고, 가을이면 온 마당 가득한 새빨간 단풍이 감탄스러웠다. 겨울엔 촘촘한 가지마다 하얗게 쌓인 눈꽃이 추억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다. 게다가 마당 한편을 가득 덮고 있는 커다란 지붕 그늘은 온 가족 친지들이 나무 아래 모여서 웃음꽃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쉼터였다. 이제 썩어 가는 등걸 몇 가지만 남아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으니, 웅장했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어 애달프게 그리웠다.

수많은 병고를 겪으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만난 동년배의 단풍나무를 도반(道伴)처럼 대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왈각 연민의 정이 생기고, 캄캄한 밤이 되면 끽 나무 앓는 소리가 들렸다. 아끼던 나무 벗이 아프니 나도 덩달아 아팠다. 내 유년 시절에 지독한 피부병으로 겪었던 수년간의 과정을 떠올리며, 단풍나무를 내 몸과 팔 다리로 여기고 치료 방법을 강구했다. 전문가들의 권유대로 베어 내고 후회를 남기기 싫어서, 나만의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보기로 작정했다. 먼저 건강한 생태 환경을 되찾고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해야 했다.

외관은 크고 우람하지만 영양 부족으로 몸이 허약해 진 것이 병의 원인이라 생각했다. 우선은 뿌리내리고 있는 터가 큰 나무가 살 만한 적절한 환경인지 자세히 살폈다. 흙이 메마르고 찰기가 없었다. 뿌리가 건강하게 내리지 못하면 가지가 어찌 잘 살 수 있겠는가! 먼저 물과 영양을 잘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지표 면적을 넓혀 주고 영양 수액 대신 막걸리 한 말을 물에 희석하여, 뿌리가 쉬 마실 수 있도록 땅속 구석구석 깊이 주입해 주고 원기 회복을 기대했다. 그리고 가지마다 피어난 검은 버섯을 떼어 내고, 화상 환자의 피부를 드레싱 하듯이 병든 표면을 긁어내어 붉은 자연 황토로 피부 재생을 시도하기로 했다. 질 좋은 나주황토를 차지게 반죽하여 피부 상처 난 공간에 곱게 미장하듯 덮어 바르고, 두꺼운 붕대를 감아 고무 밴드로 고정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발라 둔 황토가 갈라져 떨어지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비가 오면 황토가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비닐을 씌워 방수도 해주었다.

내가 나무 의사도 되고 간호사의 마음도 되어 진심으로 보살폈다. 녹조제거나 양식장 물고기의 피부병 치료에 사용하는 생태 복원 재료로 붉은 황토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나만의 처방이라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정성껏 치료를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났을까! 시들어 가는 잎들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가지 중간 중간에 작은 새순들이 뾰족 뾰족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다. 경이롭고 감격스러워와아~ 소리가 절로 나왔다. 뿌리와 가지와 잎들이 힘을 합쳐 내게 생명의 청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드디어 죽음의 나락에서 건져 올려져 놀라운 회생의 길을 걷고 있었다. 뜨거운 여름 햇빛과 소나기도 함께 받아들였다.

어느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진 추위를 잘 견디도록 마대 붕대로 살아남은 맨가지들을 따습게 감싸 주었다. 힘겨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듬해 봄이 되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새잎들이 찬란하게 피어났다. 정말이지 영화의 해

1. 문예마당

피엔딩처럼 기쁨에 찬 박수를 소리 없이 보냈다. 땀땀 종이라도 치고 싶었다. 그래도 사라진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전성기의 자태를 갖추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영영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 시절 풍채보다는 못 미치지만 지금의 건강한 모습만으로도 내게는 한없이 기특하고 고맙다. 혹독한 시련으로 나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으니 더욱 알뜰하게 보살필 것이다. 지금 이대로 의연하고 굳센 모습으로 가족들의 그늘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쳐다볼 때마다 마음 그윽하고 대견하다. 나무나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을 충분히 사용하고 살다 가야만 한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나무는 사람이 잘 돌보아 주어야만 한다.

세상만사를 응대함에는 연민의정과 정성스러움을 놓지 말아야 옳은 일이다. 나도 그동안 단풍나무처럼 버티며 살아왔던 스스로를 잘 돌보아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남은 삶도 가족들에게 쉼터가 되고 주변과 사회를 위해 그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손들이 단풍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할아버지의 나무 사랑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청단풍나무야! 너와 함께 지구 별 여행을 하고 있어 행복하단다! 네 마음이 동하거든 다가오는 가을 날, 선홍색 단풍 꽃으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련!

차인 큰잔치에 다녀와서

이정희

다례원은 다도를 교육하는 곳이다. 입문 과정부터 중급반, 고급심화반, 한국다도 사범(1, 2급)반이 있다. 몇 해 전, 윤정사(寺)에서 원장을 만났다. 절에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원장과 다례원 수강생들이 신도들에게 다과(茶果)를 대접했다.

테이블에 한지를 깔고, 그 위에 차, 여러 종류의 떡, 오색 다식, 한과와 정과 등 상차림이 정갈했다. 떡과 한과를 선뜻 집어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예쁜 상차림이다. 폴폴으로 장식한 다과상을 보고 신도들은 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 후에 다례원에서 행사가 있으면 가끔 참석했다. 다도 수강생들의 수료식에도 참석했고, 원장이 초대하여 차를 마시러 가기도 했다.

다례원 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원장은 5월 셋째 주 토요일,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제34회 전국 ‘차인 큰잔치’가 있는데, 함께 갈 수 있는지 나의 의향을 물었다. 마침 그날은 다른 일정이 없어서 참석하겠다고 대답했다.

토요일, 원장과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원장의 승용차를 타고, 천안박물관에 도착했다. 원장이 승용차 뒷자리에서 다기 세트와 돛자리, 화병 등을 꺼냈다. 짐의 부피가 만만치 않았다.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 차인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천안박물관에 도착했다. 관광버스는 청주에서 출발하여, 천안박물관에서 천안지부와 아산지부의 차인들을 태우고 인천도호부관아로 출발했다. 인천도호부관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웅장했다.

행사장에 도착한 한국차문화협회 전국 지부의 회원들이 정해진 자리에 다기와 다과를 차려놓았다. 아산지부 부스는 중문 근처였다. 원장과 회원들은 재빠르게 다기를 전시했다. 테이블에 떡, 다식, 다과를 놓고 꽃으로 상차림을 마무리했다. 그들이 다구와 함께 지낸 세월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척척 맞았다.

‘나도 다도를 계속했더라면?’ 원장과 회원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다.

1. 문예마당

1983년 O여고에 근무할 때다. 충남교육청에서 다도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아산시에서 나 혼자 차출되었다. 교육청 강당에서 한복 차림으로 이론 수업과 다도 실습을 했다.

다도는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 용어도 귀에 익숙지 않았다. 절차도 복잡하고, 다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다도 교육을 받고 와서, 아산시의 가정과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시범을 보였다. 40년 전의 일이다.

오후 1시, 제34회 전국 차인 큰잔치 기념식이 있었다.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이 축사를 했다. 제34회 전국 차인 큰잔치는 사단법인 규방다례보존회와 사단법인 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외 여러 단체에서 후원하는 큰 행사였다.

이 행사가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은 다양한 차 체험을 하고 해당 부스에서 스탬프를 10개 이상 받아오면 봉지에 들어있는 녹차를 선물로 주었다. 해당 부스는 모두 15개였다. 행사에 참관한 사람들이 부스에서 다과를 맛보고, 스탬프를 받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각 지부에서 온 회원들은 모두 한복 차림이었다.

중앙 무대에서는 규방 다례 시연이 있었다. 규방 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行茶) 예절로 손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것을 말한다.

다례(茶禮)는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예절이다. 세계 각지의 나라마다 고유한 차 문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차를 마실 때 필요한 다구(茶具)와 물, 찻잎을 준비해야 한다. 다과는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차는 입이 아닌 오감(五感)으로 마신다고 한다. 귀로는 찻물 끓는 소리를, 코로 향기를, 눈으로 차의 색을, 입으로 차의 맛을, 손으로 찻잔의 감촉을 즐긴다는 뜻이다.

차의 아홉 가지 효능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홉 가지 효능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지도했고, 직원들에게 연수자료로 나누어주기도 했다. 차를 마시면서 그 효능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국에서 온 차인들과 어울려 차 시음을 했더니, 내 몸이 금세 좋아진 느낌이다. 차인들과 함께 차 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를 참관했다.

나는 오늘 하루, 4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차인 큰잔치’는 나를 차인으로 대접해 주었다.

건달농부

임선철

중복에 지인들과 근처 장어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밀반찬으로 나온 고구마 줄기 볶음을 깔끔하게 먹어 치우자, 동석한 동네 아우가 “형님 고구마줄기 맛나게 드시네.” 한다.

“응, 엄청난 사연이 있어.”

몇 해 전 5월 말, 피 끓는 동기들이 우리 집에서 전역 기념 모임을 가졌다. 소나무 그늘 아래 야탁에 파라솔을 펴고, 섬마을 특산 메뉴로 낙지, 소라를 준비해 해물탕도 끓이고, 옆 탁자에서는 삼겹살을 구우며 둘러앉았다.

다들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명퇴를 하거나 몸담은 조직에서 떠날 무렵이었다. 모두 시원하다는 소회를 털어놓는데, 경제적으로 노후가 부족한 동기는 징그럽게 현장에서 고생했어도 아쉽다면서 나이를 먹어도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무튼 만나면 나누는 현역시절 무용담은 여전했다. 어깨가 으쓱하고 천하무적이었다. 대한민국은 자기 혼자 지켰고, 한두 번의 기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어마어마한 특수전 수료인 듯 빵 스펙이 난무하다. 한잔 걸치니 더욱 가관이었다. 역사에도 없는 제3차 세계대전 강철맨 참전급이다. 소설을 쓰고, 영화를 찍는다. 지구상에서 도저히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무용담이다.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제발 그만 좀 해라. 침 튀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빵 스펙이 심해졌다. 지난번 모임 때는 강하 점프를 9회 했다더니 이번에는 15회라고 한다. 우리끼리는 으레 넘어간다. 함께 뺨친 놈들이니 누굴 탓하랴. 그래서 피 끓는 동기다. 나 역시 별 수 있다. 그 시절 젊음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기인데.

이날 모임에서 예년에 비해 고구마를 몇 배 많이 심었다고 큰소리쳤다.

“동기들아! 올 가을에 고구마 걱정하지 마! 내가 박스떼기로 줄 테니.”

봄에 총무이사님이 고구마순 구백 주 열여덟 묶음을 맛있는 꿀 고구마 종자로 강화도에서 구했다고 하여, 기대를 하고 멀칭비닐을 준비했다. 전에는 두 묶음 남짓 심어서 겨울에 간식용으로 애들하고 나눠도 충분히 먹고 남았기에 고구마 농사쯤

이야 하며 자신만만해 했다.

배포 있게 포장 박스도 왕창 신청하고, 무더운 여름 지나 수확을 기대하면서 줄기를 걷어내기 위해 지인 부부와 함께 스티로폼 엉덩이 의자를 착용하고 한 고랑씩 말아 캐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있어야 할 고구마가 보이지 않았다. 한 고랑씩 말아서 시작했건만 집사람도 그 옆 친구도 말했다.

“고구마가 어디 있어? 얼마나 더 파야 해?”

좀 더 밑으로 깊게 파니 거꾸로 쳐 박혀 도저히 호미로 캐기가 힘들었다. 난감했다. 고구마는 십 리 길에 한두 개 나타났고, 상처투성이 고구마와 사투를 벌여 겨우 두 고랑 캐고 나니 노력에 비해 수확이 너무 초라했다. 나머지 고랑 캐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았다.

마침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넘어오셨다. 고구마 캐기 전에 주문한 농산물 포장 박스에 미리 테이핑을 해 준비했으니 기가 막혀 웃으셨다. 무슨 포장 박스를 이렇게 많이 주문했냐고 하셨다. 산더미처럼 있어야 할 고구마는 없고 텅 빈 박스만 널려 있으니 어이가 없으셨던 것이다.

‘건달농부!’ 우리 어머니가 붙여준 별명이다. 날씨도 가물었지만 이미 봄에 고구마순을 심을 때부터 간격도 무시하고 대충 묻었다. 지극 정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했는데 너무 소홀했나 보다. 게다가 인심을 쓴다고 손님들이 고구마 줄기를 마음대로 따게 내버려둬서 주인한테 껌죄를 먹었는지 파헤쳐진 고랑에는 흙과 돌멩이만 보였다.

캐낸 고구마 중에 먹을 만한 것은 지인 부부에게 들려 보내고,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아까워서 아픈 허리 참아가며 고구마 캐기에 매달렸지만 호미질 할 때마다 부글부글 거렸다. 마음을 아무리 다스려도 잠시뿐이었다.

“에~ 라이 옛 먹어라!”

이보다 더한 욕도 질렀다. 힘은 힘대로 쓰고 본전도 못 찾았으나 일단 기분 풀고, 다음 고랑은 속는 셈치고 뻥히 알면서도 통발 어망 끌어올리는 기분으로 희망을 가지고 캐지만 역시나였다. 비 맞은 초가집처럼 땀에 젖어 필사적으로 밭고랑을 모두 헤집고 나니 허탈했다. 상품성이 있는 고구마 몇 박스와 나머지는 억울하게 생겨서 선심을 써봤자 욕먹을 지스리기뿐이었다.

‘한심한 건달농부. 허, 이것 참! 동기들에게는 어찌지.’ 걱정 말라 해놓고 눈대중으로 세어 보니 제대로 생긴 것은 대여섯 박스 되었다. 동기들 얼굴은 열댓 명 아른거리고 내꺼 어딴냐고 그러는 것 같았다. 심을 때는 가을에 수확해서 밭두렁에 쌓

아놓고 동기들 불러 박스페기로 주고 싶었는데... ‘오호~ 물 건너갔습니다.’

그 와중에 집사람은 올해 엄청 비싼 고구마 먹는 거란다. 누가 그랬나, 할 일 없으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는다고. 아주 쉽게 말하기에 평생 그 말이 정답인 줄 알았다. 완전히 당했다. 어디에 하소연하리. 저녁을 먹고 2층 바닷가 테라스에 나와서 이웃집 형님한테 급히 전화를 했다.

“형님 고구마 켜나요? 판매할 거 있어요?” 했더니 되물었다.

“자네가 우리보다 많이 심었잖아. 어디서 주문을 많이 받았나? 모자라? 부족하면 우리 것도 팔아줘.”

이웃 형님은 나의 너털해진 속마음도 모르시고 말씀하셨다.

“박스 당 얼마 받아드려요?” 하고 값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까짓 거 동기들을 위해 몇 십만 원 쓰지 뭐. 이미 답을 수 없이 엮어진 물.’

“모레까지 서른 개 준비해 주세요.”

사실 집사람은 내가 동기들에게 고구마를 주기로 한 약속은 꿈에도 몰랐다. 고민할거 뭐 있나. 엉망으로 사건은 커졌고, 동기들 불러봐야 없는 고구마 어찌구 꼴값이다. 포터에 싣고 도시 나들이 할 수밖에. 그렇잖아도 이장을 하면서 가을 포도 축제 때 단체주문 판매에, 가끔 고춧가루, 감자 등 농산물 배달을 해 본 경험이 있어 어렵지는 않았다.

마음 좋은 이웃 형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몇 박스 덤으로 주시며 아우 꺼라 하신다. 다음 날 내 주머니에서 계산해 드리기로 작정하고 일단 동기 주소를 찾아 출발하여 방조제에 접어 드는데, 절친 동기로부터 전화가 와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은 말야, 고구마 싣고 가는 사유가 이렇게 된 거다.”

승의동 편의점 건물을 지나서 두 번째 골목으로 오라고 했다. 아무리 차를 돌려봐도 그런 집이 보이질 않았다. 전화를 다시하고 보니 뒤편에서 동기가 걸어 나왔다. 촌놈 티 나네. 어리버리 해진겨. 빵 한번 잘못 치고 웬 고생이람. 아직도 갈 곳은 한참 남았구만.

동기놈 왈,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 고구마 번개팅 날려. 친구가 운영하는 닭발집으로 집합시켜서 한 번에 내려와. 참석한 동기들 나눠줘.” 이러는 게 아닌가.

‘그래 그게 좋겠다.’ 어차피 시간 절약하고 간만에 얼굴 보면서 생색내고 그렇게 건달농사의 댓가를 치뤘다. 지갑은 얇아져도 마음은 풍족했다. 따지고 보면 잔치비용으로 거금 주고 저녁밥 잘 먹고 내려온거지.

집사람 모르는 비밀작전이 몇 조금 가라.

“당신 고구마 신고 인천 가서 뭘 짓을 한겨?”

“땡 잔치 하고 왔어. 원수 같은 고구마 끝!”

내년부터 다시는 고구마 농사 안 짓는다. 자업자득으로 한동안 고구마줄기 김치 질리게 먹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군 시절 동기에 발휘해서 고달픔을 덜어보려고 전투 수영 대타 영자로 나서 삼각코스 출발 대기선에서 선임 모자 바꿔 쓰기 할 때처럼 어쩔 그리 잘 맞나. 일병이 제일 먼저 전투 수영 출발하고 다음으로 상병, 병장으로 순서가 정해지면 고참 병장이 슬그머니 나타나 이미 1km 수영하고 방금 나온 일병과 넘버 모자를 바꾼다. 수영 팬티에 모자만 쓰면 누가 누구지 알 수가 없다. 병장은 일병 넘버 모자 쓰고서 쉬고 있고, 그때부터 일병 동기들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선임 병장 넘버 모자 쓰고 죽기 살기로 수영해 정해진 시간 내로 삼각코스를 책임지고 완주한다. 하여튼 큰소리 쳐 놓고 약속 지키면 믿을 만한 인간으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 결론은 군대나 사회나 똑같다.

고구마 밭은 이듬해 봄에 땡! 산림조합 묘목시장 가서 단감나무, 배, 복숭아, 앵두, 자두, 매실을 구입해서 여러 종 과수나무를 심어 키우는데, 감과 매실은 먹을 만큼 수확했지만 나머지는 욕심만 부렸지 고구마 닳아간다. 부끄러운 농사다.

도대체 누가 할 일 없으면 농사 쉽게 짓는다고 한 거야. 건달농부에게 절대로 대풍이란 없다. 과수나무를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친다. 과실수 선택 잘했다고 호락하게 ‘잘했네.’ 할 줄 알았지. 천만에, 아니었다.

시골 생활 시작한지 어언 산천이 바뀌고 지금은 내 자신과 자연에 겸손해지라고 땅은 노력하지 않는 인간에게 절대 공짜로 베풀지 않는다. 건달농부에게 시련은 따르지만 희망까지 건지는 않는다. 꿈을 꾀도 이뤄지기는 어렵지 현실을 받아드리고 살아라. 땅에서 얻는 작은 수확도 만족한다. 우리 집 과일나라 벌레 기미상궁들은 건달농부 덕에 검사를 열심히 한다.

‘벌레들아 양심 좀 있어라. 생명을 중하게 여기니 검사 좀 작작해라.’ 그나마 소독을 언제했는지 미안하네. 퍼런 땡감은 주머니짜지벌레가 붙어 움푹 파였다. 며칠만 참아줘, 이번 주 시간 내서 치료하자. 세상은 공평하다. 자연과 흙이 주는 혜택, 건달농사라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밭에서

인연

황용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고 쓰는 말 중에 인연이란 단어가 있다. 삶이란 만남이고 관계이고 인연이다. 인연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는 좋고 나쁜 모든 관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서로가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행복과 불행 모두가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인연을 맺고 형제, 스승, 배우자, 사회인들과 만나게 된다. 이처럼 삶이란 만남이고 관계이며 인연인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거나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수분과 거름, 그리고 온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끊임없는 주변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는다면 인연의 소중함은 실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느 유명한 학자는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사회는 무수한 인연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세상으로, 멀리는 과거에서부터 가깝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인연으로 인한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들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연들을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가 도와주며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만남의 시작이고 인연의 본질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공덕을 쌓으며, 봉사하는 마음과 선한 심성으로 좋은 인연을 쌓는다면 우리의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여러 방향으로 달라질 것이다. 복은 우리가 짓는 인연에 따라서 오는 것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탓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지난날의 인연의 결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로 나 자신이 내 운명의 주체임을 항상 자각해야 한다.

1. 문예마당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팔고(八苦) 중에 두 가지는 만나고 헤어짐에 관한 괴로움이라고 한다. 하나는 애별리고(愛別離苦)라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슬픈 괴로움이고, 또 하나는 원증회고(怨憎會苦)인데 미워하는 사람과 또 다시 만나야만 하는 괴로움이다.

인생에서 만나고 헤어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나고 헤어짐도 인연이라면 인생에서의 행복한 만남은 분명 축복받은 인연복(因緣福)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인연으로 그렇게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혜로운 만남과 창조적인 만남은 서로 간에 정신적 향상과 지혜가 맑아지고 마음이 심화되어 인생의 삶이 보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프랑스의 자연주의 문학가 플로베르(1821-1880)는 일평생 자기 노고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으나, 그는 살아 있을 때의 제자였던 모파상(1850-1893)에 의해 그 위대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플로베르는 일요일마다 모파상이 써 가지고 오는 소설 작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고쳐 주면서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볼 것을 강조했다. 또한 플로베르는 모파상에게 작품 발표를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라고 항상 당부했다.

숙달도 채 안 된 서툰 작품들을 발표하면 처음부터 문단에서 매장되는 게 변할 것이 걱정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름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유명세를 타게 되면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질 염려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후기에 모파상이 쓴 작품들은 사실상 플로베르의 가르침을 완성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치밀한 묘사와 정확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모파상의 작품이 드디어 세상에서 주목을 끌게 되었고, 자연주의 문학이 전성기를 맞게 되자 비로소 플로베르의 위대성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플로베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고 한다.

이처럼 인연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를 악연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만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기적인 마음이 앞선다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단절되는 것이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풀꽃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짧은 그 생애를 좀 더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무수한 인연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살아가는 주인공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 시간 이후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많이 만들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사

채인숙

여자는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는 길이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마주 오던 자전거가 급하게 멈추어 선다. 정씨다. 그는 칠십 중반으로 지하 단칸방에 세를 살고 있다. 정씨는 그날도 자전거에 물건을 잔뜩 싣고 오다가 여자와 마주치는 순간 흠칫 놀라면서, 넘어지려는 자전거를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여자는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눈살이 찌푸려졌다.

정씨는 집에서 멀지 않은 H오피스텔에 경비로 일하고 있다. 재활용을 정리하다 보면 멸절한 전기밥솥이나 기타 가전제품, 구두나 옷이 아직 쓸 만하다 싶으면 일단 자전거에 싣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 전날도 검은 비닐봉지에 쓸 만한 구두를 담고, 아직 괜찮아 보이는 가전제품을 자전거에 싣고 와 벽면에 붙여 놓았다.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씨는 시간이 갈수록 잡동사니를 방 안이나 현관 밖까지 넘치게 쌓아놓고 있다. 남편은 정씨에게 한마디 해야겠다며 잔뜩 베풀고 있는 참이지만 아직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저 진상을 어떡하지?

*

추운 겨울날이다. 오후부터 비바람이 몰아쳤다. 경비를 마치고,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오던 정씨가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큰 사고는 아니었다. 발목이 시큰거리는 정도였는데, 정씨는 운전자와 신경전을 벌이다가 치료비만 조금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씨는 약국에서 산 소독약과 파스로 치료하면 낫겠지 싶어 가볍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런데 발목이 점점 부어올라 걸음 걸이가 불편했다. 정씨는 불편한 다리로 경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H오피스텔 경비를 그만두었다.

정씨는 옆방에 사는 이씨와 가끔 집 앞 통로에 쪼그리고 앉아 지붕 끝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술병을 비워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옆방 젊은이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들쭉날쭉 벌이를 하는 처지인데, 그를 동생처럼 생각하며 보살피 주며 다니는 교회에 데려가는 눈치였다.

이씨는 외상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며 포기한 인생처럼 모든 원인을 나라 탓으로 돌렸다. 때로는 술을 늦도록 마시고 택시를 타고 와서는 정씨에게 택시비를 달라기도 했다. 그것도 두세 번이지, 그런 일이 속출하자 정씨는 속이 상했는지 이씨를 기피했는데, 어느 날 이씨와 대판 싸움을 벌이고 말았다. 이씨가 쌓여 있는 잡동사니 물건 중에서 필요한 것이 눈에 띄어 하나 가지겠다고 말한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다.

“이까짓 것 주워 온 물건인데 하나 주면 어째서 그래.”

“안된다니까, 자꾸 그러네.”

여자는 어느 날 정씨를 만나 간곡히 부탁했다.

“아저씨가 주워 오는 쓰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제 입장이 좀 난처하거든요. 그리고 아저씨도 사시기에 비좁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아저씨가 집 안에 들여놓은 쓰레기 좀 내다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정씨는 쓰레기 물건들을 집 밖으로 내놓았다. 비닐에 싸인 것을 풀고 보니, 현 명품 구두, 냄비, 전기압력밥솥과 쓰다 버린 향수, 낡은 명품 가방 등등, 꽤 쓸 만한 물건도 눈에 띄었다. 이것들을 담벼락 옆으로 쪽 늘어놓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들여다보았다. 어떤 사람은 쓸 만한 것들을 골라서 가져가기도 했다. 쓸 만한 기타가 보여서 여자도 집으로 가져갔다. 남은 물건들은 고물상을 불러들여 처분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정씨는 이튿날부터 또 쓰레기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와 방안에다 쌓기 시작했다.

*

정씨는 가끔 고물상을 불러 상자나 소주병, 맥주병 등속을 팔기도 했다. 남편은 더는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정씨를 불러 경고했다.

“아저씨, 이 물건들 이삼 일 내로 안 치우려면 당장 집을 빼세요. 알겠어요?”

“치우라면 치워야지요.”

정씨는 남편의 호령에 못 이긴 척 물건들을 없애겠다고 순순히 말했지만, 대신 아픈 다리를 절름거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여자는 그런 정씨를 바라보면서 머리가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런저런 잡동사니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 쌓아놓는 기괴한 걸모습만 눈감아 주면, 정씨는 여러 면에서 마음씨가 꽤나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여자의 그런 아량에 찬물을 끼얹는, 정씨의 이중성을 목격하는 사건이 조만간 발생했다.

수도계량기 검침원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주머니, 이 집 어디선가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조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자는 전 가구에 연락해 수도계량기를 다 잠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도 수도계량기는 계속 돌아갔다. 전에 이씨네 화장실 배관이 터져 수도세를 많이 낸 적이 있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이씨에게 전화했다.

“아저씨, 또 개똥을 화장실에 버렸지요?”

“아니요.”

“그런데 왜, 또 물이 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자는 집 안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정씨네 집 보일러실 문을 열어 보았다. 두 평 남짓한 보일러실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쌓아둔 물건들이 뚱뚱 떠다니는 것이 아닌가? 여자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여보. 큰일 났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왜 그래?”

정씨네 집 보일러실을 들여다본 남편은 정씨를 불러 소리쳤다.

“물이 새는 걸 알면서도 왜 여태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아저씨도 알고 계시는 줄 알았지요.”

여자와 남편은 대야와 바지를 들고 나와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동안 참아 온 분풀이를 그녀에게 퍼부었다.

“이게 다 당신이 잘못된 탓이야. 알아? 저런 사람을 들인 당신이 잘못했다, 이 말이야. 알아?”

무조건 여자에게 탓을 했다. 사람을 골라서 들여놓지 못한 탓이라는 말을 전부터 수도 없이 들으면서 여자는 쥐 죽은 듯 살고 있었다. 정씨는 밖에 서서 물건들을 받고 있었다. 이를 본 이씨도 중간에서 보일러실에서 내놓는 물이 똑똑 흐르는 잡동사니들을 밖으로 던져댔다. 정씨가 그러는 이씨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집어 던지면 어떡해?”

그녀와 남편은 한 시간이 넘게 허리가 빠근하도록 물을 퍼내고 바닥을 닦아냈다. 이튿날, 산더미처럼 쌓인 잡동사니를 환경업체에서 실어 갔다. 그 비용을 여자가 부담했다. 정씨는 그 와중에서도 여자에게 물었다.

“사모님, 내 금반지 못 보았어요?”

“금반지요? 못 봤는데요.”

보일러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금반지가 빠져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정씨는 말했다.

*

날씨가 엄청 춥기 시작했다. 여자가 이씨에게 쓰던 이불을 준 것을 본 정씨도, 이불 안 쓰는 거 있으면 달라고 찾아왔다. 여자는 정씨가 발목도 아픈데 추위에 얼어 죽을까 싶어서 집에 있는 온열 매트를 건네주었다. 두 남자는 도시가스 세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도 틀지 않고 한겨울을 지냈다. 남편은 월세도 밀리고 어려움이 많은 지하 이씨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통장과 주민센터 담당자가 실사 방문을 나와 보조금을 받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 대신 정씨는 시골에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좀 있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녔다. 여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새해를 맞아 시골로 내려간 정씨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여자는 궁금해서 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이 받았다. 목소리가 제법 교양 있고 친절한 목소리였다.

“아저씨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닙니다. 요즘 감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그냥 집에 더 계실 겁니다.”

그러더니 3개월 치 밀린 월세를 아들이 통장으로 보내왔다. 다시 한 달이 지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여자는 휴대전화에 문자를 남겼다.

‘언제쯤 오시는지요. 웬만하면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빼 드릴 테니 좋은 방향으로 하세요.’

여자와 남편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나서 주방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씨가 보였다.

“아저씨 오셨어요?”

“네, 왔어요.”

정씨는 전과 다르게 모습이 흰했다. 집에서 가족과 편히 지내니까 좋다는 말을 남

기더니 곧바로 월세를 봉투에 챙겨서 건네주었다.

“이제 적지 않은 연세이니, 고향에서 편하게 사시지 왜 또 오셨어요.”

“예에... 그만 내려가야지요.”

*

동네는 재건축이 한창이다. 그러나 여자는 오래된 집에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다른 집으로 분가시켰다. 여자는 집을 재건축해서 꼭대기 두 층은 세를 놓더라도 3층과 4층을 아들과 딸이 들어와 함께 살면 좋겠다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아들며느리가 가까이 있으려 하지 않았고, 여자 또한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모질지 못해서 잘 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렀는데, 부동산 여자가 불쑥 치고 들어왔다.

“사모님, 집 안 파실래요? 지금이 집 파실 수 있는 적기예요.”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남편이 수입도 없는데 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몹시 불안했다. 여자는 진지하게 남편과 상의했다.

“이런 단독은 작자가 나타났을 때 파는 것이 상책입니다.”

*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집 구매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구매자를 만났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상대는 여자의 성씨와 같았고, 또 남편이 다닌 직장 출신이었다. 이런저런 인연이 겹친 분위기로 계약은 성사되었다.

여자는 계약 날까지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했다. 다행히 세입자들은 순순히 이사를 서둘러 주었다. 어두컴컴한 지하 1호에서 네 딸을 데리고 살던 가족도 전세 용자를 받아 별이 잘 드는 2층으로 이사했다. 2층에는 연세가 지긋한 부부가 사는데, 터미널에서 포목점을 했다. 미안한 마음에 이불도 여러 차례 맞추고 여름 이불과 방석도 구매했다. 밀린 월세도 받지 않았다. 이씨는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라서 남편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주민센터에서 보조받도록 힘을 써 주었다. 소액 보증금을 융자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마침 집이 나와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계약 날까지 단독에 사는 세입자를 다 내보낸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쉬울 줄 알

았는데 문제는 세입자 정씨였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 정씨 집 방문을 두드렸다. 사람의 기척이 나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여자는 다시 방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아저씨, 아저씨!”

“거, 참! 사람 귀찮게 하시네.”

정씨의 태도가 전 같지 않았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의심이 들 정도여서 여자는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여자는 모른 척하고 열린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비좁은 방 안에 티브이, 냉장고, 세탁기, 밥솥 그리고 허접쓰레기가 엉켜 천장까지 가득했다. 여자는 기가 막혀 열린 말이 안 나왔지만 되도록 웃는 얼굴로 말했다.

“아저씨.”

“네?”

“이제 연세도 그만하시니 이참에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정씨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직은 서울에 있으려고요.”

여자는 더욱 기가 막혀 다시 한 번 한숨을 푹 내쉬었다.

“아저씨.”

“말씀하세요.”

“우리 이 집 팔려고 해요. 아저씨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사 갔어요. 이제 아저씨만 남았잖아요.”

“그래서요?”

“아저씨도 방을 빼 주셔야...”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씨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나 보고 길바닥에 나왔으라 그런 말인가요?”

“네?”

“다른 사람들은 갈 데가 있으니 이사 갔고, 나는 갈 데가 없으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소리 나게 황 달아 버렸다. 여자는 달힌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빠른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여자에게 물었다.

“정씨가 뭐래?”

1. 문예마당

“갈 데가 없어서 이사 못 가겠대요. 나 참 기가 막혀... 저 아저씨 저렇게 끝까지 안 나가면 계약금 두 배 물어 줘야 한다는데?”

“그러게.”

“당신이 가서 좀 어떻게 해봐요. 나하고는 통 말이 안 통해요.”

*

이튿날 여자는 잡채와 부침개를 마련해서 술상을 차렸다. 남편이 가서 정씨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술잔이 몇 순배 오가고 나서 남편이 점잖게 말했다.

“아저씨.”

“.....”

“요구하시는 조건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저씨가 요구하는 조건 다 들어 드리겠습니다.”

“듣자 하니 집값을 적잖게 받으시는 모양이던데요.”

“.....?”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았는데 보증금도 좀 모자라고, 이사 비용도 만만찮고, 그동안 이것저것 갖다 놓은 물건을 헐값에 처분하려니 그것도 너무 아깝고...”

정씨는 당치도 않은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듣다 못 한 남편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다.

“알았어요. 보증금도 보태 드리고, 이사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고, 아저씨가 애지중지하는 그 쓰레기 버리는 값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내일이라도 당장 이사를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여자가 창밖을 내다보니 정씨가 데리고 온 2톤짜리 트럭 운전사와 이삿짐을 싸고 있었다. 더 이상은 버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정씨와 구닥다리 쓰레기 물건은 신고 가 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운전기사가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남편이 등 뒤에서 여자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내다보지 마. 눈 마주치면 또 뭘 요구할는지도 모르니까.”

차가 출발하기 직전, 의류 수거함 앞으로 다가간 정씨가 의류 보따리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트럭 짐칸으로 획~ 집어던졌다. 그리고 여자가 몰래 내다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정씨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면서 뭐라 고함을 쳤다.

“????”

옹진 섬의 상징조형물 소개

김기룡(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I. 들어가기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을 타고 옹진 섬에 도착하면 선착장 주변에는 그 섬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들이 설치된 곳이 있다. 이번에는 옹진군 관내 섬 중에서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섬에 그 상징조형물이 세워진 배경이나 전설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본문

1. 백령도의 상징조형물 - 용기포신항의 두무진, 심청상, 점박이물범

백령도 용기포 신항 대표소 주변 만남광장에는 두무진 형태의 분수대 외벽과 점박이물범, 심청상이 설치되어 있다. 그야말로 백령도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함축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백령도 북서단의 두무진은 중원생대말(약 10.5억 년 전) 조간대 환경에서 주로 모래가 퇴적되어 생긴 사암이 변성을 받아 규암으로 변했으나, 퇴적 당시의 환경을 지시해주는 연흔, 사층리, 해링본사층리 등과 같은 퇴적구조를 간직하고 있다. 서해의 해금강 늪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두무진은 강한 북서풍을 받아 생긴 해식절벽들이 거의 남북방향으로 약 4km 정도 발달되어 있어 국가명승 제8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백령도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로 알려진 점박이물범이 있다.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은 백령도 하늬해안의 물범바위, 두무진, 연봉바위 등에서 간조 때 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백령도 점박이물범은 3월말 경부터 11월말 경까지 백령도 주변에서 서식하다가 겨울이 되면 새끼를 번식하기 위해 바다가 얼어 있는 보하이만으로 이동한다. 백령도는 심청전에 나오는 배경(인당수, 연봉바위, 연화리)을 많이 간직한 섬으로, 인당수가 보이는 진촌 북쪽해안가 구릉 위에 심청각, 심청상, 전망대 등을 설치해 놓았다.

또한 구용기포항 마을 앞에는 작은 돌을 쌓아서 조성한 원추형 탑이 두 개 있는데

1. 문예마당

이는 북한 출신의 실향민이 많은 백령도 주민들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통일염원탑이다. 그러나 통일염원탑 주변은 까나리 액젓통으로 둘러싸여 있는 실정으로 아쉬움을 더 해주고 있다. 부디, 빠른 시일 안에 환경을 정비하여 공원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백령도 상징조형물



백령도 용기포 통일염원탑

2. 대청도의 상징조형물 - 선진포구 어부상

대청도 선진포 매표소 옆에는 3명의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잡이하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담은 어부상이 상징조형물로서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청도에는 고래잡이 포경선단이 있었고, 대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참홍어가 어획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절에 따라 삼치, 농어, 꽃게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 어장이 발달되어 있다.



대청도 어부상

3. 대연평도의 상징조형물 - 눈물의 연평도 노래비와 제1연평해전 전승비

대연평도 선착장 매표소 부근에는 연평도를 상징하는 '눈물의 연평도 노래비'가 서 있는데 대연평도 선착장에 최숙자 가수의 노래비가 서 있는 것은 조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태풍에 의해 희생된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가사가 연평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추정된다. 또한 당섬와 대연평도 연도교 초입에 위치한 제1연평해전 전승비는 1999년 1월 15일 연평도 해역에서 발생한 북한해군과의 교전에서 북한

해군의 경비정 1척을 침몰, 5척 파손, 사상자 50명(전사 20명, 부상 30명)의 성과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해 놓았고, 대연평도 마을 앞 해안가에는 연평도 해역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퇴역선 참수리호 등을 전시하고 있다.



눈물의 연평도 노래비



제1연평해전 전승비

4. 덕적도 상징 조형물 - 어부상

덕적도 진리 선착장 부근과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서포리항으로 가는 길가에는 어부가 커다란 민어를 손에 안고 있는 형태의 어부상이 덕적도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세워져 있다. 이는 덕적도 북리항과 덕적도 인근의 굴업도에서 민어 파시를 이룰 정도로 많은 민어가 잡혔던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적도 어부상

5. 자월도 상징조형물 - 열녀상

자월도 달바위 선착장에서 장골해수욕장으로 가는 길가에는 열녀상이 설치되어 있다. 이 열녀상에는 '자월도에 살고 있던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가 3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찾아 나섰는데 바위 밑에서 큰 지네가 남편을 물고 있었다. 남편이 죽는 처참한



열녀상

상황을 목격한 부인이 실신했다가 깨어나 남편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며 바위에 올라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벼락이 지네를 죽게 했다고 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부인의 남편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 지네를 죽게 하고 커다란 수직 절벽의 바위가 만들어졌는데 이 바위를 벼락바위라고 한다.

6. 대이작도 상징조형물 -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영화 섬마을 선생 벽화

대이작도 선착장 주변에는 대이작도를 상징하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와 섬마을 선생 영화 장면을 필름 형태로 원파벽에 그린 벽화가 있는데, 이는 대이작도 계남분교와 섬 주변 지역이 1967년 한국 최초로 섬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섬마을 선생'의 촬영지이기 때문이다.

섬마을 선생의 줄거리는 '월남전에서 돌아온 도시청년 이명식(오영일)은 부모님과 약혼녀 수연(안은숙)의 만류를 뿌리치고 낙도로 향한다. 월남전에서 전사한 부하 동하의 유언에 따라 낙후한 그의 고향 마을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다. 명식은 낙도에 들어가 교사이자 의사로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다. 하지만 외지인에게 배타적이고 봉건적 유습에 물들어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의 서양의술이나 교육법에도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게다가 그를 미워한 낙도의 청년들이 약을 모두 없애는 바람에 자신이 맹장수술한 선주의 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을사람들의 불신은 극에 달한다. 명식을 짝사랑하는 섬마을 처녀 영주(문희)만이 그를 돕고 있는데 그녀를 짝사랑하는 마을 청년 중갑(이낙훈)은 영주 때문에 더더욱 명식을 미워한다. 하지만 명식의 노력으로 병든 아이가 살아나면서 마침내 그의 진심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통하기 시작한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명식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섬마을 선생 영화 벽화

은 그를 데릴러 온 약혼녀 수연과 함께 서울로 떠난다. 섬마을 처녀는 그가 탄 배를 먼 발치에서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것이다.

7. 장봉도 상징조형물 - 인어상

장봉도 용암선착장(장봉바다역) 주변에는 머리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꼬리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어상이 설치되어 있다. 장봉도에 인어상이 설치된 것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봉도 남쪽 바다의 날가지라는 섬 근처에서 어부 최씨가 물고기를 잡는데 무슨 일인지 며칠 동안 한 마리도 잡하지 않았다.



장봉도 인어상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끌어올리니 상체는 여자와 같이 긴 머리카락을 하고, 하체는 물고기와 유사한 인어 한 마리가 걸려 나왔다고 한다. 어부는 인어의 눈이 한없이 슬퍼 보여 측은한 마음에 다시 바다에 살려주었는데, 그 이후부터 최씨 어부가 그물을 칠 때마다 항상 물고기가 한가득 잡혔다.’는 것이다. 인어상은 인어가 자신을 놓아준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뜻을 기억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

Ⅲ. 나오기

지금까지 옹진 섬 중에서 상징조형물이 설치된 섬과 그 상징조형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옹진 섬의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섬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섬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을 충분히 고려하고 섬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청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홍어가 어획되고, 대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인천의 갯대종 식물인 대청부채가 대청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따라서 대청도에 새로운 상징조형물을 세운다면 선진포구 어부상 옆에 참홍어상과 상징조형물 주변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대청부채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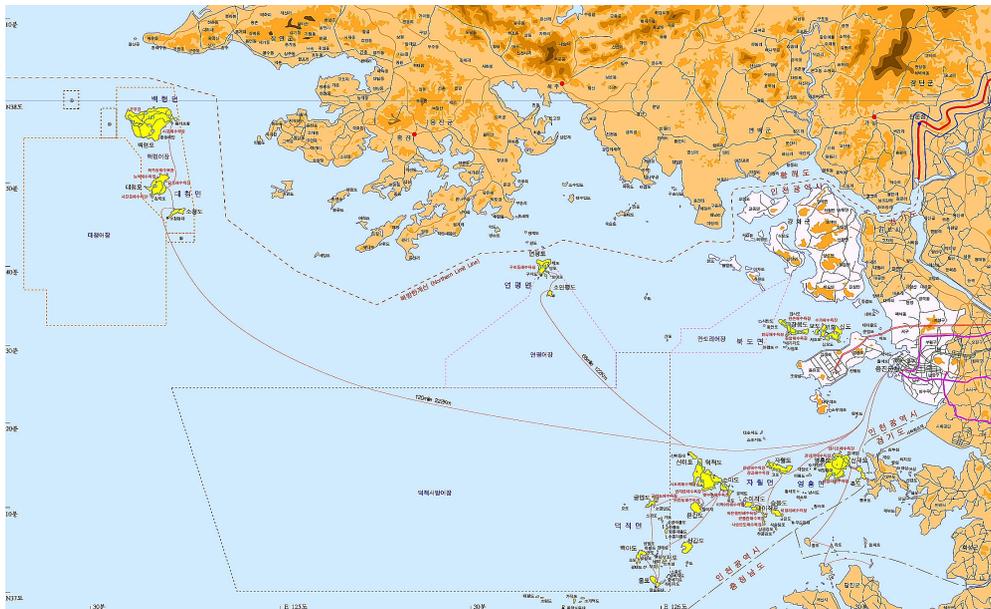
북한의 연평도 연해 도발사

김재범 (육군박물관 부관장)

38° N 아래 해주만, 연안반도, 대동만, 웅진반도에 둘러싸여 있는 5개의 섬이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관할권에 속해 있고, 구체적으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이며, 이를 통칭하여 서해5도라 한다. 이들 5개의 섬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관할지역에 매우 인접해 있으면서 대한민국 관할에 속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북한의 도발이 잦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두 번째로 큰 섬인 연평도는 북쪽의 대연평도와 남쪽의 소연평도로 이루어져 있고 부속 섬으로 당섬, 구지도가 있는데, 연평도의 지명은 ‘연이어 뻗친(延) 땅(坪)’이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연평도는 북방한계선과 인접하므로 북한과 매우 가까워, 인천에서 뱃길로 122 km 거리지만, 북한과는 불과 3.4km 거리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오래전부터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였다.

그 도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2년 12월 23일 연평도 부근으로 북한 함정이 침



웅진군 관내 지도

입, 우리 해군과 교전하였는데, 6·25전쟁 이후 최초의 연평도 부근에서의 도발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975년 2월에는 연평 앞바다에서 어선이 기관총으로 무장하여 NLL을 침범하였다. 이후 20여 년이 흐른 후인 1997년 6월 5일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연평도 앞바다에 침범하여 50분 만에 돌아간 사건도 있었으며, 2년 뒤인 1999년 6월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

1999년 6월 7일부터 북한 경비정과 어선들은 연평도 서남방의 북방한계선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고, 이에 우리 해군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 함정을 퇴거시키는 전술을 펼쳤다. 그러나 6월 15일 9시 28분 북한 경비정이 AK소총과 기관포로 선제공격을 하였으며, 이에 우리 해군 함정들은 20mm 발칸포와 40mm 기관포 등으로 대응 사격을 하여 적을 격퇴하였다. 대한민국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4척이 경미하게 손상을 입었으며, 고속정 승조원 9명이 경미하게 다쳤다. 반대로 북한은 어뢰정 1척, 중형 경비정 1척, 구잠함 1척, 소형경비정 2척, 대형경비정 1척이 침몰 또는 대파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으며, 북한 군인 역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1연평해전 이후 3년간 도발하지 않았던 북한은 2002년 한·일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던 2002년 6월 29일 다시 도발을 일으킨다. 연평도 서남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불법으로 침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2연평해전이었다.



서해수호기념관 내 전시 중인 참수리-357정

6월 29일 오전 9시 54분경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서쪽 NLL을 침범하였고, 10시 1분경 또 다른 북한 경비정 1척이 NLL을 넘어 남하해 왔다. 이에 우리 고속정 2척이 퇴거를 요구하며 북한 경비정에 접근했다. 10시 25분경 우리 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의 거리가 450m까지 근접된 순간, 북한 경비정은 우리 고속정인 참수리 357호정을 향해 85mm 주포와 35mm포 등으로 기습공격을 했다. 우리 함정도 즉각 대응하여 북한 경비정을 격퇴했다. 하지만 제1연평해전 때와는 다르게 정장 운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참수리-357정이 예인 도중 침몰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북한은 우리 함정의 집중포화로 등산곶 경비정(215t)이 대파되어 기능이 상실되었고, 약 30여 명의 인원이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제2연평해전은 제1연평해전에 비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제1연평해전은 남북한 함정이 NLL을 두고 9일째 대치를 계속하며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북한의 기습으로 14분간 교전한 반면,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기습사격에 우리 고속정 1척의 조타실이 집중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전도 제1연평해전보다 2배 가까이 긴 25분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의 연평해전을 거친 뒤 서해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으나 2009년 대청도 인근에서의 대청해전(2009년 11월 10일)과 2010년 백령도 인근에서의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다시 암운이 드리워졌다. 결국,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북한은 선전포고도 없이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민간 거주 구역에 대한 공격을 가하였다. 이것이 연평도 포격전이다. 북한은 해안포와 방사포로 무차별적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우리 해병대 연평부대는 K-9 자주곡사포 3문으로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다. 상호 간의 포격전은 오후 3시 41분경 종료되었다.

북한의 포격 때문에 우리 해병대는 2명의 전사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민간인은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연평도 내 수십 채의 가옥과 산림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북한 역시 우리 해병대의 대응 사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우리 군이 집중적으로 사격한 무도 지역에 두 자릿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연평도와 그 근해는 서해5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북한 도발의 위협 속에 놓여 있고, 특히 NLL에서의 남북한 상호 대립으로 인해 늘 화약고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유로 연평도와 그 근해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서도 위치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연평도의 역사와 문화, 북한의 도발사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및 자료

김재한, 「서해5도의 지정학적 고찰」, 『淸大學術論集』 13,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9.

이준한, 「서해평화와 연평」, 『인천학연구』 3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9.

국방부, 『국방백서』, 국방부, 1999.

웅진군지편찬위원회, 『웅진군지』, 웅진군지편찬위원회, 2012.

웅진군청

서해수호관

최고의 효(孝) 실천은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이문주(효학박사)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부부는 아름다운 효(孝) 실천자들입니다. 아이 낳은 여인은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살린 위대하고 훌륭한 효부입니다. 이 세상에 여인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날 출산률 저하는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미래가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산 반전 대책을 세우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막대한 재정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확대, 자녀세액공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완화, 아이 낳은 가정에 얼마의 현금성 지원 등등의 대책들을 보면서 내가 자랄 때 “둘만 낳아도 삼천 리는 초만원”이라며 산아제한을 독려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굳이 비판하지 않으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뒤섞여 있는바 낮은 결혼율, 20대를 훨씬 지난 3~40대의 만혼 분위기 확대,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갖지 말자는 젊은 부부들의 생각과 낳기를 희망할 경우 하나만 낳자,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육아의 경제적 부담, 부모들이 늙었을 때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등등 복합적으로 거둑거둑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수고와 경제적 부담이면 아이를 충분히 낳아서 기를 수 있으며 보람도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자! 한 명의 자녀는 너무 적고 키워도 혼자여서 외롭습니다. 둘만이라도 낳자!

나도 자녀를 둘 낳아 키워서 지금은 성인이 되어 결혼했고, 그들이 아이 둘을 낳

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손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부모들이면 모두 나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최고의 효 실천자이니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인구절벽으로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염려만 하지 말고 아이 낳는 일에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도록 독려해 보시자구요!

나라와 부모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세상은 정말 살 만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임을 기성세대의 경험상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젊은이들여! 부모세대 경험자들의 말을 한번 믿어보고 아이를 낳자! 하나는 외로우니 둘만이라도 꼭 낳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고 강하다고 아낌없는 칭찬을 보냅니다!

영흥면 소방서를 유치하기까지

임평택

영흥면의 의용소방대 역사는 참 오래되었다. 붉은노리에 면사무소 창고가 있었는데 초대 의용소방 대장은 문두역씨였다. 의용소방대 교육을 실시하는데 큰 구루마에 양쪽으로 사람 4명이 타고 가운데는 큰 펌프 2개가 있고 우물이나 웅덩이에 호스를 담그고 물을 뿌면 나머지는 호스를 끌고 불이 난 곳으로 가서 불을 끄는 것을 보았다. 의용소방대 같은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활동범위도 좋고, 방범활동, 방화교육, 여름 수영장 안전교육, 비상약품을 가지고 치료도 해 주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소방차가 1대뿐이어서 산불이 나던가, 가정집에 불이 나면 밤이나 낮이나 의용소방대원은 모두 나와서 방화 활동을 한다.

1988년부터 의용소방대원으로 있으면서 2000년도에 의용소방대장에 임명하였는데 하도 불이 많이 나서 하루는 3번이나 출동을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었다. 하루는 소방차 기사가 출동하는 데로 따라가니 소장골 이○○네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다가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하는구나하며 칭찬을 해주었다.

하루는 장경리에 김○○ 모친 초상이 나서 조문 온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당시 시의원도 상주와 친목회원이라 함께 있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다. 소방서에서 진두 농협 옆 카페가게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었다. 이충만이 총무부장인데 정말이야? 하면서 “진두농협 옆에 불이 났다니 의소대원은 모두 출동하기 바란다.” 소리 지르고 진두로 나가보니 방범대원들이 길을 차단하고 의소대원만 동행을 하게 하고 소방차 기사가 이석진인데 불은 타고 있는데 소방차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정진우 서장의 축사

한참 후에 물 받으러 갔다 온다는 것이었다. 10분 정도 진화작업을 하고는 또 물 받으러 가니 불은 계속 타고 있었다. 더욱이 샌드위치 판넬이니까 잡히질 않아서 옆집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위에만 신경 썼다. 그 광경을 시의원께서 모두 목격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의원에게 “소방 물차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작은 소방차 하나 가지고는 소방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권유를 하니, “큰일났구나. 소방차가 있어야겠다.”하며 돌아갔다.

인천 중부소방서 방호과장이 영흥 의용소방대를 찾아와 대형소방차 80t 물량의 급수를 가지고 다니므로 웬만한 시골 화재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소방차인데 어려운 과제를 주었는데 대형소방차이므로 3명이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므로 직원 숙소가 있어야하고, 식당도 있어야하고, 차고지가 없어 비가 안 맞게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의원님이 무조건 대형소방차를 내려 보내라고 명령을 하여 왔는데 문제가 1~2가지가 아니었다. 차고가 없어서 비닐하우스라도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못자리 하우스를 헐어서 비를 안 맞게 비닐 씌웠더니 햇볕이 뜨거워 색이 바란다고 하여 차광망을 사다가 씌웠다.

의용소방대원 중에 백용국이라는 대원이 있는데 바다를 좋아해서 한전처장에 김복동이라는 처장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의용소방대에 보조를 줄 수 없냐고 하니 좋은 기회이니 많이 신청하라고 했다며 이번에 구조를 확 바꾸자고 하여 환자 구급차, 교통사고 났을 때 쓰는 특수공구, 산소호흡기, 바다에서 구조 활동에 쓰는 잠수기구 30인분, 이렇게 계산하니 1억 2천만 원을 뽑아서 한전에 올렸더니 전액을 약속했다.



차고를 준공하는 경과보고를 하고, 교육도 함

한전의 지원 자금은 책정이 되면 응진군청에서 집행을 하는데 소방서 특수 기구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생소하므로 응진군청에서는 중부소방서로 이관을 하는 공문을 보낸 모양이었다. 인천 중부소방서장이 불러서 갔더니 야단을 치면서 응진군에서는 절차도 모르냐면서 군청에서 인천소방서

로 거꾸로 올리는 예는 없다고 나무라면서 다시 용진군으로 반환했으니 용진군에서는 다시 한전으로 반환을 하여 한전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한전의 지역개발과장이 하루는 시의원과 나를 아침에 대부버섯농장 카페에서 8시에 만나서 하는 말이 의소대 지원금은 보관하고 있을 테니 빨리 소방차고를 짓는 것이 좋겠다며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방서가 들어오면 모두가 가지고 오는 장비이므로 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소방차고 짓는 데 힘을 썼다. 차고는 70평 증축 설계를 의뢰하고 측량을 하는데 측량사가 하는 말이 이번 공사는 대통령 뺀이라도 못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알고 보니 영흥면사무소가 김○○ 면장 때에 산림 훼손을 많이 하여 벌금을 내고 5년 이내에는 준공을 못하도록 하여 지금은 10년이 다 되었는 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 변지에 사무실, 창고, 소방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서 의용소방서 사무실은 30평인데 증축신고는 본 건물에 30%인데 70평을 짓는 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림 훼손 허가는 엄두도 못 내고 면사무소 준공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조건호 군수를 찾아 가기로 했다. 배영민 시의원과 같이 군수님 면담을 했다. 영흥면 청사가 준공이 안 돼서 소방차고를 지어야 하는데 못한다는 말을 드렸다. 잠시 후 5개 과장을 모두 불러 건축과장에게 “영흥면사무소가 준공이 안됐어?” 그러자 “예.”라 답하니 “그런데 아직 나에게서는 아무 말도 안했어?” 하며 소방차고 지을 돈은 받았다는데 못 지으면 책임지라고 하면서 “소회의실에 가서 의논해봐!” 하시는 것이었다.

소회의실에 모이자 해결은 간단했다. “모두 무허가 건물이니 소방차고도 무면허로 지으세요.” 그래서 “누가 지어야 돼요?” 하니 “영흥대장님이 모든 걸 감수하고 지어보세요. 다른 데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면허이기 때문에.” 용진군청 주택계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행여 누구라도 알고 신고를 하면 영락없이 영창행이라! 김○○ 군의원 할 때라 제일 먼저 산림과장을 찾아가 소방차는 와 있고 차고는 없으니 지금 불법으로 지으라고 하니 산림 훼손을 설계 범위에서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용진군청 5개 과장이 모두 알았으니 진행은 잘되었다.

설계는 증박골 출신인 정기화. 인천에서 설계사무소를 차리고 있었다. 공사는 자월 군의원했던 방○○ 사무실을 시의원과 함께 찾아가서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작업은 소장골 김○○가 맡아서 했다. 단, 착공비도 없고 중도금도 없고 준공이 되면 일

시불로 주기로 했다. 차고 바닥에 물 저장고가 있는데 약하다고 부수고 다시 짓기로 했다. 장마 때는 부실공사가 될까봐 쉬라고 하는 것을 강행군으로 했으니 설계자 정기화가 감리를 못하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하루는 인부들이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왜 안하냐고 물으니 면사무소 총무계장이 고발을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소방서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전선을 땅으로 매설한 것을 공사가 끝나면 매설하기로 하고 상부로 가설했더니 그랬다는 것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공사를 계속하라고 지시를 했다. 하루는 웅진군청 주택계에서 호출을 하여 갔더니 지금 소방차고 공사자가 영흥 의용소방대장 임평택 명의로 되어 있는데 준공과 동시에 웅진군청에 기부 채납하는 각서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오히려 든든한 감이 들어서 사인을 해주고 나왔다. 공사는 잘 진행되어 8월 추석 앞두고 마무리를 했는데 명절을 쇠러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전에 갔더니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영흥면사무소가 준공이 안됐는데 차고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웅진군청 감사과에서는 영흥면 감사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총무부장은 감사를 받게 했다고 투덜대었다. 서식을 가져오면 일시불로 내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다시 조건호 군수를 토요일인데 호출을 했더니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준공이 안 돼서 공사비를 못 받는다는 말을 했더니 주택계장을 불러서 임시허가서가 있으니 그것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군수님 직인이 찍혀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됐다!”

웅진군청 주택계에 가서 임시허가서를 수령하여 한전에 주었더니 3일 만에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일시부로 들어왔다. 이것을 시의원과 방〇〇이 사무실에 주어야 한다고 재촉을 해서 통장을 주었더니 하자 보수비도 안남기고 모두 찾아갔다. 영흥소

방 파출소장에 대부 출신 임성은 파견소장으로 자진하여 왔다. 같은 임씨이면서 촌수도 아래고 나이도 어려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소방대원 중 김인호 대원이 낚시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인천소방파견소가 하늘가든에 방을 얻어서 야근을 해야 하는데 숙직실에서 쪽잠을 잔다고 소방서를 지어 달라 건의를 올렸다.



차고 준공을 하니 소방차가 3대나 되고 소방근무자는 16명이었다

인천소방서장은 운영비도 적는데 영흥에 2천만 원의 많은 자금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시의원에게 말씀드렸더니 계획서만 올리면 예산결산을 담당하니 해주겠다고 장담하는데 서장은 소극적이었다. 연초에 시무식을 군청에서 할 때 시의원이 “왜 소방서 신축을 안 하나?”고 하길래, “여기 소방서장이 왔으니 말씀 좀 해줘요.” 했더니 시의원이 “내가 해주겠다고 왜 안올려요?” 따끔하게 말하니 “네. 알겠습니다.”했다. 이때 인천소방서장 방호과장으로 있던 정진우라는 분이 이 소식을 듣고 내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테니 기다리라는 다짐을 받았다. 그래서 이듬해에 차고 2층에 100평에다 숙소, 사무실, 헬스장까지(회의실 겸용) 넣는데 파견 소장실은 있는데 의용소방대장실이 없어서 야단을 했더니 조그마한 책상 하나 놓아 자리를 해주었다.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의용소방대원 50명 전원을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많아 1년에 1번도 안 나오는 사람, 응급출동에 출동하지 않는 대원은 정비를 하고 물갈이를 하자고 하여 5명을 제적시키고 새로 대원을 임명했다. 소방대원의 노란 근무복을 15만원 자부담으로 옷을 사 입고, 국방색 평상복도 소방서 피복 보급하는 회사를 알아서 남산 밑의 가게를 찾아서 전 대원이 일제히 자비로 사 입었다. 영흥대교 개통하는 날 전 대원이 노란 옷을 입고 자원봉사 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다. 대장임기가 4년인데 5년이 채 안 되는 대장이 전국적으로 여러 명 있어서 대원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신임을 얻는 안이 소방서에서 세워져서 총회를 앞두고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어서 알아봤더니 김아무개가 감언이설을 퍼뜨려 의소대에는 돈을 안 쓴다는 등 연말이 되는데 회식도 안 시켜준다는 등 대장시킬 사람을 정해놓고 교회에는 헌금을 많이 하면서 짜게 군다는 등 며칠 전부터 이런 말이 떠돌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해도 말려야 될 사람인 김아무개는 6천만 원 이자를 안 내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떠돌고 다니며 대장을 탄핵하자고 다녔다. 그래도 아직까지 나를 껴서 본 대원이 많기 때문에 문제없으리라 했었는데 소방파출소로 승격하여 임성근 소장이 의용소방대까지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안한 영흥파출소에서 정년퇴직하려고 나를 탄핵하는데 김아무개와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잘 됐다고 하더니 카센터를 하는 홍〇〇이 모아놓고 야단을 했나 보다. 인천연합회에서 용진연합회로 분리할 것과 여성대 창설, 선재 지대 창설, 의용소방대 사무실 모두 계획이 있었는데 물 건너갔다.



군수를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하는 임평택 대장)

그리고 의용소방대 15인승 승합차가 내 이름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샘이 나서 대장 이름으로 이전해 달라면 해주는데 김아무개 이름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5년 동안 보험료, 세금을 모두 뽑아오니 5백만 원이었다. 나보고는 돈 안 쓴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는데 감탄하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차를 인수하고 싶어서다.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차를 달라고 하여 내가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 들어갔으니 500을 달래니 없으면서 사정을 하여 이제 의용소방대도 끝나고 잘 운영해라 하면서 300만 원에 주고 나니 서운했다.

임성근 소장도 이 일로 전근을 갔다. 지금도 구급차 소리가 나면 죽을 사람이 또 살아나는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영흥소방서의 영원 무궁 발전을 기도합니다.

영흥면 내4리 8월 15일 경축 반대항 축구대회를 창설하고서

버더니 8월 15일 반대항 축구대회는 하도 오래 되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시작한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영흥도에 청소년 축구대회가 있었다. 시작도 내4리가 하고 마무리도 내4리 청년(20세 미만)회가 하였다. 영흥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보면 “우리 리 대항 축구대회를 열자고 하자!” 그러면 당시의 내4리 이장은 김준환 씨였다. 찾아가서 청소년 리 대항 축구대회를 열게 하자고 조르면 마지못해 각 리에 공문을 보내고 축구대회를 열면 무조건 내4리가 모두 우승이다.

그 후부터는 경기를 열라고 해도 따라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나왔다. 그러던 차에 본인 임평택이 청년 회장에 취임하면서 내4리 반 대항 축구대회 운을 띄웠더니 김연호 현 이장이 쇠뿔도 단김에 빼렸다고 금

1. 문예마당

년부터 시작하자고 서둘러서 농번기가 아닌 3월 15일경 해서 내4리 농가가 100호 돼서 청년회 기금으로 농기구를 한 집에 동수에 관계없이 하나씩 선물하고 경기는 15분 게임으로 하여 8개 반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나골 반이 우승을 하여 축배를 들고 각 반에서 점심은 쌀을 걷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고, 지고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 같았다.

그리고 청년회 회비가 넉넉한 것은 1년에 초상을 청년회에서 맡아서 3일장을 모두 치르는데 상여에 부쳐주는 돈은 1년이면 3~4회 백 여만 원은 회비가 있어서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사다 노인들은 잔치같이 먹고 즐겼다. 그러던 중 박상석씨가 이장을 할 때인데 강나골에 사는 윤지웅 씨가 국민학교에 교편을 잡고 있는데 우승기를 증정할 테니 방학기간인 8월 15일에 손수 찾아와서 함께 경기를 치르자 하고 제의를 하는 것이다. 나는 3월에 경기를 치르느라 돈도 다 쓰고 1년에 어떻게 2번을 하느냐 못한다고 했더니 외부손님 대접은 이장이 알아서 할 테니 경기만 열어달라고 하여 8월 15일에 기관장님으로 정윤환 면장님, 서성배 농협장님, 이병순 지서장님을 모시고 학교 운동장에서 내4리 반대항 우승기를 전달받았다. 이날이 1978년 8월 15일이었다.

몇 년을 8월 15일에 경기를 열었는데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고 가을 10월 달에 해 봤다. 당시에 내4리 8개 반이 1반 붉은노리, 2반 강나골, 3반 버더니, 4반 탑골, 5반 태나골, 6반 중박골, 7반 당재골, 8반 숫골이었다. 숫골반은 김덕호, 김기준, 태영웅, 박상명, 박상석, 수일, 6집인데 2명은 모집해야 선수가 되는데 어렵다. 1반 붉은노리는 문두억씨, 김영국, 문진록, 김영근, 이한영 아무리 모아도 안 돼서 옆전에 살던 배동호 아들 쌍둥이가 국민학교에 다니는데 붉은노리로 편입시켜서 해마다 뛰게 했다.

강나골에는 신배권 형제가 중학교에 다니는데 방학 때 열어야 한다고 하여 도



8월 15일 내4리 가족회와 입장식을 하고 있다

로 8월 15일에 하면서 무더위 가운데도 구경하러 왔다가 어느 반에 사람이 적다면 함께 잠시만이라도 공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승부에 관계없이 사위가 왔어도 뛰어라, 할아버지, 아들, 손주 3대가 뛰기도 하면서 즐기던 중 8월 15일에 버더니 가족회가 함께 하면서 더 커지는가 했는데 방송국에서 중계방송을 한다고 하여 가족회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과 마중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조건호 군수도 8월 15일 행사를 알고 있어서 1번은 참석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결국 참석은 안 하고 마쳤다. 행사는 해야 하는데 모두 모어도 5명도 안 돼서 2개 반은 합쳐서 1팀으로 하고 8개 반이 4개 반으로 줄었지만 당재골 반과 강나골 반이 강하기 때문에 합치는 것도 제비뽑기로 하자고 해서 4개 반이 경기를 하니까 패자부활전까지 하게 되어 재미있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경기는 중단되고 3~4년을 쉬다 보니까 더위에 경기는 엄두도 못 내고 장례 문화도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서 자본도 없고 해서 모금을 하여 점심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생각 같아서는 외4리, 내4리 2개리로 나누었으니 오전에 2개리가 연습이라도 하고 점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교육문제

장종철 (감리교신학대학교 명예교수)

1. 시작하는 말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마을처럼 엮어가는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는 인류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이 지구촌적인 시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갖게 되었고, 지구촌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열린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가 지구촌화와 정보화 되어감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늘어나는 거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에 의해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226만여 명으로 총인구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체류 이민자수는 2023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250만 7천 584명으로 전년도 보다 11.7% 늘어났다. 이 수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4.8%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251만 명은 전체인구의 4.9%로 다문화사회의 목전에 이른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부터였다.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체 결혼 가운데 15% 정도가 국제결혼이며 전라도나 충청도의 농촌에서는 전체 결혼의 30-40% 정도나 된다. 그 결과 핏줄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농촌에서 순혈주의가 깨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2006년 4월 결혼이민자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기초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은 이주민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한국인이 상호간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소통횟수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총인구 대비 약 2%의 인구가 다문화 가정을 꾸미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다문화 가정인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종족 비율이 2008년 기준 약 3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제국의 경우 11%-15%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그리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나라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는 2023년 848,724명으로 전년도 533,295명에 비해 6.8% 증가하였다. 이제 한국사회는 총인구 대비 약 2%의 인구가 다문화가정으로 살고 있으며, 이미 외국인 거주 4.8%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이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2월 유엔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포럼에서 발간한 『미리가 본 2018년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0만 명 수준의 한국 다문화가족이 10년 후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바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10년이 지나면 다시 결혼을 해서 출산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은 더욱더 심해져, 다문화가족을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전통 통합사회에서 살아갈 연습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회는 많은 다문화전문가를 요구하게 된다. 미래사회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필연적으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다문화사회를 배우지 않으면 그들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당면하게 될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전통사회는 이제부터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교육적 책임과 시행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서구 이민 선진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의 배경을 기초로 삼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요구된다.

2.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접근

오늘날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주의 물결은 한국사회를 놀라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결국 한국사회를 다민족사회로 변화시켰다.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 변화의 기본 성격을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란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을 천명하였

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사회는 어떠한 다민족사회인가, 어떠한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결혼 이주민, 정주화하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문화교육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현장 활동가의 문화 및 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개념 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미래의 비전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책 목표로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실시하는 문화교육은 강력한 동화교육을 지향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해 간다고 말할 때, 그 사용하는 개념에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란 정확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그 철학적 기반·정의·정책 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좁은 의미에서 “이주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는 “현대사회가 평등한 문화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현대생활이 점점 더 복잡한 인식을 띠는 인식 아래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구화 등을 정규과정에 더 많이 포함시키려는 취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19세기적 가정에 입각해서 국가나 민족의 강력한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 단일문화, 단일민족국가는 전 세계에서 10%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학계와 전문가들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 필요한 한국 다문화사회의 각종 정책과 대안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문화사회의 개념 이해에 있어서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의 규모나 문화적 다양성과 그 수준에 적합한 논의 그리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의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역사적·문화론적 담론에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였던 점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 없이 미래의 가능성과 유추된 전망만을 토대로 정책과 방안을 추진해 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개념 정립 과정의 역사적·문화론적 성찰에서 부족했던

담론 가운데 오해되었던 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게 된다.

첫째, 한국민족의 기원을 단일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찾으려는 해석은 오해이다. 한국은 조선시대까지 화이의식(華夷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구한말 시대는 일본의 합병과 내선일체론 등 민족의 정체성(아이덴티티)에 대한 사상적 공세에 직면하면서 그에 반대하여 혈통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단군은 국가 생활의 시조라는 정치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문화적 영웅이며 생물학적 선조로 확대되어 왔다. 그리하여 투쟁의 대상인 일본판 민족주의와 매우 흡사한 단일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려와 조선은 외국인의 정착을 환영했다. 따라서 많은 외래 성씨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많은 성씨가 스스로 외래에서 기원했음을 강조했다.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단일민족이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조선을 통합했던 것은 문명개념이었다. 그러나 분단과 6·25와 냉전을 거치면서 단일민족주의는 다시 강조되었다. 통일에 대한 염원과 강대국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단일민족 개념이 계속 재생되는 배경을 마련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권은 대내외의 도전에 대하여 얼마나 민족주의적인가 하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며 국가 주도적이란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은 이주민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한국인이 상호간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더 붙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사회로 이행을 준비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지원정책은 출입국관리나 사회복지, 인권보호 정책을 넘어서는 문화 간 이해의 증진을 통한 다문화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결혼 이민자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모두 이주민과 그 가족, 나아가 시민사회 일반을 위한 문화교육 및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한다. 그런데 다문화 정책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향하는 다문화의 모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갑자기 많은 다문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관 주도 다문화주의, 국가 주도 다문화주의 등으로 불려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셋째,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선진 이민국의 경험으로부터 배

워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특히 다인종 이민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어 소수인종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퍼져나갔고, 오늘날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단일문화권의 단일민족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는 소수인종이나 소수문화가 존재해 있다는 것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의 교육운동 등은 오직 미국 같은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는 스스로를 단일문화/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외부문화에 대해 비교적 비우호적인 한국의 경우에도 절실히 호소력을 갖는 사조라고 할 수 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식 없이는 세계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인종 이민 국가인 미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다문화주의적 사상과 실천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 항목에서는 미국 이민역사에서 사회통합을 위하여 정책의 근간으로 추진해 왔던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의 변천과정 즉 1)동화와 문화접변모델, 2)문화적 용광로 모델, 3)문화적 다원주의 모델의 기초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3. 다문화주의에 대한 해석 : 역사적 배경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역사적 배경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주의란 개념은 세계화의 진전이나 이주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다문화주의는 중앙집권적 단일 지배문화에 순응하던 시대의 종언과 다양한 주변 문화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인정 그리고 공존을 주창하는 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개념 속에는 본질적으로 ‘다양성’과 ‘단일성’이 균형 있게 공존한다. 그러나 근대국가들은 국내적으로 문화적 통합과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다양성 보다는 단일성을 더 강조해 왔다고

분석된다. 이런 현상은 이민역사에서 볼 때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등이 주민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이민의 나라 미국의 이민역사에서 강조되어 왔고, 다양성과 단일성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추진한 이론이 동화 모델이다.

1) 미국 이민역사와 동화과정

미국의 이민사회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동화의 변화 과정을 겪어 왔다. 동화과정에 있었던 형태들은 사회 연구의 전통적 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사회는 동화를 통해 주류사회에 적응(adaptation)하는 것을 당연시 해 왔다. 동화는 이민자가 주류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영향이라는 면에서는 일방적인 것이다. 이주민의 동화가 일어날 경우 주류사회 또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호스트 사회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변화를 겪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음식이나 복장, 음악이나 춤 등 외국의 문화요소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문화접변(acculturation, ‘문화변용’이라 번역하기도 함)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문화접변이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들)의 문화와 접촉한 결과 변화를 주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동화의 개념과 문화접변의 개념, 문화적 다원주의의 모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좀 더 논의하고자 한다.

(1) 동화(同化, assimilation)의 개념

동화란 무엇인가? George Simpson은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1968)에서 동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동화란 다양한 인종과 종족들이 상호작용과 자유로운 통제의 과정을 거쳐 상위 공동체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다른 종족의 대표들과 문화집단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위문화 신분에 있는 개인들은 동화되었다.”(P.438)

George Simpson의 동화 개념 설명에서 볼 때 완전한 동화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족 동화의 경우 사회구조는 그대로 있으면서 동등한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리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동화란 종족의 경우, 사회구조는 동화되지 않고 다만 문화접변(acculturation)만 이루어질 뿐이라고 한다.

사회학자들과 문화인류학자들은 ‘동화(assimilation)’와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개념 차이는 ‘만남’에 있다고 본다. 인종과 종족을 만남 과정과 결과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 두 개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두 용어는 확실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보다는 서로 중복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사회학자들은 동화란 낱말을 사용할 때 넓은 의미로 ‘assimilation’을 사용하며, 인류학자들은 같은 의미의 낱말 ‘acculturation’을 사용할 때 좁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Milton M. Gordon,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P.61).

(2) 문화접변(文化接變, acculturation)의 개념

‘문화접변’이란 무엇인가? ‘acculturation’ 개념에 대한 권위 있는 정의는 1930년대 중반 미국 사회과학조사협의회에서 위임받고 문화접변 소위원회가 조사한 것인데, 그 연구팀은 모두가 문화인류학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이 특별위원회 소속 연구위원들은 모두가 인류학자들인 Robert Redfield, Ralph Sinton, Melville J. Herskovits로써 문화동화(혹은 문화접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개별적인 집단들이 처음 상호 집단간에 접촉했을 때 계속 접촉을 일으키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며, 두 개의 집단이나 혹은 본래적인 문화의 유형이 있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M. Gordon, *Ibid.* p.61.)

여기에 나타난 현상에서 ‘acculturation’이란 낱말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되면 그 요인은 항상 ‘사람들과의 만남’ 즉 문화행위에서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변화된 두 개의 문화 중 하나의 문화로, 혹은 두 개의 집단들이 상호간 변화되며,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 두 집단은 구조적인 면으로 서로 상호협력관계가 ‘문화동화’ 속에 나타난 개념은 다만 ‘경험을 함께 분담하는 일’과 ‘공동체의 문화적인 생활 속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뿐이며, 사회의 구조적 관계의 규범 등의 협력관계는 전혀 유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M. Gordon은 이들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동화의 형태 assimilation을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한 동화를 나타내는 성격을 지닌 ‘사회적 동화(social assimilation)’, 문화적 행위를 통한 변화 즉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

acculturation)’는 behavioral assimilation(행위적 동화)에 해당하며, 인종간의 결혼을 통한 amalgamation(결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이 세 가지 형태의 개념을 Max Weber의 ‘이념적 모형(ideal-type)’ 개념을 도입해서 동화연구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권위자로 알려진 James A. Banks는 그의 책 《다문화교육 입문》(2009)에서 동화(assimilation)와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개념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동화란 한 민족·문화·집단이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자신의 문화적 특성을 버리고 다른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문화접변은 이질적인 문화·민족 집단의 상호작용의 결과 하부 집단의 특성이 변화될 때 발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화접변이 발생할 때 상호작용하는 집단들은 문화적 특성을 교환하며 양자 모두 그 과정에서 변화하게 된다.”

동화와 문화접변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족 집단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민족·문화집단은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 가치, 행동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한 사회의 지배집단들은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최소한 부분적으로 성공한다. 대체로 근대화된 사회에서의 문화적 충돌은 소수민족이 자신의 문화적 자산을 과도하게 지키려 하거나, 지배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미국사회의 지배문화 집단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Anglo-Saxon Protestant)는 종종 흑인이나 미국 원주민들과 같은 유색 인종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면서도 정당하게 인정해주지 않았다. 흑인들과 미국 원주민들이 미국문화, 정부, 음악에 기여해 온 바에 대해서도 온전히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문화적 ‘용광로(Melting Pot)’

Henry Pratt Fairchild는 동화를 미국화(Americanization)로 본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화(assimilation)를 문화접변(acculturation)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집단들은 생활조건으로 보아 미국의 지배적인 집단인 ‘와스프(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도를 지칭함)’에 영향을 받으며 관계해 오고 있다. 이런 지배적인 집단

의 모델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Gordon은 미국 이민자들의 동화 연구에서 세 가지 중심적인 이념적 모형으로 ‘영국형 단일화(Anglo-Conformity) 모델’, ‘용광로(Melting Pot)모델’, ‘문화적 다원주의 형(Cultural Pluralism) 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1) 영국형 단일화(Anglo-Conformity) 모델

Gordon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지배적인 문화집단의 다수는 ‘앵글로 색슨 단일화(Anglo-Saxon Conformity)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은 미국화(Americanization)로 되어 가는 동화과정이 주류지배 사회인 앵글로(영국형)모형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견해는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백인 영국계 개신교도를 말함) 계열의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비앵글로색슨계 배경의 이민자들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영국계 이민자 모형은 말하기를 영국계 집단들이 아메리카에 먼저 들어갔고, 그 이민자들이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White-Anglo-Saxon Protestant)가 주류 집단으로써 미국을 건설한 핵심되는 주류집단으로 행동하고 가치관을 만들게 되었다. 그들은 주류사회 집단으로서 영국언어와 영국식 학교제도와 영국식 문화의 모형으로 13개의 식민주를 발전시켰으며 또한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기초 위에 문화를 건설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 가운데 백인계 이민자들도 사회 구조 속으로 동화되고, 또는 결혼을 통하여,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갔으나, 비주류계 이민자들도 백인계 이민자들처럼 구조적으로 동화되어 갔는지는 분명치 않다.

(2) 용광로(Melting Pot) 모델

Israel Zanwill은 유대계 러시아 태생의 미국 이민자이다. 그는 용광로 모델 이론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민에 관한 용광로 모델 이론을 기술한 그의 대표적인 책 《The Melting Pot(용광로)》(1909)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메리카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이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유럽으로부터 이민해 온 모든 인종들은 용해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량한 미국 시민으로 50개 주 안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50개 주 안에서 인종마다 다른 언어와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각이한 인종으로, 혈족 간에 미워하고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러므로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용광로 불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움과 더러운 것들, 독일인들, 프랑스인들, 아일랜드인들, 영국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러시아인들 모두는 용광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메리카인을 만들고 계십니다.”(p.37)

또 다시 Zangwill은 후일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팜나무와 소나무, 그리고 남극과 북극, 또한 적도 지역이던지, 모슬림이던지, 십자군이던지, 그리고 연금사는 용광로의 분화구에 불을 뿜기십시오. 세상의 모든 민족이나 국가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로 만들어라. 로마의 영광도, 예루살렘도, 모든 이민자들도, 종족들도, 아메리카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도 모든 인종들도 모두 와서 함께 일하고 앞으로 나아갈 지어다.”(p.119)

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미국 안에 있는 상이한 모든 소수 인종들은 하나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용해되어’ 하나로 통합되어야 했다.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의 역사는 John Crevecoer의 책 《Letter from a famer(농부로부터 온 편지)》(1782)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1893년 Frederick Jackson Turner는 미국 사람들을 만들도록 서부개척자들의 그릇과 같은 개척자의 용광로에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서 녹여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였다. Turner의 논제는 1909년에 나온 그의 책 《The Melting Pot》(용광로)에서 Zangwill의 사상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1940년대 중엽에 이르러 Ruby R. Kennedy는 기본적인 3대 주류 종교인 프로테스탄트교, 가톨릭교, 유대교를 하나의 ‘단일 용광로(Single Melting Pot)’로 단일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3대 종교를 기초로 한 ‘3중 용광로(Triple Melting Pot)’ 형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점차로 전통적인 단일용광로 이론은 포기되었고, 새로운 개념인 미국의 동화이론은 ‘3중형 용광로(Triple Melting Pot)모델’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다시 ‘3중형 용광로 모델’ 조차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다원형 용광로(Multiple Melting Pot) 모델’로 불리는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3) 문화적 다원주의의 모델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는 현대 미국의 이민역사에서 볼 때 ‘다원형 용광로 모델’로 불리는 이념형으로 발전해 갔다. ‘다원형 용광로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 다원주의는 이주민이 주류사회에 접촉하여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동화가 일어난다.

문화적 동화(cultural assimilation)란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들)의 문화와 접촉한 결과 변화를 겪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음식이나 복장, 음악이나 춤 등 외국의 문화요소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문화변용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 이민사회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기본 태도로 삼고 있다. 프랑스로 대표되는 통합주의(integrationist)는 국가의 단합과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 가는 방법으로 개인의 평등에 대한 시민적 권리와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따라서 통합주의는 동화주의라고 인식되고 있다. 여기는 동화로서의 통합주의가 개인의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의 통합을 조화시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이나 동화는 자발적이며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은 유럽에 대해 스스로 ‘신세계(New World)’ 또는 ‘신천지’라 규정하며 자부심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동화를 강조하지 않으며, 이주민들은 미국에서의 삶, 즉 미국적 삶을 선택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동화는 아무리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이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접변은 민주적이라고 간주되었고, 문화접변의 일방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문화적 용광로라는 개념은 강력한 미국 문화가 마치 용광로처럼 작용하여 여러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화가 미국문화 속에 녹아들어가서 더 새롭고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미국문화의 아이덴티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미국문화는 스스로는 큰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 다른 문화를 녹여 버리는 것이다.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은 2세대를 거치면서 고유한 문화를 상실한다. 그러나 일부 고유한 전통이나 관행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상당히 미국화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고유한 전통문화인 민속요리나 민속축제 등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한편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유럽계 이민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본국과의 관계도 상이하다. 아시아계 한인 배영씨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젊은 아시아인 아메리칸들은 미국 내 주류사회의 단일문화이념에 도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들의 눈에는 제국주의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의 흑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주과정에 최소한의 자발성이나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흑인의 의식이 고양되면서 아프리카의 전통이나 무슬림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하면서 영어를 강요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4) ‘샐러드 볼(Salad Bowl: tossed salad)’ 모델

동화 이론이 모든 이민사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사회의 동화과정연구에서 3가지 모델을 제시한 Gordon의 전형적인 연구 이외에도 근래의 미국 이민 사회의 동화 모형을 ‘샐러드 볼(Salad Bowl: tossed salad)’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새로운 집단이 주류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지 않으려면 동화의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동화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미국 이민역사에서 ‘영국계 주류 지배 단일화 모델’은 영국말, 영국제도, 영국지향문화를 주도해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용광로’ 모델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이미지는 형성해 주었으나, 이 이론도 결국은 영국계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계 주류 단일화 모델과 용광로 모델도 결국은 양자가 모두 주류지배사회가 지배하게 되었다.

다원문화주의 모델은 소수민족 이민계에게 민족적 고유한 유산(ethnic heritage)을 보존시키려는 정책이 증가했으나 흑인사회나 히스패닉 사회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민 국가인 미국의 상황은 용광로 모델이 아니라 ‘샐러드 볼(Salad Bowl : tossed salad) 모델’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표명되었다.

‘영국계 단일화 모델’, ‘용광로 모델’, ‘문화적 다원주의 모델’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논의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단일문화주의, 문화적 다원주의의 개념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 다양한 해석이 있겠으나, 협의의 의미로는 이주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편 광의의 의미로 다문화주의는 세계화의 진전이나 이주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여러 선진국의 이민집단이 가진 고유한 문화유산(ethnic heritage)를 지칭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4)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델

다문화주의는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동질적 문화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종종 혼돈되는 개념이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다문화주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널리 사용된 용어이다. 오늘의 지구촌 국가와 사회는 문화, 종족, 언어, 종교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 다원화된 국가들은 다문화주의, 통합주의, 혈통주의 3가지 중 하나의 입장에서 있다. 다문화주의는 호주, 캐나다 등에서 주로 발전한 방식이며, 통합주의는 프랑스이며, 혈통주의는 독일과 일본에서 채택하여 온 방식이다.

지구촌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역 국가들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의 '단일성'을 위해 통합이 우선이냐? 혹은 다문화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이해를 위해 '다양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느냐? 묻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는 '다양성'과 '단일성'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4. 다문화종교교육의 철학적 근거

1) 다문화종교교육의 특수성

인간은 태어날 때 가정과 특수한 문화와 하나의 소수민족적 공동체를 배경으로 태어난다. 그들이 소속된 사회는 역할모형, 의식, 의전, 언어를 가진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지평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제도, 학교, 종교, 공동체 및 정치적 구조 속에 있게 된다. 개인이 비록 작은 소속 민족의 가정적 배경에서 태어났어도 점차 그들은 다원적인 사회 안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란 일반적으로 단일 문화로 존재하지 않고, 소수민족이라 하지만 그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적 교육은 종교적 형태 속에 있게 되고 또한 교육과정 속에는 문화와 연결된다.

1987년 Charles Foster는 그의 책 《Ethnicity in the Education of the Church》(1987)에서 전통적 미국교회들이 단일문화와 단일 언어적 사상에 근거한 종교교육의 교육과정 개발에만 치중해 오다가 히스패닉 계통의 교회, 서인디안 계통의 교회, 한국인 계통의 교회, 베트남 계통의 교회 등 소수민족 교회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배제한 다원성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직면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Foster는 북유럽과 영국을 지배적 주류문화의 배경으로 하여 오던 전통적인 미국 교회는 소수민족계통 교회들이 지니고 있는 그들의 전통적인 다문화적 특수성을 받아드려야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David Ng은 인종이나 소수민족의 ‘문화적 소수민족교회들(Cultural Minority Churches)’과 ‘문화적 다수민족교회들(Cultural Majority Churches)’인 두 교회들의 모델에 있어서 다문화적 교육의 차이성을 지적하고, 두 교회들 사이에 있는 모델의 상호간 차이를 인정하여, 두 교회들의 문화적 유산을 함께 수용하는 긍정적인 참여 속에서의 ‘다문화 교회(Multicultural Churches)’를 주장했다.

Ng이 분석한 다문화 교회란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는 관계와 이해의 공동 체험을 기초로 해서 변화되는 교회를 말한다. Ng의 지적에 따르면 “다문화 교회란 서로 함께 공동체를 성취해 가기 위해 앞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교회 속에는 그들의 종교적 신앙이나 거기서 표현되는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문화교회 공동체 상황 안에서 다문화 기독교교육은 성경과 신학적 해석을 위한 배경으로서의 철학적 근거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2) 다문화종교교육의 개념

먼저 기독교 종교교육의 다문화적 이론의 기반이 되는 성경과 신학적 이해의 배경에 대하여 접근해 보기로 한다.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다문화 종교교육(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기는 1990년대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1992년 컬럼브스의 미대륙 도착 500주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민자들이 새로운 세계에 이주하면서 겪었던 과거의 문제들을 회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21세기, 제3밀레니엄 시대를 맞으며 미국의 기독교종교교육협회 소속 기

독교교육학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회고하고, 토론하고, 새롭게 조명하면서 기독교 종교교육협회의 학술지 《Religious Education》과 《Religious Education Press》 출판사에 게재하면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종교교육’이란 낱말은 개념이나 의미도 생소하고, 해석도 다양하다. 종교교육학자이며, 다문화교육 전문가인 Carl Grant에 의하면 다문화적 종교교육에 관한 논의는 다문화주의와 구조에 대하여 이론적 발달의 측면에서 해석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철학적 근거를 마련했고 신앙적 결단을 훈련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실제적 필요성에서 왔다고 한다. 최근 다문화교육은 그 관심의 폭이 증폭되어 문화적으로 다른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교차-문화적소통(cross-cultural communication)’을 촉진 시키고, 또는 소수민족의 프로그램 개발에 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에서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란 낱말은 인종 혹은 소수민족 집단에 해당되는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주변 문화에만 주로 적용시켜서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이란 말을 사용해 오고 있으며, 또는 인종, 지역, 사회계층, 성차별 등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3) 다문화종교교육의 의미

인류학 연구에 따르면 문화의 개념은 좁은 의미로는 한 집단의 특별한 공예품, 음식, 의복, 관습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한 집단의 특별한 가치 및 실재의 가치관에서 이해된다. 한 집단의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을 보면 그 주변에는 주택과 시장, 교회, 직장, 학교들이 함께 이웃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외형적 문화는 그들의 경험, 규범, 문화적 전망의 소산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생활 속에서 음식, 음악, 관습 등 여러 가지 축제의 형태가 나타나며,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배적인 태도와 인식의 형태 등을 만들어 낸다. 1970년대 이후 전문적인 문헌에서는 다문화적 교육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용어들은 대체로 ‘다원적 소수민족교육(multiethnic education)’, ‘다원적 인종교육(multiracial education)’, ‘평등성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equity)’, 혹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cultural education)’ 등으로 불리어 왔다. 탁월한 문화인류학자 Margaret Gibson은 그녀의 탁월한 저서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1979)

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한 개인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예절을 행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다양한 표준적 체계 안에서 적절하게 발달되어 가도록 하는 과정이다.”(P.16)

위에서 기술된 다문화교육(혹은 다인종문화교육)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담고 있다.

(1) 문화와 소수민족 그룹은 다양하고 동일하지 않다. 또한 하나의 소수민족 그룹 안에서도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다.

(2) 교육은 학교 외의 학습을 포함한다.

(3) 소수민족의 고립은 교육에 역행한다. 하나의 새로운 문화에서 완전한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상호간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4) 개인들은 다른 문화권 안에서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데 반대해서는 안된다.

(5) ‘정상적인 인간경험’ 속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은 자연히 증대되어 가기 때문에 문화와 문화 사이를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5. 다문화종교교육의 목적

교육역사학자 Lawrence Cremin의 책 《Tradition of American Education》(1977)에 따르면 교육이란 단순히 교실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회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크레민의 정의에 따르면 교육은 “숙고하고, 체계적이고, 유지하고, 변화시키고,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또는 지식, 태도, 가치, 기술 및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p.134)

Christine Sleeter와 Carl Grant는 1987년 교육전문지에 다원교육의 접근 방법론에 대하여 발표한바 있다. 그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출판한 89권의 연구논문과 38권의 전문서적을 분석하고 다문화 교육의 실태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으로 압축하여 분류했다.

즉 ①‘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②‘인간관계의 접근’, ③‘단일-그룹 연구’, ④‘다원문화 교육’, ⑤‘다원문화와 사회재건 교육’으로 구분했다. Sleeter와 Grant에 따르면 ‘문화적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은 동화주의자들의 접근방식

으로 지배하는 집단의 공적인 문화에 소수민족이 동화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방법이다.

여기서 다문화교육이란 유색인종들을 지배문화에 동화시켜 가는데 주목적을 둔 교육이다. 인간관계 접근방법은 상이한 집단의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학생들의 배경을 조사해서 학생들을 돕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는 장·단기적 목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아이디어를 갖도록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론적 접근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배경을 앎으로써 학생들의 계층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사회구조에서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접근 방법은 ‘단일-그룹연구’라고 불리며, 하나의 단일 소수민족 그룹에 대한 문화적 경험 연구에 초점을 둔다. 사회변화를 외면하는 소수민족 집단에서는 교사와 학생도 사회변화를 외면한다.

넷째 접근 방법은 ‘다문화접근 방법’인데, Diane Gollnick는 다섯 가지 주요 목표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증진강화, ②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증진강화, ③생활선택의 대안, ④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정의와 평등한 기회, ⑤모든 소수민족에게 힘의 공평한 분배 등이다. 주로 인류학적 연구에 따라 미국의 인종적인 집단관계에서 인종과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와 사회재건주의’ 관점에서 본 교육철학적 접근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하여 대항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의 장점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정신보다는 민주주의에 기초해서 보다 좋은 선(善)을 실현하게 하고 집단적인 사회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을 실천하게 한다. 이 접근방법은 문화비평에 기초해서 1950년대 교육의 재건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Theodore Brameld의 사상에 기초해서 다문화와 사회적 재건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철학에 방향을 두고 있다. 이런 사상은 사회적 갈등과 사회정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는 Paulo Freire나 Henry Giroux, Victor Yurner, Peter L. McLaren 등의 저서에서 ‘제의 공동체(ritual communitas)’ 모형 등으로 소개되어 많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철학적 모델 연구에서 통합적 모형을 적용하고 있

는 피터 맥래런은 지록스의 ‘저항으로서의 학습(schooling as resistance)’ 모형을 ‘저항으로서의 제의(ritualizing as resistance)’라는 대체 모형으로 제시하면서 분열되고 쪼개진 사회구조를 정화시키고 화해시키는 교육학적 모형을 제시한다.

최근 다문화교육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인종·다민족·다문화간의 편견 극복이나 혹은 편견감소 문제는 다문화교육학적 접근과 다문화종교교육학에서 중요한 교육학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함께 다양한 사회의 여러 집단 상호간에 창조적이며 평등성의 관계 속으로 접근해 가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접근이다. 이런 입장들은 다문화종교교육학의 모델이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일치하며, 또한 다문화종교교육학의 모델이 구속적이며, 화해적 공동체를 지향해 가는 교회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가 교회교육의 목표를 구속적이고, 화해공동체를 지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다문화 공동체는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종교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신앙을 가진 모든 종교교육자들이 ‘다문화적 종교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혹은 상대주의적 접근의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교육학적 원리들을 동일하게 자신들의 종교에 적용시켜 갈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종교교육의 과제는 다문화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지배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수민족의 집단이나 개인들을 평등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넓게 끌어안음으로써 사랑을 함께 나누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나아가게 하려는데 다문화교육의 교육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종교교육의 목표는 구속적이고, 화해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목적과 일치한다.

6. 다문화종교교육의 형성과 과제

1990년대는 ‘다문화종교교육(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이란 하나의 새로운 학문의 분야가 기독교교육의 한 분과로 새롭게 탄생된 시기라고 말할 수 것 같다. 이 새로운 분야의 학문은 기독교교육이 2000년대와 21세기, 새천년을 향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그 동안 여러 분야의 많은 학자들의 논

의 과정을 거쳐 오다가 처음으로 기독교교육의 전문 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다문화종교교육'이란 이름 아래 이론적 체계가 형성되기 시작된 시기였다.

미국 [기독교종교교육협회]와 [기독교종교교육자교수협의회]의 학술기관지 《Religious Education》 1992년 봄호(Volume 87, Number2)는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을 특집호로 내고, 특집 주제를 '다문화종교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로 하여, Barbara Wilkerson, Marina Herrera, Ronnie Tom Ole, David Ng 등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실고 있다. 또한 '사회과학적 접근'(Social Science Approach)의 대표적 이론가인 James M. Lee는 그의 주관 아래 종교교육출판사(REP대표자는 James M.Lee이다)에서 2편의 야심적 논문을 담은 다문화종교교육연구서 단행본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1997)이란 이름으로 출판했다. 이 책의 편집책임자이며, 대표적 연구원 Barbara Wilkerson이 다문화종교교육의 학문적 이론을 구축하는 작업을 한 이 논문의 1부 [다문화종교교육의 기초]에서는 '다종교교육의 목표(Barbara Wilkerson)', '다문화종교교육의 사회학적 기초(Carol A. Jenkins and Dale Kratt)', '다문화종교교육의 심리학적 기초(Donald Ratcliff)', '성서, 신학 및 다문화종교교육(Randolph Crump Miller)'을 다뤘고, 2부에서는 <종교교육과 문화공동체>를 주제 탐구로써, '아프리카-아메리칸계의 종교교육'(H.D.Trulear), '태평양-아시안계 북미주의 종교교육'(G.A. Ng), '히스패닉계(Hispanic)의 종교교육'(E. Ginoris), '원주민 아메리칸(Native Americans)과 종교교육'(J. Weaver), 3부는 <다문화종교교육의 교육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수와 다문화종교교수'(D. Bainer & J. Peck), '커리큘럼과 다문화종교교수'(Lewis & Cram and James Michael Lee), '다문화종교교수의 전망'(V. Elizondo) 등을 실고 있다.

Barbara Wilkerson은 다문화종교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류 문화권의 교회들과 소수민족교회들이 다 같이 공동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문화종교교육의 목표 안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 지상교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다수소수민족(multiethnic)교회와 다수언어(multilingual)를 한 몸으로 이해해야 한다.

(2) 다원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대처하기 보다는 증진하고 가능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 (3) 다른 문화의 가치와 효과적인 기능을 자신의 것처럼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
 - (4) 다양한 신앙의 체험과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이 종교교육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이런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음의 요소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에는 기독교공동체의 총체적인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참여적인 학습 모형이 강조되고 교구 안에서 지도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소수민족과 주류집단이 서로 밀착되어 소통하고 서로간의 소명이 존중되고, 공동의 신앙적 유산을 축하해야 한다.

넷째,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불의는 제거되고 정의는 증진되어야 한다.

7. 맺는 말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그리고 지구촌 시대를 맞으면서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다. 다문화종교교육은 21세기 다문화주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주요 관심사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다문화종교교육은 다문화주의의 중심 기반 위에 있으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가 함께 이해되고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종교교육은 인종적·소수민족적·문화적 소수자가 주류가 되는 다수 집단 문화의 구성원과 함께 이해 우선의 기초 위에서 상호공존하면서 이상적인 하나님나라의 모형을 실현시켜 가고자 해야 한다.

다문화종교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역사적 증언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기초로 한 신학적 해석에 풍부한 자원을 갖도록 계속된 작업이 천착되어야 한다. 다문화종교교육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새 시대의 가치관·정의와 공평성·타인과의 협동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양육해야 한다. 다문화종교교육의 교육목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배경을 다양한 소수민족의 사람들과 우리 사회의 주류계층이 다언어·다문화를 함께 이해, 수용, 소통해 가면서 다양성과 단일성의 조화있는 삶의 추구를 통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교회는 다문화종교교육의 정책수립과 예산 확보,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화 그리고 다문화종교교육의 전문적 교사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옹진을 푸르게 물들이는 섬, 대청도(大靑島)

최이현(옹진문화원)

오전 8시,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인천 연안의 주요 섬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가운데 백령, 대청, 소청도행 코리아프라이드호가 개찰을 시작했다.



대청도 선진포항

우리나라 관할 섬 중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서해 5도, 즉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 중 하나인 대청도는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1km 떨어져 있어 쾌속선으로도 4시간 이상 가야 닿을 수 있다. 오히려 거리상으로 북한의 황해도와 가깝고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어 군사적으로는 백령도, 연평도와 함께 전략

적 요충지에 속한다.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에 속해 있으며, 인근에 소청도가 있다. 대청면 전체 면적은 15.60km², 대청도 면적만 보면 12.62km² 정도 된다. 비교적 좁은 면적이지만 섬 내에서 가장 높은 곳인 삼각산이 343m이며, 전체적으로 산지가 많고 농경지가 적어 주민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 특히 수산물이 풍부하여 다양한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유명하다.

1. 고려시대 유배 명소로 떠오른 대청도

대청도의 옛 이름은 포을도(包乙島)였다. 『고려사(高麗史)』에 따르면 고려 태조

14년(931) 장수 유금필(庾黔弼, ?~941)이 참소를 당해 곡도(鵠島, 백령도의 옛 이름)에 유배되었을 때, 후백제 견훤의 군사가 고려 수도 개경의 배후인 대우도(大牛島, 평북 용천)를 공격하여 태조가 근심하자 곡도와 포을도의 장정을 모아 방어하였다고 한다. 포을도란 명칭은 ‘푸른 섬’이라는 우리 음을 한자로 기록한 것으로, 이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대)청도’이다.

한편, 고려 인종 1년(1123) 중국 송나라 사람 서공(徐兢)이 황제의 명으로 고려에 와서 본 내용을 기록한 『고려도경(高麗圖經)』(정식 명칭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며, 줄여서 ‘고려도경’이라 칭함에 “대청서(大靑嶼)는 멀리서 바라보면 울창한 것이 진한 눈썹과 같다고 해서 고려인들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고 하였고, 이어 “소청서(小靑嶼)는 대청서의 형상과 같다. 다만 산이 약간 작고 주변에는 암초(焦石)이 많다.”고 하여, 지금까지 대청도, 소청도에 대한 기록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대청서를 오후 12시 경 지난 배가 2시 경 화상도(和尚島)와 우심서(牛心嶼)를 지나고, 3시 경 섬공서(聶公嶼)와 소청서를 지났다고 한 것과 이날 오후 4시 경에 자연도(紫燕島, 현 영종도)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해 『고려도경』 속 대청서와 소청서가 오늘날의 대청도와 소청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서공 일행의 항로가 중국 절강성(浙江省) 영파(寧波)를 출발하여 우리나라 전라도 및 충청도 해안을 거쳐 예성항으로 들어오는 경로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 대청서와 소청서는 영종도 남쪽 인근 도서 중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도경』 속 ‘대청서’, ‘소청서’의 명칭 자체는 ‘대청도’와 ‘소청도’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문헌에 따르면 ‘대청도’, ‘소청도’라는 명칭은 고려 초부터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 초 어느 때에 포을도에서 대청도로 고쳤다고 생각되는데,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백령도는 고구려 때부터 불리던 옛 이름인 ‘곡도(鵠島)’를 ‘백령진(白翎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1018)에 진장(鎭將)을 두었다.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포을도에서 대청도로 변경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후 대청도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유배지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으로 치면 유배 명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가 이곳 대청도에 유배되었다. 유배(流配)는 죄인을 먼 곳으로 귀양(歸養) 보내어 격리시키는 형벌로, 고려시대에는 2,000리(里), 2,500리, 3,000리 등 3종류의 유형(流刑)이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대청도를 소개하며 이곳에 유배된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모두

1. 문에마당

충숙왕 재위기에 유배 온 원나라 사람들이다.¹⁾ 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대청도에 유배되어 온 원나라 사람은 7명이며, 명단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성명	신분	유배 온 시기	귀환된 시기	비고
애아적(愛牙赤, 아야치)	황세자	1280(충렬왕 6년)	1281(충렬왕 7년)	
실라지(室刺至)	미상	1283(충렬왕 9년)	미상	
활활대(闊闊歹, 코코다이)	황족	1288(충렬왕 14년)	1297(충렬왕 23년)	대청도에서 사망
도길출(圖吉出)	미상	1292(충렬왕 18년)	미상	
아목가(阿木哥, 아무가)	황족	1317(충숙왕 4년)	1323(충숙왕 10년)	
발라(孛剌)	황족	1324(충숙왕 11년)	1329(충숙왕 16년)	
타환첩목이(妥權帖睦爾)	황태자	1330(충숙왕 17년)	1331(충혜왕 1년)	원순제(元順帝, 1320~1370)

권오중, 「大靑島에 온 元의 流配人」, 『인문연구』 20집 1호, 192쪽 참고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은 2인을 제외하면 모두 황족이며, 그 중 타환첩목이는 황태자 신분으로 불과 10세 전후에 먼 타국 고려의 작은 섬에 유배되어 1년 간 생활하다가 돌아갔다. 3년 후 그는 황제로 즉위하는데, 바로 고려인 신분으로 원나라의 황후가 된 기황후의 남편이다.

이렇듯 대청도에 유배된 원나라 인물들은 황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대청도에서의 유배 생활도 그리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충렬왕 6년 8월에 애아적을 위해 충렬왕비인 제국대장공주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나²⁾ 충숙왕 4년에 유배된 위왕(魏王) 아목가에게 위왕관(魏王館)이라고 하는 거처가 제공³⁾되었던 것을 보면 고려 왕실의 비호 아래 호화 생활을 누린 이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의 유배지는 수도인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도서 지역이었다.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제주도나 백령도가 많았고, 대청도의 경우 충렬왕 4년과 5년에

1) 충숙왕 4년(1317)에 원나라에서 위왕(魏王) 아목가(阿木哥)를 이곳에 유배 보냈다가, 충숙왕 10년(1323)에 소환하였다. 충숙왕 11년(1324)에 패자(孛剌)태자를 이곳에 유배하였다가, 충숙왕 16년(1329)에 소환하였다. 충숙왕 17년(1330)에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태자를 이곳에 유배하였다가, 충숙왕 후원년(後元年, 1332)에 소환하였다(『고려사』 권58 「지」 권제12 지리3 서해도 백령진).

2) 『고려사』 권29 「세가」 권제29 충렬왕(忠烈王) 6년 8월

3) 『고려사』 권34 「세가」 권제34 충숙왕(忠肅王) 4년 윤1월

유배된 김방경과 최유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원나라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대청도의 어떠한 점들이 이들 원의 황족들을 유배 보낼 만한 곳으로 지목되었을까? 일반적으로 백령도의 1/4 크기인 아담한 대청도의 규모가 유배인을 관리하기 용이했고, 중국-고려 간 해상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한 점, 넉넉한 자원을 보유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더해 고려 초에 설치된 백령진의 역할과 기능이 대청도를 원 황실의 유배지로 각광받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백령진은 현종 9년(1018)에 진장(鎭將)이 두어진 이후 공양왕 2년(1389)에 혁파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고려사』는 혁파된 이유에 대하여 ‘수로가 험난하다’, ‘땅이 협소하다’고 하였으나, 황해도와 10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육지로의 이동이 비교적 쉽게 이뤄졌을 것이다. 또한 백령진은 인근 도서인 대청도와 소청도를 함께 관할했을 것인데, 이들 섬에 유배된 죄인들도 백령진에서 관리·감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에서 백령진 관할 도서 중 주로 백령도를 유배지로 활용하다가 대청도가 원나라 유배지로 구분되기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청도는 수도인 개경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육지와와의 접근성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인접한 백령진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 작은 섬이라는 점에서 유배지로서의 장점이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원나라의 특수한 신분층의 사람들이 유배되어 오고 가기에 좋은 환경이었고, 더욱이 대청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넉넉한 자원은 이들의 호화로운 유배 생활을 뒷받쳐 줄 정신적, 물질적 토대가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배지로서의 대청도는 원 간섭기가 끝나가던 공민왕 때부터 점차 기능을 상실했고, 고려 말의 혼란한 틈을 타 해안 지방에 출몰했던 왜구들에 의해 백령진이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육지로 옮겨졌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백령도에 목장이 들어서며 한때 대청도로 목장이 이전되기도 하였으나 주민의 입주와 경작의 허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조선 정조 17년(1793)이었다. 수 백년 동안 버려져 농사 짓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대청, 소청도의 땅을 유용하게 쓰기 위하여 백성들의 경작을 허락하였던 것이다. 당시 황해도 수군 절도사 이우현(李禹鉉)은 대청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청도는 동서의 거리가 30리이고, 남북의 거리는 20리입니다. 동쪽으로 소강

1. 문에마당

행영(所江行營)과의 거리는 뱃길로 2백 리이고, 북쪽으로 백령진과의 거리는 30리이며, 동북쪽으로 장연(長淵) 무룡포(舞龍浦)와의 거리는 1백 30리입니다. 겹겹의 산과 봉우리가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있고, **내동(內洞)·고사동(庫舍洞)·사언동(沙堰洞)·판안구미(板案仇味)** 등 네 개의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동**은 북쪽의 높은 산 봉우리 아래 부스러진 기와 조각들이 있는데, 세속에 전해오는 말로는 원나라 황제가 살았던 옛터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바로 **옥자포(玉子浦)**로 길이는 10리쯤 되고 너비는 수 리쯤 되는데 좁은 곳도 2백여 보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윗쪽은 토질이 척박하여 다만 사이 사이로 밭을 만들 수 있었고, 아랫쪽은 모래땅이 기름져서 개간할 만하였습니다. **고사동**은 길이가 3리쯤 되고 너비는 2백여 보쯤 되는데, 윗쪽은 층을 이루는 바위와 널려진 돌들이 문혀 있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여 경작할 만한 땅이 없고 아래쪽은 지형이 조금 평평하면서 흙빛이 거무스레하여 개간할 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골짜기 어귀의 포구와 잇닿는 곳에 가로막은 뚝 하나가 있었는데 모두가 돌무더기라서 매양 밀물이 들 때면 잔물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사언동**은 하나의 긴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양쪽의 벼랑은 모두 암벽이고 가운데 작은 개울 하나가 구불구불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전혀 개간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판안구미**는 너비가 사언동과 대략 같은데, 골짜기 막바지에 땅이 평평하여 백여 말[斗]의 곡식을 부릴 만하였습니다. 대체로 네 골짜기 중 내동이 가장 개간하기에 적합하고 그밖의 세 골짜기는 산이 아니면 골짜기이고 골짜기가 아니면 벼랑이며, 솔·느릅·뽕·상수리·개암·오동·떡갈·노나무 등이 곳곳마다 뺨뺨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의 바다 기슭은 가파른 벼랑이라서 방어 시설을 할 수 없고 어살을 칠 곳도 없으며 소금이나 굶기에 적합한 곳입니다.”⁴⁾

대청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우현의 말에서 내동, 옥자포, 고사동, 사언동, 판안구미 등과 같은 지명이 등장하고, 각 지역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백성을 이주시키고 개간과 경작을 장려하기 위해 대청도의 환경을 조사하고, 농경지로 이용 가능한 곳을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청도의 환경 변화는 원나라 황실의 유배지라는 이미지와 함께 청정 자연의 자원이 풍족한 섬으로 인식되어 갔다. 지금도 대청도의 유래로 자주 일컬어지

4)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4월 29일 신묘 3번째기사

고 있는 것이 조선 명종 때 문정왕후의 병(病)을 치료한 대청도산(産) 상기향에 대한 이야기다. 왕모(王母)인 문정왕후가 신병(身病)이 나자 전국의 관찰사에게 명해 뽕나무에 맺혀진 상기향을 구하도록 명하였는데, 대청도의 내동에서 이를 구해 병이 완쾌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암도(岩島)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 그 뽕나무에게 옥관자(玉冠子, 조선시대 당상관 이상의 벼슬아치가 쓴 옥으로 만든 망건의 관자) 1조와 각대(角帶, 벼슬아치가 예복에 두르는 띠) 1조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기록이 『세종실록』에 등장한다. 세종 13년 3월, 의원 김자견(金自堅)이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상기생(桑寄生) 50근을 채취하여 바쳤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상기생을 순심 별감(巡審別監) 고전성(高全性)이 순찰하다 발견하여 비로소 얻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귀한 약재였던 상기생이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발견됨으로써 이후 국가에서 각별하게 관리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연도	내용
고려 현종 9년(1018)	대청도와 소청도를 백령도의 부속 도서로 하고, 백령도에 진(鎭)과 진장(鎭將) 설치
고려 말 ~ 조선 초	백령진 폐쇄, 장영현 편입
조선 태조 6년(1406)	웅진현 편입
16세기경	다시 장영현 편입
세종 10년(1428)	소를 방목하는 목우장이 설치되어 주민 입주 시작
정조 17년(1793)	주민 입주 및 경작 허락
정조 23년(1799년)	대청도와 소청도 수원부 편입, 두 섬에 각각 진(鎭) 설치
1894년	황해도 장연군 백령면 소속
1945년 8월 15일	경기도 웅진군 편입
1962년 6월 14일	백령면 대청출장소 설치
1974년 7월 1일	대청면 승격
1975년 5월 20일	대청면 소청출장소 설치
1995년 3월 1일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웅진군 편입

대청도 연혁

‘포을도’라는 옛 이름이 알려주듯 예부터 푸르름을 자랑하던 대청도. 이제 그 푸르름 속으로 들어가 대청도를 만끽해보자.

2. 대청도의 '가볼만 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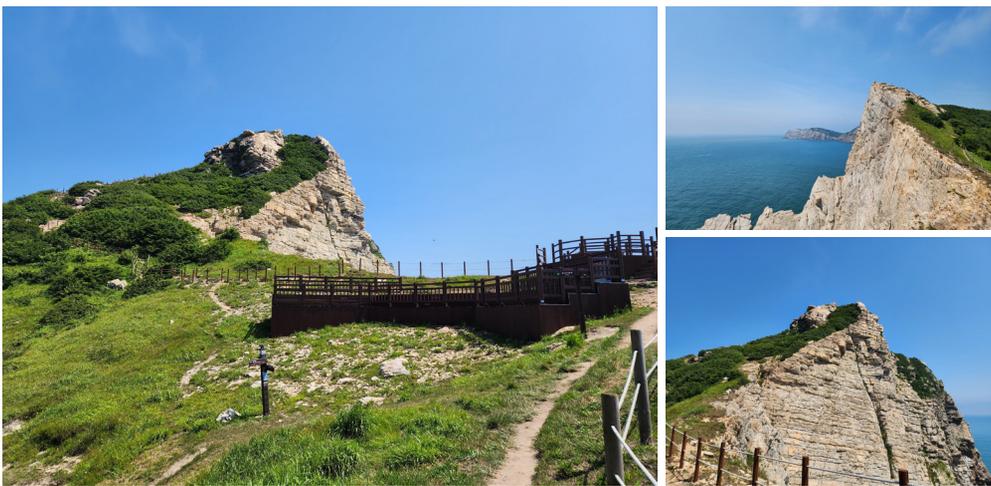
1) 삼각산(三角山)

'백령도는 먹고 남고, 대청도는 때고 남고, 소청도는 쓰고 남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백령도에는 넓은 들이 있어 쌀이 남아돌고, 대청도는 산이 높고 숲이 우거져 뽕감이 많고, 소청도는 풍족한 어장이 있어 돈을 쓰고 남는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대청도의 지형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다른 섬에 비해 산이 높고 푸르다. 이 중심에 해발 343m의 삼각산이 있다. 삼각산이라는 이름은 서울에 소재한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인 삼각산과 동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천자(天子)나 왕의 도읍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산명을 원의 순제가 유배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는 설과 세 개의 봉우리가 삼각을 이루고 있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대청도 삼각산

2) 서풍받이



서풍받이

대청도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단연코 ‘서풍받이’를 꼽을 수 있다. ‘서풍받이’는 대청도 남서쪽에 위치한 고도 100m에 이르는 해안 절벽으로, 말그대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아주는 바위다. 오랜 세월 동안 거센 북서풍을 온 몸으로 받아내다 보니 바람을 막는 서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 되었다. 이 특이한 경관이 삼각산과 함께 둘러보면 좋은 ‘삼서트레킹’을 이룬다.

광난두정자각 서풍받이로 향하는 초입에 위치해 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면 광난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싶으면서도 정자각에서 바라본 절경은 황홀에 가깝다.

기름아가리 대청도의 푸른 숲과 서풍받이에서 이어지는 해안선, 드넓게 펼쳐지는 바다가 만나 이루는 대청도의 또 다른 비경이다. ‘기름항아리’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하며, 천혜의 낚시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서풍받이에서 바라본 서쪽 해안 절경



서풍받이에서 바라본 기름아가리

3) 옥죽동 해안사구

우리나라에도 사막이? 대청도 옥죽동(대청3리)에는 ‘한국의 사하라’로 불리는 모래사막이 있다. 오랜 세월 바람에 날려 온 모래알들이 쌓여 골짜기를 이루고 모래물결을 만들었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옥죽동 해안사구

4) 농여해변과 모래울해변

대청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섬답게 아름다운 해변을 품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여해변, 모래울해변, 지두리해변, 옥죽동해변, 미아동해변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해변 중 농여해변과 모래울해변을 소개하고자 한다.



농여해변의 나이테바위

농여해변 백령도와 함께 지질공원을 형성하고 있는 대청도. 그 중에서도 대청도에는 뒤집혀 있거나 서 있는 특이한 지층이 많이 발견된다. 농여해변의 나이테바위도 그 중 하나이다. 각 지층이 다양한 색으로 반복되어 나이테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고목바위라고도 한다.

농여해변의 또 다른 볼거리는 단단한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과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풀등’이다. ‘풀등’이란 썰물 때 물이 빠져 드러나는 모래 언덕을 말한다. 이 풀등에서 바라보는 충청연색 붉은 빛 낙조는 대청도에서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풀등은 대이작도에 있다.



농여해변의 풀등과 낙조

모래울 해변 길이 1km, 너비 100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 멋드러진 해송이 우거져 있는 경관으로 유명한 해변이다. 해변 왼쪽으로는 서풍반이로 이어지는 해안이 펼쳐져 있어 더욱 절경을 이룬다.



모래울해변

모래울해변의 해송은 적송(赤松)으로, 군락지를 이루고 있다. ‘소나무 중에 제일은 적송’이라 할 만큼 귀한 소나무인 적송은 다른 소나무에 비해 나이트가 조밀해 단단한 목재로써 최고 품질로 통한다. 모래울해변에는 이 적송이 아직 150여 그루 남아 있다고 한다.

기린소나무[麒麟松] 모래울해변 소나무 군락지에는 원 순제가 관련된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대청도로 유배온 원 순제가 모래울해변과 소나무 군락지를 산책하며 사색하던 중 이 소나무를 발견하고 “이 곳 소나무들에게 아들을 가져다 주는 ‘기린송’ 이로구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기린소나무

모래울해변 소나무군락지의 수많은 소나무 중에서 기린 형상을 한 소나무를 찾는 숙제는 나름 재미가 있다. 한참을 헤매이다 발견했을 때의 기쁨이 원순제가 발견했을 때의 기분과 같을까. 긴 목을 쪽 뺏고 해변을 바라보며 햇빛을 쬐고 있는 기린 같기도 하고, 소문자 ‘h’ 모양 같기도 한 소나무다.

5) 동백나무 자생복한지

동백나무는 따뜻한 해안과 인접한 곳에서 자라는 상록교목이다. 난대식물 중 가장 북쪽에서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해남, 완도, 여수, 경남 거제 등 남해안 지역과 제주도 등지에서 볼 수 있다. 대청도는 이러한 특징의 동백나무가 자라는 우리나라 최북단 자생지다. 즉 동백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이 대청도인 것인데,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동백나무 자생복한지

3. 맛의 섬, 대청도

‘백령도는 먹고 남고, 대청도는 때고 남고, 소청도는 쓰고 남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청도의 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다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또 가고 싶어질 정도로 맛의 섬이다. 대청도의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당연히 다양한 해산물을 꼽을 수 있는데, 홍어, 우럭, 꽃게는 꼭 한 번 먹어봐야 할 정도다.

이처럼 역사가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대청도. 인천항을 출발해 서해의 망망대해를 지나 저 멀리 대청도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대형 입간판이 보일 때쯤이면 높이 솟은 산봉우리가 배를 휘감아 선진포항으로 이끈다.

이제 대청도로 떠날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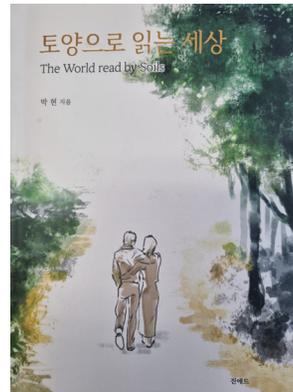
흙으로부터 얻는 삶의 지혜

- 『토양으로 읽는 세상』을 읽고

김국희

토양으로 읽는 세상

박현 저 / 진애드



문학작품의 제목은 그 작품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제목은 그 작품의 표정이다. 작가는 독자들이 제목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에 꼭 맞는 제목을 찾기 위해 고심한다.

작가가 ‘흙’을 제목으로 선택한 고전들이 있다. 이광수 선생의 『흙』, 펄 벅 여사의 『대지』, 박경리 선생의 『토지』 같은 소설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품의 내적 공간이 ‘모성으로서의 대지, 생명들의 시작이면서 끝인 토양, 뿌리가 굳게 박혀 있어서 언제든지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흙’이라는 점이다. 흙의 공간에서 등장인물들은 사랑하고 갈등하고 삶과 죽음을 엮어 간다. 『대지』에서는 땅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의 선과 악, 욕망과 좌절, 생과 멸 같은 운명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토지』에서는 서희와 길상이, 용이와 월선이, 봉순네, 김훈장, 윤보 목수 같은 인물들이 제각기 한을 지니고 땅[토지]에 터하여 정을 매개로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나는 사춘기에 『흙』을 대하고 제목에 마음이 끌렸던 생각이 난다. 스토리는 허송, 정선, 유순 같은 등장인물들 간의 삼각관계, 순박한 시골 처녀의 헌신과 희생, 김갑진 같은 타락한 인간의 방탕과 허세 등등 흥미를 끄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계몽 운동, 조선 훈이나 민족정신 같은 숭고한 가치의 선양, 평범한 사람들의 착한 행동에 대한 긍정 등 사춘기 소년의 여린 마음을 흔들 만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소설이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제목 『흙』에 더욱 호감

을 갖게 된 것은, 이 소설이 내가 태어나 자란 곳과 같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 소설이 지향하는 긍정과 포용, 사랑과 용서, 희생과 헌신 같은 가치들이 제목 ‘흙’에 버무려져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 소설의 제목에 이끌린 독자는 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가 하면 생뚱쭉베리의 『인간의 대지』에서는 지은이는 시인과 작가를 땅을 가는 농부에 비유한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도 나무를 심은 사람은 목동 엘제아르 부피에였지만 나무를 길러 숲을 이루게 한 것은 땅이었다. 모성으로서의 대지가 숲을 키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희망과 미래도 함께 불러왔던 것이다.

이렇게 흙을 제목으로 하고 있거나 흙이 소재가 되고 있는 문학작품을 좋아하고, 여러 번 읽고, 오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흙에 대한 추억이 많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나도 흙이 길러낸 존재의 하나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어렸을 적 우리들 주변은 온통 흙이었다. 초가집도 흙으로 지었고, 마당은 다용도로 쓰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흙으로 특별히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마당의 땅 위에서는 가을에는 타작이 이루어지고, 볼 붉은 고추가 명석 위에서 햇볕바라기를 하고 있기도 했다. 한여름 초저녁에는 흙 마당 위에 널찍하게 밀대방석을 깔고 식구들이 저녁상에 둘러앉아, 애호박을 썰어 넣고 새우젓과 국간장으로 간을 한, 시누와 올케가 함께 만든 맛난 칼국수를 먹었다. 동구 밖 흙길은 비가 오면 질척했고, 고살길을 지나 신작로로 나서면 거기도 흙길이어서 간혹 차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먼지가 구름처럼 일었다. 들에서는 흙이 곡식들을 기르고 있었고, 농부들은 맨발로 흙을 밟으며 땀을 흘렸다.

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형클어져 자라는 잡초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자랐다. 사실이 그랬다. 흙은 식물들, 곡식들을 길러냈고, 우리는 흙이 길러낸 그것들을 먹고 자랐다. 그러므로 흙을 제목으로 품고 있는 소설들에 본능적으로 시선이 끌리고 그 소설들에서 모성을 발견한 것은 그렇게 자란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흙을 모성으로 인식한 것은 선형적인 것, 논리 이전의 느낌에 의한 것이었고, 내 손에 모성으로 ‘만져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엄마를 냄새로 느끼는 아가의 본능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 나에게 이 책 『토양으로 읽는 세상』은 우리가 왜 본능적으로 흙에 이끌리는가를 과학과 인문을 연결시킨 통섭의 차원에서 깨닫게 해 준 책이었다.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왜 『흙』, 『대지』, 『토지』가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갈등과 집념, 삶과 죽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

었다. 나는 이 책을 그렇게 읽었다.

지은이는 토양생태학자이지만 시선을 토양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관점에서 토양을 바라보고, 세상살이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존재로서 흙을 인식하도록 독자들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토양으로 읽는 세상'이다. 부연한다면 토양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토양생태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토양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은이의 의도는 이 책의 각 장의 제목들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소제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책의 제1장의 제목은 '토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고, 제2장은 '시간을 담은 토양', 제3장은 '토양과 결혼 이야기', 제4장은 '토양과 현대 사회', 마지막 제5장은 '토양과 생활'이다. 소제목들 중 몇 개만 뽑아 봐도 '바탕, 문명 발달의 기초, 토양 관상학, 역량 평가, 지혜로운 주연, 신은 디테일에 있다, 빈익빈 부익부, 근목자혹, 장릉의 추억'과 같은 제목들이 등장한다. 지은이는 토양을 생태학이라는 과학의 틀에 가두지 않고 인문과 연결시켜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의 원리를 추적하며 그것들이 실현되는 양상으로서의 삶을 유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토양은 무엇이기 때문에 토양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책을 따라가 보자.

우선 토양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다양한 형성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 왔듯이 말이다. 또한 토양의 세계도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생태계란 생물들이 그들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동시에 생물과 환경 간에도 긴밀한 영향 관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하는 역동적인 복합체이다. 토양의 세계도 수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고, 그들간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통합적인 실체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양 안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속성이나 관계를 살펴보면 삶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토양은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세계가 아니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식물이라는 생명을 보듬어 키우면서, 식물에게는 성장과 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물로부터는 자신을 기름지게 하는 무기물들을 공급받는다.

흙이 키운 이 식물들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의 에너지원이 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먹이사슬의 광대한 출발점이 흙인 것이다. 인류의 고전 『오딧세이아』에서는 이것이 '양식을 대 주는 대지'로 동판(銅版)에 새겨지듯 표현된다. 오딧세우스

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미움을 얻어 풍랑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다음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 겨우 바다에서 강물로 떠밀려 올라온다. “오딧세우스는 강물 밖으로 나와 갈대밭에 쓰러져 양식을 대 주는 대지에 입맞추었다.” 인류의 인문학적 사유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고 하는 『오딧세이아』에서 흙은 이렇게 생명의 근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지은이는 토양이라는 생태계가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럼으로써 건강하고 회복탄력성을 유지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숲이 산불과 같은 재해로 파괴되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땅속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이들의 동반자가 되는 토양의 협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로서의 대지는 이렇게 치유 능력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어머니라고 한다.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식물이 뿌리내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밟고 다니는 땅을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세상으로 여겨지지만, 지면 아래에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 엄청난 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다양성과 포용력, 협력 체계를 통해 강한 생명의 원기를 잉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토양은 인류 문명 발달의 토대가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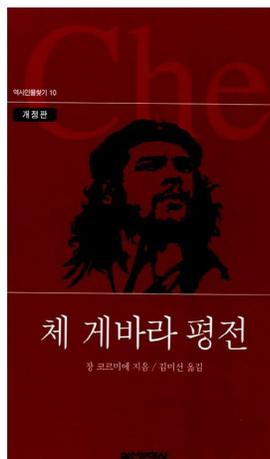
지은이의 말처럼 토양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그것을 본능으로 느낀다.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팜조차 흘리고 싶다.’고 했다. 정지용 시인은 「향수」에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이라고 노래했다. 시인은 꽃 한 송이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이다. 지구상의 생명들은 흙의 젓가슴에서 흐르는 젖을 먹으면서 흙이 키워주는 대로 자란다. 지은이는 토양생태학이라는 도구로 그것을 발견해 냈고, 시인은 영감의 언어로 그것을 형상화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서 천사 같은 소녀인 소냐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더 불행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몰두한다.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 라스코리니코프는 소냐를 사랑하게 되면서 세상의 어떠한 정의도 사랑으로부터 우리나라지 않으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깨달음의 순간 라스코리니코프는 소냐의 발밑에 엎드려 흙에 입맞춤을 한다. 흙은 라스코리니코프의 죄와, 그가 받아야 하는 벌과, 천사 같은 소냐에 대한 사랑과, 소냐의 라스코리니코프에 대한 용서와 사랑까지 모든 것을 감싸 안는다. 엄마가 아가를 품에 끌어 안고 꼭꼭 감싸듯 말이다.

예수를 닮은 라틴아메리카의 돈키호테

- 『체 게바라 평전』을 읽고

김수원(정숙)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 저 / 김미선 역 / 실천문학사출판

책 소개

프랑스 일간지 ‘파르지앵’의 전문기자 장 코르미에가 엮은 체 게바라 평전. 코르미에는 1981년부터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 게바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그려나 전체적으로 조망했다. 체 게바라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 게바라가 쓴 편지글, 게바라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이 책은 프랑스에서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언제나 자기 존재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부정이 행해지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혁명가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리고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또 그는 말했다. “진정한 혁명가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감성에 의해 인도된다.”(p547)

그는 1951년, 친구 알베르토와 함께 남아메리카로 여행했다. 그 여행은 생애에 많은 의미가 있었다. 병들고 가난에 찌든 인디오 원주민들을 접하게 된 횡단 여행은 가난에 착취당하는 남미 사람들의 문제를 고뇌하게 되고 그 영혼에 혁명가의 기질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하인의 시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류사회에 대한 비판과 의료행위를 장사로 이익을 보려하는 행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머니를 채울 것을 찾아 머

리만 굴리는 사람들에게 비교와 비판을 했다. 그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혁명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는 중남미를 주로 여행했고,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를 거쳐 과테말라에 들어갔다. 그는 여행 중 추키카마타 광산에서 위대한 조상들의 태양 사원과 새로운 정복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을 동시에 보게 되었고 그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로 남게 되었다. 그는 잉카의 전설과 아픔을 보았다. 아파체타는 우리의 서낭당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의 토속신앙인 것 같았다. 그 돌무덤에 꽃힌 십자가를 보며 그는 사제의 기만적인 수법을 보았다.

인간의 행위로 신을 논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의식은 신과는 무관하게 정복자의 도구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인디오들이 한때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다는 의식을 망각하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알콜과 콜라에 맛을 들이고 복종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길들여지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닌가. 인디오는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잔해였다. 그 체념은 10여 년간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빼앗기는 것을 반복한 농부의 운명적인 체념과 닮아있다.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체는 “반동적인 폭력에는 혁명의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긴 전투 속에 잘 나타내는 부분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다. 죽음에 이르는 나병 환자를 맨손으로 잡아 진찰하고 그를 수술한 것은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어떤 사람은 체게바라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다. 그의 사진을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그는 20대 초반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의학을 공부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남미여행을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삶을 지켜본 체바라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혁명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상황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했지만, 그의 생애에서 쿠바를 빼놓을 수 없다. 쿠바는 그의 조국은 아니었지만, 그가 간절하게 사랑하는 나라였다. 그의 삶에서 피델 카스트로와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라틴아메리카나 유럽이다.

아르헨티나의 의학도였던 체 게바라는 남미여행을 통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세계의 모순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인류 구원의 문제라 판단하고 쿠바, 콩고, 볼리비아 등지에서 억압받는 민중을 구하려는 마음에 혁명투사

가 되어 파란의 삶을 살다 갔다.

그의 의지는 의사는 몇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지만, 정권을 평화롭게 하면 많은 국민들과 나라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그 말은 편안함이 보장된 의사의 삶을 포기하고 혁명을 외치는 게릴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그가 세상을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가족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본인에게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며 호화스런 생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우직하고 순박한 영혼에 혁명을 가슴에 새긴 젊은이였고 라틴아메리카의 돈키호테였다.

그는 피델 카스트로와 만나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려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라틴아메리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쿠바에서 혁명에 성공했으나 성공하고 나서 보니 바티스타와 개혁에 대한 목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실망했다. 다시 볼리비아 밀림으로 들어가서 혁명을 주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볼리비아 정부군에 잡혀 총살당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제국주의의 착취에 맞서 투쟁했던 혁명가의 꿈은 좌절되었다. 볼리비아의 이름 없는 작은 촌락 라이게라에서 세상을 등졌다. 국가 간의 정쟁으로 39세의 영혼이 맑은 청년의 죽음에 나는 절망의 슬픔을 느꼈다.

자본주의 상품이 된 얼굴

그는 죽었지만, 그의 생각, 업적, 모습은 판매상품으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그는 30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의 모습은 새 시대에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남미에서는 그 이름에 성(聖)을 붙이는데 망설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사후에 더욱 널리 알려졌다. 할리우드에서 세 번씩이나 영화화되었으며 그의 사진은 다방면에 상품화가 되었다. 체와 전혀 상관없는 오스트리아의 스키회사 피셔에서는 “스키의 혁명”이란 문구로 체의 얼굴을 광고 상품으로 썼고,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던 체의 이름이 붙은 술도 시판하고 있다. 스노보드 바닥에도 그의 베레모 쓴 얼굴이 있고 축구공이나 속옷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업적으로 그의 사상과 얼굴은 마구 쓰여 졌다. 쿠바에 가면 관광 상품으로 체 게바라의 얼굴이 찍히지 않은 게 없다. 열쇠고리부터 커피잔, 티셔츠이며 머플러까지 그의 얼굴은 쿠바의 상징으로 상품화되어 있다. 21세기의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의 얼굴이 들어간 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죽은 체 게바라를 다시 별로 띄우고 영웅이 없는 시

대에서 그리움을 채워줄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다.

한동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반공으로 조심스런 책이었다. 이 시대에 다시 읽어보니 자기 나라의 독립도 아닌 세계여행하다 만난 다른 나라 독립을 위해 그 나라 민중들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게릴라가 된 사람이다.

의사란 직업이 있는데도 민중의 행복과 자유를 찾게 해주는 게 건강을 돌보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느끼고 게릴라로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며 투쟁하다 볼리비아 밀림에서 죽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쿠바를 독재에서 독립시키고 그 후에도 볼리비아로 가서 게릴라 활동을 하다 짧은 생의 날개를 접었으나, 그의 행적과 역사는 오늘날에도 곳곳이 남아있다. 그는 낭만주의자였고 시인이고 꿈꾸는 혁명가였다.

쿠바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체 게바라'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 당시 쿠바의 상황

사회주의가 무너진 지가 언제인데 무장투쟁 한다고 밀림으로 들어간 게릴라 지도자의 얘기가 우리 시대에 무슨 울림을 주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누추할 대로 누추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지극히 완벽하고 치열하게 살다 간 한 인간의 드라마 같은 삶의 이야기는 현재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폭풍 같은 충격을 던졌다.

볼리비아 산중 밀림 속에서 적군에 아부하는 농부와 부하들의 배반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다. 옛 동지인 쿠바 대통령 카스트로는 점점 자기주장으로 고집을 부리는 체 게바라의 행동이 부담되었다. 그가 총살로 죽을 때도 외면했다. 결국 미국 KGB나 CIA는 그를 총살로 죽게 했다. 쿠바를 대표해서 해외로 나가 사회주의를 펼쳤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의 소신이 부담스러웠다.

쿠바혁명 정신은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이었고 호세 마르텐 정신을 계승했다. 그러나 독재는 계속되어 체 게바라는 1959년 1월 1일 풀 헨시오 바티스타를 몰아내어 독재정권을 전복시키고 쿠바는 공산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쿠바가 독립하면서 공산국가가 된 것에 분노했다. 소련과의 수교로 미국과 등을 지고 미국은 금수 조치로(엠바고 조치로 경제제재) 미국인인 헤밍웨이도 쿠바에서 추방했다. 쿠바는 미국과 외교도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소련은 쿠바에 핵시설을 설치하고 미국은 본토가 핵시설의 사정권 안에 드는 쿠바의 핵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제거하려 했다. 핵시설 제거를 이유로 미국이 쿠바

를 경제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소련이 쿠바의 동의 없이 쿠바에서 핵을 제거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에 설치된 소련의 탄도미사일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영토 전역이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가서 미국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핵전쟁의 위기를 발생시켰다. 1962년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미국과 소련이 쿠바 미사일 건설로 인해 대립했고, 아찔한 군사적 위기도 있었다.

예수를 닮은 라틴아메리카의 돈키호테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한 중류 가정에서 태어난 체 게바라(에르네스토 게바라데 라 세르나)는 그가 2살 때부터 발병한 천식으로 평생 괴롭힘을 받는 병약한 소년이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이었고 럭비선수가 될 정도로 운동에도 열심이었다.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 민중의 집으로 만들어 굶주린 친구들이나 광부의 아이들, 호텔 노동자의 아이들에게 항상 개방된 집을 제공했다. 그런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부르주아지의 아들로서 안락한 생활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는 자립을 원했고 도서관 사서나 펌프 담당 선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혹은 구두를 팔거나 의무요원으로 해상 상인들의 배에서 노동했다. 그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혁명가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는 스물다섯 살의 생일을 앞두고(1953)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났다. 1953년 과테말라로 갔다. 과테말라는 당시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다. 과테말라 정부의 개혁 방향이 마음에 들었던 게바라는 그곳에서 진정한 혁명가의 길을 모색했다. 그러나 미국 CIA의 사주를 받은 카스티요 아르마 대령에 의해 과테말라 정부는 전복되었다. 그때의 상황을 체는 **‘선한 얼굴의 가면을 쓴 양키들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었다.’**고 말했다 어떤 정부도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존립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테말라의 진보정당이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미국이 진보적 정부를 반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후 멕시코로 간 게바라는 1956년 7월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면서 구체적인 쿠바혁명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해 11월 쿠바에 상륙하여 시에 라마에스트라 산맥을 중심으로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혁명군을 모았다.

1952년 7월 26일~59년 1월 1일까지 카델 카스트, 체 게바라, 라울 카스트로 등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두 차례에 걸친 무장투쟁을 벌여 폴 헨시오 바티스타를 몰아

내고 정권을 잡는 혁명을 하였다. 인민들을 억압하고 부패가 심했던 독재정권을 전복하고 쿠바는 마침내 공산국가가 되었다.

그 뒤 게바라는 쿠바 정부에서 국립은행 총재, 공업장관 등을 역임했고, 공산권과 제3세계를 돌며 모든 종류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외교활동을 벌였다. 이때부터 검은 베레모와 구겨진 군복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베레모와 군복과 군화로 자신을 나타냈다. 혁명 후 체는 대사, 국립은행 총재 등 많은 역할을 했으나 미국의 피그만 침공사건과 미사일 사태 등을 겪는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행정가로서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혁명을 마치고 그가 빠진 곳은 자본주의가 뿌려놓은 경제시스템의 늪이었다. 그가 생각한 공산주의는 허구라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농업을 희생시키면서 지나치게 공업화를 추진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사탕수수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혁명가가 뛰어난 통치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했을 체의 번민이 느껴졌다. 그는 꿈꾸는 사회주의자였다. 세계를 해방으로 이끌려는 의지는 체를 점점 유토피아의 세계로 깊이 밀어 넣었다.

그는 1965년 4월 쿠바에서의 2인 자 자리를 버리고 당시 내전 중이던 아프리카 콩고로 가 콩고혁명을 위해 노력했다. 1년 뒤 게바라는 볼리비아로 숨어 들어갔다. 볼리비아는 남미 5개국과 접경을 이루는 요충지로서 이곳에서의 활동이 혁명의 불씨를 전 남미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쿠바 국립은행 총재 당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던 모습으로 민중에게 강한 인상을 심었던 그가 선택한 삶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목숨을 건 게릴라 활동이었다. 그는 어려운 민중들을 위해 혁명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으나 공산주의를 앞세운 혁명의 지도자는 그의 헌신적인 사상을 이용하기만 했고 끝내는 그를 배신하여 죽게 만들었다.

그는 두 번 결혼했고 두 아내가 모두 게릴라였다. 결혼관은 청교도적으로 남성 위주의 정신이었다. 큰딸(일디타)은 첫째 부인에게서 얻은 딸인데 무척 사랑했다. 딸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세상을 위해 싸웠다고 그는 말했다. 게릴라 전투 중에도 끊임없이 딸과 부인에게 편지로 소통을 하고 혁명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척박한 산악지역에서 천식으로 고생하면서도 그를 극복하고, 밀림 속에서 독극물에 물리며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하는 모습이 눈물겨웠다. 격전지에서도 책을

탐독하고 시를 사랑했다. 전투 중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인술을 펼치는 그가 성인처럼 느껴졌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유일하게 권력을 포기한 사람이나 체 게바라도 역시 권력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쿠바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으로 좋은 삶을 보장 받았으나 마다하고 볼리비아로 떠나 게릴라전을 펼쳤다. 1967년 10월 9일 볼리비아 체코 마을에서 잡혀 미국 정부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 책은 역사서도 정치적 저작물도 아닌 제2의 조국이랄 수 있는 쿠바의 혁명 중 체 게바라의 게릴라 전술을 논했고,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다룬 책이다. 그러나 소설처럼 읽히고 아름다운 논픽션을 읽는 것 같았다. 게바라는 소설과 같은 극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않았다. 스스로 실현해 갔다. 정부군이 1만 2천 명인데 반군은 881명~5700명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으나 반군인 체 게바라가 혁명에 성공한 것이다. 그의 의지는 그만큼 투철했다.

마무리

이 책을 읽고 인간의 혁명적인 소신이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것과 동지로서 한마음이 되어 혁명을 시작했지만, 혁명을 이룬 후, 권력 앞에서는 처음 먹었던 마음이 흐려져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끝까지 권력에 목적을 두지 않고 서민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려고 깊은 산속과 늪지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체 게바라의 39세의 짧은 일생은 놀라울 만치 많은 업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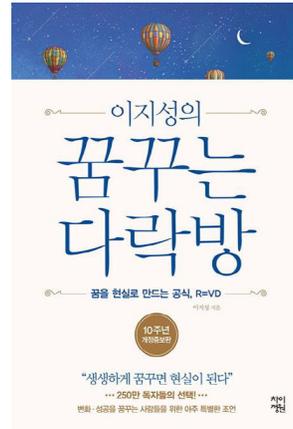
가난에 찌든 민중의 아우성을 두 번의 남미여행에서 눈으로 확인한 뒤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세계의 모순을 치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 혁명가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작가, 시인, 군대 지휘관, 대사, 재무장관, 쿠바 국립은행 총재, 게릴라 전술의 저술가다. 39년이라는 생애를 살며 꿈을 이뤄낸 사람이다.

책을 읽으며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생각한다. 3.1운동, 동학운동, 4.19혁명과 5.16혁명 등 독재정권의 타도를 위해 희생된 선구자들이 떠올랐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그의 정신과 열정, 자신의 안일보다는 민중을 위해 자유를 지키려는 그의 의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꿈꾸는 다락방』을 읽고

이명수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저 / 차이정원

2024년 상반기인 3월에도 어김없이 웅진문화원 회원들에게 마음의 양식인 이지성님의 『꿈꾸는 다락방』 책자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요근래 책다운 책을 읽지 못한 갈증으로 하루 반나절 만에 『꿈꾸는 다락방』 읽기를 완파하였다.

책을 읽는 동안 무언지 모르게 가슴을 조여 왔다가, 밝은 세상이 왔다가, 그동안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못했던 생각과 사상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이 책을 읽기 전에도 다른 책들을 통하여 자기계발서 형식을 띤 자아실현 및 인생설계 지침에 관한 책자를 읽었지만 일목요연하게 R=VD라는 공식을 도출하지 못했다.

(Realization = Vivid Dream)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식,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는 R=VD는 나에게 큰 울림과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을 생생하게 꿈꾸어라, 그러면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명제를 적극 인식하고 활용하면 인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성공을 생생하게 꿈꾸지 않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VD 훈련을 한 때라고 이 책자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성공은 당신의 VD가 결정한다는 명제를 가슴 깊이 인식하여 실천할 때 비로서 성공이 찾아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로 첫째, 꿈을 시각화하는 사진 VD,

둘째 꿈의 현장으로 떠나는 장소 VD, 셋째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소리 VD, 넷째 꿈이 이끄는 대로 쓰는 글 VD를 활용하면 더 나은 꿈이 일찍 성취될 거라고 작가는 확신하고 있다.

한 예로 내가 경험한 VD 사항으로 인천시 과장 시절 시장님을 모시고 문화예술계 인사 100여 명을 위촉하고 행사하는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예술 100인 위원회 개최”라는 막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다. 나는 이 행사를 멋지고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어서 부단한 사전 여행연습과 기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상상 속으로 한 결과 현실에서도 착오 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깔끔히 마친 기억이 난다. 그때는 R=VD라는 공식을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이미 시뮬레이션인 상상을 통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꿈꾸어왔기 때문에 멋지고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꿈꾸는 다락방』 책자를 인생의 모티브로 삼아 인생을 설계하는데 있어 생생한 꿈을 꾸어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꿈을 현실로 적용하는 수단으로 첫째는 개인적인 소망, 둘째는 가족을 위한 소망, 세 번째는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위한 소망으로 개인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생생한 꿈을 펼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작동할 수 있도록 꿈을 현실화하여야겠다.

내 나이 60세 중반으로 비록 큰 꿈을 실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긍정적으로 소소하고 행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상상력을 자주 가져 가족, 사회, 국가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도출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풍요로운 지역 사회 건설에 가치공헌적인 삶을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매년 2번씩 웅진문화원에서 양서보급 운동의 일환으로 보내주는 마음의 양식인 책자를 통해 생각과 마음의 풍요를 살찌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서, 설계서라고 생각하여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 자신이 성장하고 여유로워지는 감정을 느껴 웅진문화원에 감사드린다.

찐 고구마를 동치미와 함께 먹는 방법

-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고

임경남



남한산성

김훈 저 / 학교재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내 유년의 겨울추위는 문고리가 짝짝 달라붙었다. 388년 전, 남한산성의 추위는 오죽했을까? 보급품도 없던 가난한 군사들에게는 어쩌면 적보다 추위가 더 무서웠으리라. 목화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반병사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을 것이다. 저 얼어터진 발로 수십만 청의 기병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가? 군인월급 200만원인 시대에 살아가는 21세기의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야 병자호란에 가 닿을 수 있을까? 남한산성은 오직 소설일 뿐이니 소설로만 읽혀야 한다는 저자의 바람을 무시하고 나는 특별한 각오로 남한산성으로 떠났던 것인데.

“조선시대”

한 왕조가 500년이라니, 이걸 유구한 역사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변화가 없어 고여 있는 단점도 있다라고 가르쳐야 했다. 아무리 변화가 느린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의 사상으로 500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나의 생각만 허용하는 나라에서 다른 생각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가? 조선 사회가 그랬고 주체사상만이 유일한 지금의 북한은 또 어떤가? 유럽은 지리학적으로 밀접하게 붙어 있어 여러 왕조들이 경쟁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랬기 때문에 혁명도 자주 일어났고 유연성 있게

변화를 받아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은 중국이 세계의 전부였다. 우리는 독립국가 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대를 해야 하나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 강하지도 않은 나라가 사대도 하지 않고 뻔대었더라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합병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사대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중국하고는 체급자체가 달라 경쟁 할 수 없다. 그러니 고개 숙이고 어버이나라로 받드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성리학을 건국이념으로 받아드린 조선은 21세기의 우리들에게까지 유교라는 두꺼운 문화의 옷을 입혔다. 얼마 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유명 배우의 죽음 뒤에는 우리 모두가 CCTV같은 눈으로 그의 도덕성을 요구했던 불편한 진실이 한몫 했던 것도 사실이다.

“찌질이 대왕납시오.”

조선시대는 27대 왕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찌질한 왕을 꼽으라면 선조와 인조다. 이들의 공통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점과 아들 세자가 아버지인 왕보다 백성들에게 훨씬 인기가 높았다는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은 구중궁궐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동아시아의 정치역학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지만 아들 세자는 달랐다. 선조의 피난 정부 시절 평양에서 세자 책봉을 받은 광해는 아버지 선조가 의주로 떠나고 평양에 남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를 돌며 민심을 수습했고, 군사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나자 선조는 광해를 세자자리에서 내치고 대신 13번째 아들을 앉히려려고 했다. 또 인조시대의 소현세자는 어떤가? 8년간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이때 함께 끌려간 조선인 50만을 척박한 청나라 땅에서 뿌리내리게 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된 청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변화라는 큰 꿈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아버지 인조에게 독살 당하였다. 찌질하게도 아버지는 아들을 질투했던 것이다.

“정의는 하나가 아니다.”

왕인 인조도, 척화파 김상헌도, 주화파인 최명길도, 각자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인조의 정의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으면서도 명을 향해 망꺽례를 올리는 것

이고, 오랑캐에게는 죽어도 머리를 숙일 수 없다고 주장한, 조선 최고의 근자감을 가진 김상헌의 정의가 있었고, 치욕은 죽음보다 가벼우니 가벼운 것은 견뎌내야 한다는 최명길의 정의가 있었다. 조선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정의는 이렇듯 다르게 해석되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최명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반공이 국시였던 초딩 때나, 독재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말할 수 없었던 20대 초반일 때나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으니까. 변화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변화 속을 온 몸으로 들어가 변화를 볼 줄 아는 최명길이 가지고 있던 겹눈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으로 치자면 김상헌은 지독한 보수주의자고, 최명길은 진보주의자였다. 안타까운 것은 김상헌과 최명길은 신하지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오늘은 김상헌의 말이 옳고 내일은 최명길의 말이 옳다는 인조의 리더십에 독자인 나는 고구마 5개를 먹은 듯 했다.

“고구마 5개를 동치미와 함께 먹는 방법”

아주 오래전 한 소도시의 도서관에서 김훈 작가를 만난 적 있다. 잠바차림의 그는 초췌해 있었고 ‘칼의 노래’ 탈고를 막 마쳤다 했고 자신을 글 쓰는 노동자라 소개했다. 20대 때 난중일기를 통해 이순신을 알게 되었고 언젠가 필력이 닿으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후 30년이 지나 작가가 50대에 이르렀을 때 ‘칼의 노래’를 출간했다. 한 작가의 집념이 400년 전의 고독을 21세기의 우리들 앞에 펼쳐 놓았던 것이다. 저 유명한 절창의 첫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를 읽을 때 등골이 서늘했던 기억이 내게는 있다. 김훈의 문장을 읽을 때 나는 종종 숨이 차다. 분명 적당한 자리에 심표가 있는데도 말이다. 역사적인 사실에는 고구마 5개를 먹는 듯 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작가의 문장은 먹는 재미가 끝내주었다. 글 한상 제대로 대접 받은 기분이었다. 믿고 읽어보는 김훈의 문장이 있어 동치미처럼 위로가 되었다. **“옛터가 먼 병자년의 겨울을 흔들어 깨워, 나는 세계 악에 짓밟히는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무참하였다.”** 매우 김훈스럽다. 분명한 건 후손들에게 길이 남을 한국문단의 우뚝한 작가와 한 시

대를 사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칼의 노래, 자전거 여행1, 2, 흑산, 연필로 쓰기를 읽었다.

“나눔,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홀눈의 리더는 조직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 리더는 겹눈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리더가 있는 조직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누가 리더인지 모르겠는데도 조직원들이 신나 있을 때다. 만약 10층짜리 건물을 조직에 비유한다면 리더는 1층에 앉아서도 전 층을 다 조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말이는 말이의 그릇을, 회장은 회장의 그릇을 가진 자가 운용해야 그 조직은 잘 굴러간다. 남한산성 47일간의 인조는 왕의 그릇이 아니라 한 날 신하의 그릇에도 못 미치는 인물이었다.

진정한 나를 찾아나서는 여행

- 헤르만 헤세 『데미안』

차윤옥



데미안

헤르만 헤세 저 / 민음사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선과 악의 모습을 한 그 신의 이름은 압락서스(아브락사스Abraxas)다.”

많은 사람이, 정확한 출처는 몰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문구다. 헤르만 헤세(1877~1962)는 《데미안》에서 이처럼 강렬하고 혁명적인 문장을 선보였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이 낳은 20세기의 작가이다.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 《유리알 유희》, 《지와 사랑》, 《싯다르타》 등으로 청춘의 고뇌와 휴머니즘을 표현한, 현대 독일에서 최고 작가로 알려졌다.

1946년 ‘성장에 대한 대답하고 관통하는 듯한 묘사, 휴머니즘적 이상과 고도의 스타일에 대한 전범이 되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쓰기’라는 사유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헤세의 소설들을 다시 읽을 생각으로 《데미안》을 꺼내들었다. 《데미안》은 독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인기를 얻은 소설이다. 청소년 시절 대부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수레바퀴 밑에서》 정도는 필독서로 읽고 통과 의례처럼 성장기를 보냈을 것이다.

방탄소년단(BTS)이 《데미안》을 읽고 영감을 받아, 소설의 철학적 세계를 그들의 음악 ‘피, 땀, 눈물’에 녹여내어 젊은이들을 매혹시키며 사로잡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라 젊은이들에게 더욱 친숙해진 작품이다.

헤르만 헤세는 1877년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칼프(Calw)에서 태어났고, 1962년 스위스 몬테놀라에서 영면에 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집안에서는 헤세가 목사의 길을 걷길 기대했으나, 그는 신학교의 엄격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그만 두었다.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적응하지 못한다. 이처럼 청소년기를 힘들게 보내다가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다. 시계공장 잡부, 서점 점원, 시인, 화가, 반전주의자 등 이력만 봐도 그의 고난과 역경을 엿볼 수 있다. 헤세가 작가로서의 삶을 살기까지는 처절한 몸부림과 절규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고향에서 주경야독하며 다양한 독서에 열중한다. 독서와 여행을 하면서 동양 종교에 몰입하기도 한다. 대문호가 되기 위해 어릴 적부터 내면에 숨겨진 작은 유혹들과 부딪히며 처절하게 싸워야 했다. 《데미안》과 《수레바퀴 밑에서》를 그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세계에서 종말의 시작까지

“내 이야기를 하자면,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이전으로 내 유년의 맨 처음까지, 또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리라.”

이 소설은 에밀 싱클레어가 열 살 무렵 때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싱클레어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났다. 비교적 여유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양복점 아들 프란츠 크로머와 불량한 그의 친구들과 어울린다. 싱클레어는 그 아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무용담을 할 때 거짓말로 자기가 과수원집 사과를 훔쳤다고 말한다.

크로머는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겠다고 싱클레어를 협박해 2마르크를 가져오라고 강요한다. 싱클레어는 집 안에서 저금통을 훔치기도 하고, 크로머에게 애원도 하지만 협박은 점점 심해진다. 나중에는 싱클레어의 누나를 데려오라고까지 한다. 싱클레어는 공연히 거짓말을 해서 크로머의 노예가 되고, 휘파람 소리로 인해 공포는 증폭된다. 단순한 거짓말 때문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을 후회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의 학교에 막스 데미안이라는 학생이 전학해 온다. 몸가짐이 마치 농부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 변장한 왕자

님 같다는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한 학년 상급생이다.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머는 더 이상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 이후에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점점 더 가깝게 지낸다. 데미안은 성경에서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붙은 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동안 싱클레어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카인의 표식은 사실 특별한 사람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붙인 두려움의 상징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이다. 싱클레어는 큰 혼란에 빠진다.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오히려 데미안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느낀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고 싱클레어는 방학이 끝나자 다른 도시에 있는 김나지움으로 전학을 가면서 데미안과 헤어진다. 그 학교에서 싱클레어는 알폰소 베크라는 상급생을 만나 방탕한 상황에 빠진다.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소녀를 만나 한눈에 반해 동경하며, 그녀의 이름을 베아트리체로 명명한다. 싱클레어는 그녀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구원을 받아,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다시 과거의 모범적 삶으로 돌아간다. 싱클레어는 짝사랑하는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그리는데, 절반은 여자고 절반은 남자로 몽상적인 모습이 데미안의 얼굴과 닮았다는 걸 알고, 데미안을 더욱 그리워한다.

싱클레어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여러 색깔의 빛을 띤 어떤 새가 하늘을 향해 날려고 날개를 퍼덕이는데 새는 진흙 구덩이에 갇혀 힘겨워한다. 꿈에서 깬 싱클레어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새 그림을 그려서 무작정 데미안에게 보낸다.

수업을 듣던 중 책 속에 무슨 쪽지가 꽂혀있는데,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선과 악의 모습을 한 그 신의 이름은 압락서스(아브락사스)” 라는 신비스런 데미안의 답장이었다.

싱클레어는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던 피스토리우스라는 남자를 만난다. 그는 방황하는 싱클레어에게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멘토 역할을 한다. 아브락사스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이라는 이야기도 해준다. 싱클레어는 그와 만나면서 내면을 성장시켜 나간다.

싱클레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데미안과 재회한다. 그때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도 만난다. 에바 부인과 가까이 지내다가 ‘카인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도 참여한다. 에바 부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데미안과 싱클레어는 각각 참전하면서 다시 헤어진다. 전장에서 부상당해 정신을 잃은 싱클레어는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 싱클레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 옆 침대에 데미안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데미안이 싱클레어 옆으로 와서 다짐하듯 이야기한다. 싱클레어가 부르면 자신은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지 않을 거라며 스스로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 보면 싱클레어 안에 데미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해준다. 싱클레어가 힘들어 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에바 부인이 싱클레어에게 주라고 했다며 데미안이 입을 맞춘다. 싱클레어는 몽롱한 세계로 빠져든다. 다음날 깨어나 옆 침대를 보니, 데미안은 사라지고 다른 환자가 누워있다. 소설은 이렇게 끝난다.

사춘기의 늪에 빠졌던 싱클레어의 성장

이 소설은 나로부터 시작해, 끝까지 나를 향하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경험한 성장의 기록서다. 하지만 단순한 청소년기의 성장소설에 그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곧 하나의 우주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의 심연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파악하고 그 목표지점을 향해 독심 있게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인생이라면, 그렇게 인생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일 역시 보통 일이 아니다. 타고난 성품, 자라온 환경, 교육의 정도,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등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다만 그런 외부의 세계에 조용하며 자신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찰과 깨달음이 필연적이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화자이다. 섬세하지만 순하고 유약한 도련님에 가까운 싱클레어가 성숙하고 신비로운 친구, 데미안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는 일대 파동이 일기 시작한다. 첫 만남 이후 소설이 끝날 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미안은 실상 선구자 혹은 구세주 같은 존재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선과 악’이라는 세계에 대해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집 혹은 생활 안에 이미 밝음과 어두움의 세계가 공존함을 감지했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 단독자로서의 데미안이 위대하기 때문에, 싱클레어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량배 친구 크로머의 꾀에 빠져 도둑질과 거짓말이라는 생애 최초의 갈등을 겪으면서 싱클레어는 선과 악의 세계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좀 더 뚜렷하게 표현하자면, 사춘기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싱

클레어는 도둑질과 거짓말 자체의 나쁨으로 인해 괴로워한다기보다는 그러한 행위에 내재된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좀 더 큰 의미에서 세상의 참 모습, 즉 진리의 맹아를 포착한다.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들이 친밀하게 다가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와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공감하는 이유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별로 거부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 읽을 때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나(한병태)와 엄석대가 오버랩하기도 하고,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부당한 권력에 길들여지던 동물들이 떠오르면서 그 작품들이 교집합을 이루었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는 작품이다.

강렬하고 섬세하게 세계의 균열 혹은 비밀에 다가간 10살 소년은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오가며 한없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첫사랑의 아이콘 ‘베아트리체’라는 순수한 소녀를 향한 연정으로 짝사랑의 병을 심하게 앓기도 한다.

이런 전개 속에서 ‘아브락사스’는 《데미안》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작동한다. 아브락사스는 머리는 수탉, 몸은 인간, 다리는 뱀의 모습을 한 신이다. 괴상한 모양을 한 이 신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어떤 신을 표상한다. 어느 한쪽에 온전히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쪽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거부하는, 흡사 데미안과 비슷하다. 싱클레어에게 이 아브락사스의 존재를 알려준 것 역시 데미안이다.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에게 사랑을 느낀 이후부터는 신비주의 혹은 밀교적인 특징을 보이는 장면들이 이어진다.

“나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이 여인은 아들과 비슷하게 시간도 나이도 없이 영적인 의지가 충만한 얼굴로 내게 친절한 미소를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따스했고 나는 그 목소리에 젖어들었다.”

에바 부인에 대한 싱클레어의 초월적 사랑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현실세계 뒤편에서 나뭇의 도를 찾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싱클레어는 또 다른 세상의 일면을 마주한다. 이 소설이 성장소설일 뿐 아니라 일종의 구도소설로 평가받는 이유도 이러한 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읽으면 문장 여러 곳에 줄을 긋게 된다. 그의 작품 속 대화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한다. 작가의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주인공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고 자신을 일깨워주는 문장은 늘 나를 눈 뜨게 한다. 이 소설에는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는 문장이 많다. 집중해서 읽다보면 재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다.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문장들은 몰랐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자신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그런 문장을 만나면 신나게 밑줄을 긋는다.

다시 처음에 등장시킨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새가 알을 깬다는 것은 곧 투쟁하고, 싸운다는 것이다. 생명이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치열한 싸움 끝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결국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본디 제 내면에 품고 있던 알이자 새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곁껍데기를 깨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다. 에바 부인은 묻는다. 돌이켜 생각해보라고, 그 길이 어렵고 힘들기만 했었느냐고, 아름답지는 않았느냐고 말이다. 이는 치열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을 처음 세상에 내놓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주인공이자 화자인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출판하며, 자신의 작품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판 당시에 《데미안》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싱클레어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처럼 나약하고, 흔들리고, 아프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 개인의 이상이 아닌 집단의 이상을 위해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싱클레어가 부상당하는 장면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해 놓았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장엄한 아치와 반원을 이루며 검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밝은 울림을 내며 곧장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를 찾는 듯했다. 그러더니 포효하면서 수천 개의 불꽃이 되어 흩어졌고 그 바람에 나는 번쩍 들렀다가 다시 바닥으로 나뉘었다.”

개인이 붕괴하고, 기존의 질서와 가치들이 모두 무너지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부상을 입은 싱클레어가 스스로를 깨닫는다는 설정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아마도 제각기 불안하고, 힘든 청춘의 고뇌와 그림에

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자신의 내부에서 일러주는 가르침을 잘 듣고 자신에게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었을까.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서 굴절 없이 온전히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싱클레어는 선의 세계에 살면서 악의 세계를 궁금해 했다. 악의 세계에 빠졌을 때, 데미안에게 구원받고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한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간다. 그렇게 형성된 가치들은 대부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데미안은 우리 스스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한다.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성찰하라고 한다. 고통스러운 투쟁이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알을 깨라고 데미안이 속삭인다.

그 후로 싱클레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아팠지만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자신의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그곳 어두운 거울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럼 싱클레어는 몸을 숙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데미안과 완전히 같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우리 삶이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이라는 말은 니체를 연상시키는 문장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나를 찾아나서는 여행은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일지 모른다.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는 이 작품에는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맛도 담겨 있다. 헤르만 헤세의 일기를 엮은 느낌이 드는 작품에서, 결국 뜨거움과 차가움을 견디며 생생하게 다가오는 생의 기쁨과 아픔은 자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만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데미안을 뵈는다.

일본 삿포로·오타루 자유여행을 다녀와서

곽인화

홋카이도를 향하여

올해 7월에 5박 6일 일정으로 남편과 둘이서 일본의 홋카이도(북해도, 北海道)에 다녀왔다. 홋카이도는 언젠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였다. 보너스 항공권을 약 1년 전에 샀고 숙소도 일찍이 예약했었다. 막상 출발할 때가 다가오자 항공권과 숙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괜찮았다.

출발 당일, 흐리고 비가 왔다. 우리는 8시 45분에 출발하는 삿포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홋카이도는 일본 최북단에 있는 큰 섬으로 크기는 우리나라(남한)의 면적과 비슷하다. 일본 섬 중 하나지만 일본 본토와는 인종, 언어, 문화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홋카이도는 본래 아이누족이 거주하던 땅으로 에조치라고 불렸으며, 1868년 메이지유신(명치유신, 明治維新)이후 일본에 편입되었다. 아이누족은 일본인들과는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와 문화도 다른 소수민족으로, 홋카이도와 일본 북동부인 도호쿠지역, 사할린 남부, 쿠릴열도 등지에 정착해 온 원주민이다. 삿포로는 홋카이도 중에서도 남쪽이고 인구는 약 190만 명이다.

식사가 나올 무렵인데도 “좌석벨트를 계속 매고 있으라.”는 기내 방송이 들렸다. 비행기에서 요즘 많이 발생한다는 난기류를 겪었는데 한번은 비행기가 아래로 쿵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러다가 밥도 못 먹고 내리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다. 출발한 지 2시간 30분 후,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국내선 가는 길에 있는 유명 디저트와 기념품 등을 파는 상점가와 식당가를 둘러보고 숙소로 향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수프 카레로 유명한 식당에서 닭다리 수프 카레를 먹었다. 그 카레는 찌개처럼 국물이 있고 닭다리와 채소가 통째로 나왔는데 국물이 진하고 맛있었다. 오늘 인천은 최고기온이 26도인데 비해 삿포로 날씨는 최고기온이 23도이고 흐렸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홋카이도까지 이동해서인지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다.

모이와야마 전망대와 홋카이도대학 종합박물관

둘째 날, 전날 날씨가 흐려서 오늘로 미뤘던 모이와야마 전망대로 향했다. 시덴(노면전차)에서 내려 10여 분 걸어서 로프웨이(케이블카)가 운행하는 산로쿠역에 도착했다. 걷는 길이 언덕이어서 덥고 힘들 줄 알았는데 그날 최고기온이 24도이고 날씨가 흐려서 덥지는 않았다. 매표소에는 실시간으로 산 정상에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고 경로 할인도 해주었다. 로프웨이를 타고 해발 531m의 전망대에 도착하니 시야가 탁 트이진 않았어도 그럭저럭 삿포로시의 전망을 볼 수 있었다. 내려오는 길에 삿포로에서 라멘으로 유명한 식당에서 새우된장라멘과 만두를 먹었다.

오후에는 홋카이도 종합박물관을 다녀오기 위해 지하철 난보쿠선을 탔다.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물어보자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홋카이도 대학교 정문에서 만난 일본인 대학생은 종합박물관 표지가 보이는 곳까지 직접 동행해 줘서 무척 고맙웠다. 정문에서부터 보이는 키 큰 나무들과 중앙잔디 광장을 가로지르는 사쿠슈코토니강의 풍경은 내가 마치 숲에 와 있는 듯했다. 가는 길 왼쪽에는 클라크 동상이 있었다.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는 삿포로농학교 초대교감이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Boys, be ambitious!(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와 같은 그의 명언은 홋카이도대학의 모토이다.



홋카이도 대학 종합박물관

한참을 걸어서 박물관에 도착했다. 그 건물은 1929년에 건립되어 1999년까지 이학부의 본관으로 사용되었던 교사를 재활용하였다. 140여 년 전, 삿포로 농학교로 개교한 이래 수집·보존·연구되어 온 300만 점 이상에 달하는 표본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성장한 수컷 홀스타인(젓소로 유명한 소의 품종)의 거대한 골격표본이나 매머드의 실물 크기 모형 등 특이한 볼거리가 가득한데 1층에서 3층까지의 전시가 무료이다. 박물관에서 구한 '홋카이도대학 캠퍼스 가이드 지도'를 보고서 조금 전에 내가 걸어온 길이 이 대학의 넓은 면적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았다. 그래서 자전거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많았구나 싶었다.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삿포로 시계탑·삿포로 TV타워



삿포로 시계탑

박물관에서부터 걸어서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에 도착했다. 건물은 비록 공사 중이었지만 부지가 아주 넓고 정원과 연못이 잘 되어 있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홋카이도대학 식물원이 있지만 이미 많이 걸었기에 가지 못하고 카페에서 홋카이도산 신선한 우유와 디저트를 먹으며 쉬었다.

셋째 날, 삿포로 시계탑에 갔다. 건물은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이었던 삿포로 농학교의 연무장(강당)으로 1878년에 건설되었다. 3년 후에 미국식 목조 건물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금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정시마다 울린다. 우리는 시계탑 건물 안으로 입장했다. 1층의 전시를 보고 2층에 올

라가니 연무장의 모습을 복원해 놓았으며 실물 형제 시계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클라크 박사의 동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곳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에 간 삿포로 TV 타워는 오도리 공원 동쪽 끝에 자리한 높이 147.2m의 철탁으로 1956년 TV 전파 송수신 타워로 건설되었다. 삿포로 시가지 어디에서나 타워가 잘 보였는데 가까이 가니 타워 앞에서 단체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TV 타워 전망대에 오르면 오도리 공원과 시내의 풍경을 감상

1. 문예마당

할 수 있다. 오도리 공원 주변은 축제와 이벤트가 자주 열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이날은 삿포로에서의 마지막 밤이라서 숙소 주변인 스키노에 있는 니카 상 주변을 한 바퀴 산책했다. 긴팔을 입었는데도 약간 쌀쌀했다.

오타루 운하와 문화재들

넷째 날, 삿포로역(JR)에서 열차를 타고 오타루에 도착했다. 숙소에 가방을 맡기고 덴구야마 전망대에 올랐다. 케이블카는 작고 오래된 느낌에다 관광객도 모이와야마 전망대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정상에 오르면 오타루 시내와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오타루는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지로 유명한데 이 전망대는 영화의 첫 장면을



덴구산전망대

촬영한 곳이라고 하니 이 장소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오타루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숙소였다. 오타루 운하가 잘 보이도록 운하뷰룸을 예약했었다. 객실은 9층인데 다 앞에 고층 건물이 없어서 유리창 밖으로 바로 앞에 흐르는 운하는 물론 저 멀리 수평선까지 잘 보였다. 호텔 내에 온천도 있어서 2박 3일간 머무는 내내 행복했다.

다섯째 날, 현지인이 주로 이용하는 린유시장을 향해 걸었다. 가는 길에 옛날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창고들은 복원이 잘 되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일어, 영어 뿐 아니라 한글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강화도의 조양방직 건물

이 신문리미술관(카페)으로 재탄생 되었듯이 오타루의 창고 건물도 카페로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 또한 구국철 데미야선 일부 구간의 철도를 그대로 두



오타루 운하

어서 그 길을 산책할 수도 있다. 그밖에도 시내 곳곳에서 문화재를 잘 관리·보존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오타루 (구)우선은행 맞은편에 있는 운하공원을 지나 도착한 곳이 린유시장이었다.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듯 우리 말고 외국인은 보지 못했다. 오후 2시까지 영업하는 식당도 있어서 이곳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을 듯하다. 생선의 종류가 다양하고 크기가 큰 생선도 있었다. 시장 맞은편이 운하가 시작되는 지점이자 끝 지점이다. 그 지점에 가마우지들이 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운하를 따라 걸으며 운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지나가던 일본인이 우리 부부를 찍어주었다. 초등생들도 길에서 어른을 보면 ‘곤니찌와’하면서 지나갔다. 운하의 폭이 넓지 않음에도 나룻배를 타고 오타루 운하를 즐기는 크루즈도 인기였다.

오타루의 명소 기타이치홀

오타루의 명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기타이치가라스 3호관이었다. 이곳은 1890년에 세워진 어업용 창고를 개조한 것이라고 하는데 낡은 목조 건물 안에 자리한 유리공예 상점 겸 카페다. 건물로 들어서면 왼쪽의 글라스숍과 기타이치홀을 나누는 통로에 레일이 깔려 있어서 신기했다. 특히 이 카페는 167개의 석유램프가 켜지는 카페인 기타이치홀로 유명하다. 전기가 보급되지 않던 당시, 생활의 필수품이었던 석유램프를 생산하던 것이 기타이치가라스의 시초로 석유램프는 이곳의 상징과도 같다. 오래된 목조 건물 안에 은은한 석유램프 불빛이 가득한 분위기가 정겨웠다. 이 밖에도 오타루 여행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오르골 본당과 디저트로 유명한 상점에도 다녀왔다.



석유램프등



기타이치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며



숙소에서 보이는 운하부

삿포로에서는 오전 4시가 넘으면 해가 뜨곤 했는데 오타루의 일출도 4시 8분, 일몰 7시 15분으로 우리나라보다 1시간 이상 일찍이 해가 뜨고 졌다. 이번 여행 기간 내내 공항은 물론 어디서나 한국인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하면 그 사람도 한국인이었음을 알게 된 때가 여러 번 있을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이 많았다. 로밍 없이 유심도 없이 다녔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 볼일이 생겼을 때는 남편이 일본어로 물어보았다. 그래도 몇 가지 불편한 일이 있긴 했다. 삿포로의 숙소에 체크인할 때 직원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이 통역해주었다. 오타루 역에 내렸을 때도 공항에 갈 기차를 예약해야 할지 말지를 묻고 싶었다. 겨우 역내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물어봤는데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다. 다음 자유여행때 로밍이든 유심이든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이 훨씬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삿포로 여행 시, 보통은 비에이·후라노 투어를 하고 음식은 양꼬치, 카이센동 등을 먹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도 충분했다. 삿포로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려 본래는 겨울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삿포로를 여름에 와보니 한국보다 덥지 않아서 여름 여행지로도 제격이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소설 『빙점』의 저자 미우라아야꼬 문학관에 다녀오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여행의 장점인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쉬고 싶을 때 쉬었으니 이것으로 만족한다. 내 나이와 건강을 생각할 때 이런 자유여행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쓸쓸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번 여행도 참 좋았다.



오타루 운하를 배경으로

태동철 원장님 모자가 멋있었다

- 2024년 하반기 문화유적탐방을 다녀와서

이지영

처음에는 망설였다. 강릉은 여러 번 다녀왔고, 강릉이면 뻔한 일정일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당신은 이번 문화유적탐방 어떻게 거예요?”

“가야지, 신청해요.”

옆지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면 가야지 뭐, 바늘 가는데 실 안 따라 갈까...’

그렇게 웅진문화원 하반기 강릉문화유적탐방에 옆지기와 함께 참여하였다.

반가운 얼굴, 어설피게 알고 지내면서도 소식이 궁금했던 얼굴들이 보인다. 오랜만의 만남이 반가워 끌어안고, 손잡고, 잠깐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버스에 오른다. 버스는 두 대, 아침 식사로 나눠 받은 김밥이 맛있다. 웅진문화학교 상반기 동기가 오늘 저녁 방을 함께 쓰게 되었다면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반갑고 정겹다. 참여하기를 잘했네.

오랜만에 만난 강릉은 그냥 보아도 관광도시다.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가 새삼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밝은 쪽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었나 봐요”

옆지기도 같은 생각이란다.

그런데 오죽헌은 탐방 참여 여부를 망설였던 것이 민망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달라진 것인지 입구에서부터 낯설었다. 그리고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서야 많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이가 팔십 문턱이라는 해설사 선생님은 관록이 있어 보였고, 막힘이 없다. ‘부럽네...’ 막힘없는 해설에 집중하며 ‘나도 역사 공부해 보고 싶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부터 읽어볼까?’ 잠시 잠깐, 그동안 잠자고 있던 가슴이 뛰었다.

오죽헌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해설사가 왜곡 또는 부족한 해설을 해 주었는지 현판 이야기에서부터 내가 몰랐거나 다른 부분이 있었다.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고무되었다. 그렇게 마음이 들떠서 는 남에게 뒤질세라 앞장서서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다녔다.

해설을 듣는 일행 중에서 옆지기를 못 보았기에 해설을 잘 들었는지 옆지기에게 묻는다. 그리고 때마침 전화를 받느라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옆지기에게 으스댄다.

“울곡 선생 생가에 왜 오죽헌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지 알아요?”

옆지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새삼 묻느냐는 듯 소년처럼 웃는다. 그래도 새삼 묻는 것에 의도가 있다고 느꼈는지 머뭇거리며, “오(烏)짜는 까마귀 오(烏) 짜지…?” 한다.

내가 빠르게 말을 끊었다. “당신도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는 새롭게 알게 되어 흥미로웠던 내용을 무작정 옆지기에게 쏟아부었다.

“오죽헌은 권초균이라는 사람의 호라네요.”

“권초균? 권초균이 누구야?”

“신사임당 어머니 외손주 중 하나… 신사임당 어머니가 신사임당을 포함하여 딸만 다섯을 낳았대요. 당신 그거 몰랐죠?”

“아~ 그 시절에 딸만 다섯을 낳았으면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우리 시어머니 아들 낳기 전에 딸만 내리 다섯 낳으시고 미역국도 못 얻어 드시며 시집살이하셨다는 슬픈 사연이 문득 생각나는 순간이다. 우리 시어머니는 옆지기를 낳고서야 비로소 미역국을 얻어 자셨단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사임당 어머니가 시집을 오실 때 노비를 150명 데리고 왔다고 해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노비이야기는 기록에 있대네요.”

“와~ 하긴 그 당시는 노비도 재산이었지”

“그 다섯 딸 중에 신사임당이 있고 또 하나의 딸이 그 당시 세도가 중 하나인 안동 권씨네로 시집을 갔는데 딸 다섯이 시집을 갈 때 각자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땅과 집이 남았는데, 울곡 선생 여섯 살 때 땅과 살던 집은 울곡 선생에게 상속을 해 주며 제사를 부탁했고, 울곡 선생의 생가는 안동 권씨에게 시집간 딸이 막 출산한 아들 권초균에게 산소 관리를 부탁하며 상속을 해 주었대요.”

후에 권초균이 강릉에 와서 사는데 자기가 사는 집을 마을 사람들이 이진사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치 않아 본인의 호를 오죽헌이라 짓고 그 호를 현판으로 만들어 붙여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당신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죠? 모두가 다 아는 역사 이야기보다 나는 이런 뒷이야기가 더 재미있더라.”

짧지 않은 수다가 공연히 어색하다.

“그런데에~ 들은 이야기 잊지 않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도 인지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방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겠지요?”

옆지기가 미소로 답하고, 나는 으스스한 민망함을 웃음으로 면해 보고자 한다. 우리 부부가 모처럼 건설적으로 눈 맞춤을 하는 순간이었다.

선교장은 드나드는 첫머리의 활래정 연지(蓮池)에 ‘연잎이 많아졌나...’ 하는 느낌 말고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았다. 예전의 선교장 방문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 늦은 시기였던가 보다. 그리고 하나 더, 여인들이 드나드는 문 앞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이 새롭다. 이것이 새롭다면 기억의 한계이겠지?

예전 방문 때는 집 뒤 둔덕을 거닐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번 일정은 시간이 촉박하다. 혹시 또다시 방문하는 기회가 있다면 하룻밤을 묵어가면 어떨까?

여러 차례 왔었던 강릉에서 허균, 허난설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허균, 허난설헌은 남매라는 것, 허균은 홍길동전을 썼고 허난설헌은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여성이었다는 정도의 지식으로 두 분에 대하여 무심했던 나에게, 이번 허균, 허난설헌 탐방은 큰 선물이 되었다. 특히 허난설헌의 기구한 이야기는 메말라 있던 나의 감성을 적셔주었다.

허난설헌의 이름은 초희, 호는 난설헌... 아버지는 물론이고 형제들이 모두 글 잘 쓰는 문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났고 집안의 개방된 배려로 안동 김씨 김성립과 혼인하기 전 열다섯살까지 마음껏 글 쓰고 그림 그리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혼인 후에, 남편은 늙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허난설헌은 그림이며 글쓰기에 능하니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는 등 힘든 생활을 하며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더구나 나이 어린 아들, 딸을 돌림병으로 잃고, 임신 중이던 셋째 아이마저 잃는

등 슬프고 불행한 생활을 하던 허난설헌이 나이 스물일곱에 요절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다.

‘아~ 나이 스물일곱이면... 너무 아깝다.’

기념공원 초입에 있는 허균, 허난설헌 기념관은 한 번쯤 둘러보라는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꼭 가보고 싶었다. 그 시절에 조선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그 이름을 떨친 분이러니 왜 아니 궁금할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허씨 문장 시비(詩碑)는 스치는 눈길로 훑어보며 기념관으로 들어섰다. 생각보다 넓지 않았고 시간에 쫓겨서인지 이런저런 그림이며 문장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허난설헌의 친필도 아니고 인쇄물로 번역해 놓은 시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시를 읽으며 짧은 순간 나는 허난설헌과 같은 마음이 되어 가슴이 울컥하였다. 아니, 이 무슨 일인가 이제 나이 들어 감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시 한 구절에 울컥하다니...

나는 상기되어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잠시 전의 경험을 옆지기에겐 전한다.

“여보 내가 기념관에서 허난설헌의 시 하나를 읽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 닿네요. 내가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영문을 모르는 옆지기는 영겁결에 들을 준비를 하고, 나는 서둘러 시를 읽는다.

“나의 집은 강릉 땅 돌 쌓인 갯가로 문 앞의 강물에서 비단 옷을 빨았어요. 아침이면...”

이 대목에서 갑자기 목이 메었다. 그 와중에 무엇에 들킨 듯 부끄러웠다. 재빠르게 수습하려 애를 썼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감출 수가 없었다. 의아해하는 옆지기를 외면하고 읽던 구절을 다시 읽는다.

“아침이면 한가롭게 목란배 매어 놓고 짝지어 나는 원앙새만 부럽게 보았어요.”

옆지기에겐 뜻밖의 모습을 보인 것이 겹연쩍고 부끄러웠다. 이제 나이가 들어 희망이 없으니 가슴 뭉칠 일도 없다고, 늘 아쉬움 깊이 담아 하소연하면서 지내왔는데 뜻밖에도 뜻밖의 장소에서 가슴이 뛰며 감성이 터지는 경험을 하였다. 모두가 노인이라고 불러주는 칠십 초입에서 나는 희망을 본 것일까? 이 나이에 시 한 구절로 목이 메었으니 말이다.

이번 문화유적탐방이 뻔한 일정일 것이라 지레 생각하고 참여를 망설였던 것이 무색하게 나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이번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허균을 포함하

여 허난설헌에 관한 내용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다시 허균, 허난설헌기념공원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관람하여야 할 장소는 많지 않은 듯 보였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다.

그리고 이번 탐방길에 나는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하였다. 예전부터 관심은 있었지만 내가 역사 이야기를 그냥도 아니고,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된 것이다.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설사 만큼은 아니어도(그 정도면 더 좋겠지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역사 관련 책을 많이 읽어보기로 했다.

나에게는 너무도 유익하였기에 이번 하반기 강릉 문화유적탐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웅진문화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뻔한 일정일 것이라 미리 짐작하고 탐방 참여를 망설였던 것을 사과드리며... 그리고 앞으로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는 원장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어본다.

아, 그리고 문득 생각나는 한 분이 있다. 탐방을 마치고 헤어질 즈음 버스 안에서 기행문 작성을 독려하시며, 쓸 내용이 없으면 “태동철 모자가 멋있었다.”라는 글이라도 써보라고 말씀하셨던 태동철 원장님이다.

탐방 일 내내 모자는 물론, 모자를 쓰신 태동철 원장님도 멋있었다!

호주·뉴질랜드 기행문

태동철

목련꽃이 송고미를 뽐내듯 눈부시게 피어나고 철쭉꽃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사월 중순, 계간문예작가님들 33명이 해외문학 연수 차 떠나는 길에 동참했다. 4월 16일 오후 9시 40분에 Flight No. QF88편에 탑승, 오후 10시 30분에 이륙, 호주 시드니 공항 행, 비행거리 11,277km를 고공 36,000Ft에서 시속 987km로 날아가고 있다. 앞으로 10시간은 비행한다는 화면이 뜬다.

오후 11시경 닭고기 곁들인 기내식이 나왔다. 겸하여 포도주 한 잔의 맛. 옆에 자리한 아내와 포도주 한 잔, 여행의 맛, 짜릿하게 취기가 오르며 행복감에 취한다. Plise One More Wine. OK, Thank you!

생각한다. 어느 자식 놈이 이 기분을 느끼게 해 줄까? 고공 비행길에 마시는 포도주 한 잔의 맛, 나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사자의 삶이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다. 2024년 4월 17일 오전 9시 40분에 호주 시드니 공항에 안착했다. 입국수속은 자동인식이다. 여권을 사람 키 정도 패널에 밀어 넣으면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지나면 얼굴 사진이 찍히도록 장치를 해놓고, 내 얼굴 사진 찍히자 또 문이 열리고 드디어 입국 통과다. 가방검사는 수월히 지나갔다.

현지 가이드를 만나 버스에 오르니 오전 11시다. 여행사 가이드 김영철님이 인사한다. 중년에 무게감이 있어 보였다. 첫 코스로 동물원에 간다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삼성건설이 시공한 12.2km 길이로 왕복 4차선 지하터널이다. 한국의 토목시공 능력이 자랑스러웠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다 만기 퇴직한 나로서는 자랑스럽고 감회가 깊다. 동물원에 볼거리는 침팬지와 캥거루, 원숭이다. 넓은 동물 우리에는 그들의 생태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 동물들이 자유자재로 놀게 하였다. 캥거루족은 한국에도 번성하고 있다는 증론에 캥거루 가슴 속을 보고 또 보고. 세계 삼

대 미항이라는 시드니에서 관광객으로 존재하는 나는 참으로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에 전신이 다 뿌듯했다. 잘 살고 있어 동철이!

시드니는 호주 대륙 남동쪽 남위 34도에 위치하며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항구며 New South Wales 주의 주도다. 기온은 평균 13℃에서 17℃라고 한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같이 맑고 선선하며 상쾌했다. 호주 개척시대에 형성된 도시다. 2000년도에 세계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호주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2,103㎢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코발트 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조개 껍질형의 오페라하우스는 도시 미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다음 코스는 블루마운틴, 해발 1,000m 협곡으로 안내한다.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거리에 있으며 차로 1시간 30분 이동거리다. 유칼립투스 나무숲이 울창하며 나무 몸통은 흰색이다. 성장할수록 껍질이 벗겨지고 짙은 갈색이 하늘에 오르면, 햇빛을 받으면 그 앞에서 나오는 기체가 푸른빛을 띠고 안개처럼 퍼져나가 협곡 주위가 파란 물결을 이룬다. 그래서 블루마운틴이라고 한다. 그 기체 성분은 항산화성분으로 인체에도 유익하다고 한다.

그곳은 화산 지각 변동에 의하여 다양한 협곡이 형성된 곳이지만 그 협곡에 숲을 이루고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의 작용으로 늘 그곳 공기층 대기가 푸르기 때문에 블루(Blue) 마운틴이라 한다고 안내한다.

버스가 꾸불꾸불 산 중턱까지 올라와 우리를 풀어 놓는다. 높이 1,544m 길이 1,300m가 된 협곡을 8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로 우리를 실어서 산과 산 협곡을 가로질러 오르고 오른다. 90도 경사진 협곡을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니 스틸 만점이다.

특히나 철도 레일로 만들어진 철로 선을 따라 35여 명을 태운 객차 같은 화물칸이 60도 각진 협곡을 타고 오르는 그 동력에 비례하여 스틸과 불안감, 안전사고 위험에 한동안 멍했다. 이 시설은 과거 이곳에서 석탄 채굴하여 그 석탄을 운반하던 시설을 개조, 관광객을 석탄 실 듯 실어서 운반 했다고 한다.

그 스틸을 맛보고 나오니 협곡 군데군데 석탄 캐던 석탄 동굴이 보인다. 지표에 석탄도 노출되어 있다. 이곳 석탄은 양질의 석탄으로 한국에서도 수요의 상당량을 수입했다고 한다. 그 협곡 전망대에서 저 멀리 바라보는 세 자매 바위 협곡은 설화가 있다. 그 설화는 마왕이 그 세 자매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알고 그 세

자매가 주술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주술사는 잠시 이 세 자매를 바위로 변신하여 숨겼는데, 마왕이 그 주술사를 없애 버렸다. 그 주술사가 그 세 자매 바위를 본래 사람으로 다시 되돌려 놓지 못하여 죽어서 저렇게 수천 년 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세상 여기 저기 마왕도 있고 주술사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인간사는 도처에 그들의 신화가 있다지만 이 좋은 산천에도 마왕이 도사리고 있음에 언행을 조심하였다.

높고 깊은 협곡에서 맑고 푸른 공기를 마시고 스릴 넘치는 오르내림의 협곡 관광을 즐기고 양고기 뷔페로 저녁 들고 호텔 Mercure Parrmatta에 여장을 풀고 폭 잤다.

여행 두 번째 날,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맑음이다. 오늘은 시드니 동부 외곽 지대에 위치한 더들리페이지를 돌아보았다. 유태인이 가지고 있던 집인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시드니 시내를 푸른빛 바다와 하늘, 하버브릿지,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타워, 파삐용 탈출 절벽이 한 눈에 보이는 관광명소로 소유자인 유태인은 이 명소를 시민들이 공유하여 다 같이 즐기자는 마음에서 국가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서 시드니를 한 눈에 바라보며 즐기고 있다. 생각해보니 미항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하여 기부문화가 만들어낸 공익가치의 결과물임이 증언한다.

영국 출신 호주의 작가로 1973년에 폭풍의 눈(THE EYE OF THE STORM)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고장의 문호 Patrick White(1912.5.~1990.9.)가 살던 집을 찾아 나섰다. 주소는 20 Martin Road, Centennial Park in Sydney다. 넓은 공원인 Centennial Park를 북향에 두고 2차선 도로를 접한 북향집이다. 2층이다. 이곳 시드니 집 유형대로 앞 남향에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고 뒷면 북향에는 대문과 출입 계단이 있다. 이 집 좌우로 같은 형의 집들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다.

이 집은 페트릭 화이트가 1964년부터 죽을 때까지 26년간 살던 집이다. 집 입구 벽에 동판으로 문패를 박아놓았다. 우리 일행은 저마다 방문 기념사진 찍기에 시끌벅적 분주하다. 나는 바로 도로 옆, 저 넓은 공원의 풍경에 삶의 질을 생각하고 있었다. 선진국 국민의 삶이 이런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의 삶이 우리네 소망이다. 이 집 입구 벽면에 동판으로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더 페트릭 화이트 하우스 = Patrick White(1912~1990) House

20 마틴로드, 센티니얼 파크

이 집은 1964년부터 사망 할 때까지 26년 동안 페트릭 화이트와 그의 파트너 Manoly Lascaris와 같이 살고 있던 집이다. 페트릭 화이트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로 간주되며 그는 호주 최초이자 유일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남아있다. 집, 센티니얼 공원 및 주변 지역은 백인의 후기 주요 소설과 연극의 사건과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패트릭 화이트와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이 집은 뉴 사우스 웨일즈 사람들과 국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1977년 새로운 문화유산법에 따라 주 문화유산등록부에 등재되었다.

원래 “하이보리(Highbury)로 알려진 이 집은 20세기 초 센티니얼 공원 서쪽 경계구역에 지어 졌다. 보석상인 William Kerr를 위해 1913년경에 스프리의 저명한 건축가인 William Nixon 씨의 디자인으로 건설되었다. 이 집은 연방 방갈로 스타일 주택의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 이 집에 관련된 잔영을 가슴에 안고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 내지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 지를 생각하였다.

2005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입학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이 학교에서 문학 공부 열심히 하여 노벨 문학상 받도록 하겠다는 혈기 찬 의지를 떠 올리면서 아직도 그 열정은 살아있다 스스로 다짐해 본다.

다음 행선지인 본다이 해변가(Bondi Beach)로 갔다. 태평양 연안의 서핑 명소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라는 현지인들의 말 그대로 태평양의 높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힌다. 그 파도 속에 서퍼들은 신나게 파도를 희롱하며 놀고 있다.

여기는 늦가을 날씨, 한국은 이른 봄, 좀 추운 날씨인데 바다에 들어 물놀이 하는 젊은이들이 다수 있고, 해변 언덕에 위치한 공원에서는 팬츠 바람에 갖가지 운동기구를 이용해 체력 운동하는 시니어들이 많다. 여성들은 비키니 차림의 육체미를 보란 듯 초원의 말들처럼 달리기 하는 초원의 젊은 말들의 생기가 전염된 듯 풍만한 육체미는 태평양 파도 같이 내 가슴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우리는 해변을 배경으로 한 사진 몇 장 찍으며 삶의 질을 생각했다.

삶의 동력은 저 파도같이 끊임없이 두드리고 부딪히고, 초원의 말 같은 육체미로 다져진 활력으로 건강미 넘치게 살아야 해! 삶의 질이다.

다음은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미술관에 갔다. 모두가 무료입장이다. 국민복지가 이렇게 이뤄진다. 이 미술관은 1882년에 개관한 4층 규모의 전시장으로 고풍스럽다. 우리는 페트릭 화이트 작가의 친구 Roy De Maistre (1894.3.~1969.3.) 작품을 위주로 관람했다. 이 사람은 화이트 보다 18년 연상의 나이로 그와는 동성연애자였다. 이 화가의 그림 <정원 안의 모습>이란 그림은 지적이고 미학적으로 화이트의 멘토가 되었다. 화이트의 또 한 친구는 Francis Bacon 인데 이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후손으로 신학, 미학, 철학 등 지적 탐구에 방황하다 피카소의 그림에 매혹되어 화가로 변신 안착하고 화이트의 친구가 되었으며, 그의 그림으로 유명한 것은 1944년에 발표한 <십자가 체형을 위한 세 습작>의 구상화다. 그는 술 취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화이트가 1973년 노벨상 수상을 망설일 때 화이트 대신 가서 받아왔다고 전해진다. 화이트는 당시 재정적 여유로 이들의 작품을 사서 수장하고 있다가 1974년 이곳 미술관에 전부 기증하였다고 하며 오늘 우리가 그 그림들을 관람하고 있다.

관람 중에 내 눈을 끈 것은 피카소의 작품 <Nude in Rocking Charie>다. 피카소의 작품 중 <나르는 연인들>과 함께 피카소다운 명작이라 생각하며 감상했다. 여기서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생물이기에 사라지지만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남아서, 살아서 영생하는구나. 그래 내 이름 이어갈 내 작품은?’ 깊이 고민하면서 미술관을 나서는 발길이 무거웠다.

호주인들은 역사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고 한다. 죄인들을 수용했던 땅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안내자의 말 속에 여행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의 참 맛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이동 중인 도로가에 유도화가 화사하다. 유도화는 독성이 강하여 묘지 옆에 심는다고 한다. 묘지 옆에는 실버타운이 근접해 있다. 또한 치매환자를 안고 있는 병원도 묘지 옆에 있다. 묘지는 늘 사람 사는 근접에 있다. 묘지에 꽃 올리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상의 예의이기 때문에 묘지에 꽃다발이 많다. 그래서 묘지는 접근성

이 좋게 되어 있다. 묘는 봉분 보다 대리석으로 평장에 추모할 비석을 세우고 있다.

호주의 의료 복지는 완벽에 가깝게 유지 발전하고 있다. 보건 위생은 모두 예방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으로 담배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 값이 한 갑에 한화로 6만 원 상당하고, 관광객의 소지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호주의 의학계에서는 6개의 의학 노벨상을 받았는데 4개가 예방의학 분야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광활한 대륙을 하루 이틀 관광으로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일정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갔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제쳐 두고 그 겉모습을 보러갔다. 마침 한국인 안내자가 나와서 그 건축 비화나 유지 관리 등 외형에 대한 이야기와 내부 좌석 배치음향의 조화 등 기능과 건축 양식의 특이성 때문에 유네스코 역사적 유물로 등재된 문화재라고 소개한다. 객석은 2,560석이며 음향은 그 내부가 유칼립투스 나무로 장식되어 울림 없이 음향이 고루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건축 비화는 1957년 국제 설계공모전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옴 우촌의 설계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그 외부 지붕은 조개껍질이나 요트의 하얀 돛을 형상화 했다거나 오렌지 조각에 의한 디자인이라는 설도 있다.

1973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에 의하여 정식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레퍼토리는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in Concert”를 Sydney Symphony Orchestra가 공연한다 하였다. 우리는 그 내부 좌석 배치 상황과 외모의 모습만 보고 나왔다.

하버브릿지 구경. 시드니 항구 바다를 가로질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한 다리 1,149m 길이에 폭은 왕복 4차선 도로를 품고 있다. 싱글 아치형(Single arch) 다리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라 하는데 우리나라 인천대교만 못한 것 같았다. 다리 외각에 다양한 조명 장치를 하여 밤에는 현란한 빛으로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고 했다.

시드니 시내 명소라는 곳 관광 후 호텔에 들어와 문학 세미나 시간을 가졌다. 호주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페트릭 화이트 작품 『전차를 모는 기수들』을 읽은 독후감에서부터 이정희 시인 발표, 화이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시인들 하나하나 나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했다. 나는 내 시 「팔미도 벼랑」을 낭독했다.

팔미도는 인천 앞 바다를 지키는 팔미도 등대를 품고 있는데, 그 벼랑은 흠 한 점 없다. 그러나 돌계의 안식처도 되고, 승어의 산란처도 되며, 물질한 갈매기의 쉼터도 된다. 해서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오체투지로 그 벼랑에 경의를 표한다. 이는 이를 지켜본 내가 내 삶에 환치시키려는 은유다.

*

이로서 호주 관광 일정 2일을 마치고 내일은 뉴질랜드로 떠난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호주 대륙의 극히 일부인 시드니를 돌아보고 호주 기행문이라는 제목이 부끄럽다. 다음 기회는 칸베라, 멜본, 카인스 등 좀 더 넓은 곳을 다녀보고 싶다.

호주 당국의 신뢰성 행정, 약품 관리에 믿음을 두고 이곳에서 생산된다는 혈관 청결치료제를 구입하였다. 약효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한다. 내 오래된 혈관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해서 젊음을 회복하여 다시 이곳을 찾아와야겠다.

여행 4일,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맑다. 시드니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로 간다. 비행기 QF137 편으로 5시간 비행한다. 뉴질랜드 남섬이다.

5시에 기상하여 6시 30분에 식사하고 7시 20분에 버스타고 비행장에 가서 탑승 수속하여 10시 20분에 탑승, 11시에 출발, 5시간 비행하여 현지시간 오후 4시 40분 도착하였다. 여기서도 시차가 2시간 있다.

비행은 TasMan 바다를 가로질러 날고 있다. Tasman은 1642년에 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네덜란드 사람이다. 점심으로 기내식이다. 닭 살코기에 포도주 곁들인 점심, 맛있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행복감이 충만해진다. 니체가 말한다. 내 삶은 내가 산다. 초인의 삶은 회귀한다. 좋은 생각, 삶의 가치는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오늘 비행기는 좌석 6인씩 30줄, 180명 좌석이 만석이다. 공항 화물 검색 중에 삶은 달걀이 나와서 이곳 법규에 어긋나 뉴질랜드 화폐로 400\$ 벌금 물고 창피했다. 19일 새벽에 간식으로 준비했던 것을 잊고 그대로 짐 속에 넣고 와서 검색에 걸렸다. 창피한 것도 창피지만 내 사고(思考)의 연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노화현상

에 서글퍼졌다. 나로 인하여 일행 움직임이 30분 늦어졌다.

세계 3대 피오르드 지역의 한 곳이다. 이런 현상을 직접 보고 관찰하려고 왔다. 이 나라 교육제도는 초등 6학년 동안에는 지식 주입 교육보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사회 규범, 체력 단련, 각자의 취미생활, 이웃과의 소통, 잘 어우러져 잘 노는 일,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특히 부모의 자녀 교육에 차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자연 환경에 유해한 일은 용서 받지 못한다고 한다. 공장이 없단다.

오늘의 관광은 남섬 중간에 위치한 크라이스트처치 자연 경관이다. 도시의 태반이 정원이나 자연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 정원의 도시다. 우람한 나무들 사이사이 우아하고 고풍스런 영국식 고딕 식민지식 건축 양식과 근대의 웅장한 건축물이 도시를 균형 있게 꾸민 고전적 도시였다. 로얄 보타닉 가든, 헤글리 공원을 둘러보니 우람한 나무들이 공원을 메웠다. 시민들이 걷고 뛰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자유분방하게 공원을 이용한다. 연어회로 저녁을 들고 숙소에 들었는데 숙소가 길옆이라 소음이 컸다.

관광 5일 째, 2024년 4월 20일 싱그러운 공기 내음에 잠이 깼다. 더운 물에 목욕으로 그간의 여독을 풀고 숙소 앞 공원을 산책했다. 아내와 손잡고 거니는 공원길 이곳 공기만큼이나 싱그럽고 아름답드리나무들 뿌리만큼이나 우리 삶이 건강하여 행복했다.

아침 시간 여유롭게 즐기며 9시에 버스를 타고 Southern Alps 대자연을 보고 대평원을 가로질러 여왕의 도시 Queenstown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퀸스타운은 남섬 남극 쪽에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650km 내려간다. Queenstown 남섬 오타고 지방 내륙의 와카티푸 호수 기슭에 위치하며 주위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아름답고 웅장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 빅토리아 여왕 궁전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도시며 인구는 14천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인근에 와카티푸호수, 밀포드사운드, 호머터널, 피오르드랜드, 다우터풀 사운드 등 관광 산업도시다.

가는 길 중간 중간 구릉진 초원 위에 양떼들이 구더기 꿈틀대듯 무리지어 풀 뜯은 장면에서 목축업의 발전을 가늠했다. 우유, 치즈, 초유, 양털, 양가죽 옷 등 대평원은 신성하고 위대했다. 목장마다 방풍림 나무의 질서는 청정 그 자체며 생명의 근본이다. 짧은 날 사우디 사막을 6, 7시간 내달려도 풀 한 포기 구경 못하던 그 사

막의 붉은 바위를 저 푸른 방풍나무 아래 초원의 푸르름과 비교하며 내 삶의 푸르름을 스스로 격려했다.

소는 500평에 1마리, 양은 200평에 3마리 기준으로 목장을 관리 유지한다. 여기는 먼지가 없다. 화학 연료가 없다. 해풍이 없다. 배수가 잘 된다. 햇빛이 좋다. 사람들 심성이 좋아 법이 없다.

북섬은 화산 작용으로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섬이고 지금도 불의 고리 위에 있다. 반면 남섬은 바다가 융기하여 생긴 대륙이다.

빙하가 녹아 만들어 낸 깊고 푸른 옥빛 데카보 호수 옆에서 점심으로 생선 튀김과 감자튀김을 들고 또 버스 이동이다. 버스 이동 중에 나는 니체 형님에 대한 이야기와 아모르파티에 대하여 내 삶의 지론을 강설하였다. 사람 누구나 이 고해에 나와서 소설 같은 삶을 이어 가는데 마음먹기에 따른 의지의 삶이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이 과제가 내 삶이다.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다. 내 심중에 자리 잡은 꽃같이 살아가자. 꽃다운 인생살이를! 그렇게 살고 있다.

점점 눈에 들어오는 만년설이 뒤덮은 마운트 쿡 산 무리들이 보인다. 마운트 쿡 설경을 사진에 담으려고 너도 나도 사진 찍기에 수선스럽다. 마운트 쿡 설경 아래 트래킹 코스에 접어들어 우리 모두는 1시간의 여유로 마운트 쿡 아래 트래킹에 들어갔다. 아내와 함께 걷은 세계적 자연 경관에 마음이 충만했다. 나, 잘 살고 있다. 저 만년설 같이 변함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련다.

이어서 옛날의 금광촌 엘로우타운을 둘러보고 그 시대 1860년대의 황금기는 제행무상의 순리에 따라 지금은 그 정취만 남아있고, 그들은 모두 지워졌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43m의 번지 점프하는 곳인 점프 카와라우 시설을 둘러보았다. 10년만 젊었어도 저 시설에서 뛰어 내리고 싶었다.

저녁을 중국식으로 몇 가지 요리로 맛있게 들고 숙소 Copthorne Lake Front Hotel에 여장을 풀고 곤한 잠을 달랬다.

여행 6일 째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맑다. 남섬 최고의 장관 Fiord park, Milford sound 보러갔다. 위치는 남섬 남동쪽 하단 피오르드 파크에서 Tasman 바다와 연결된 U자형 협곡이다. 4시에 기상하여 5시 30분에 버스로 출발했다. 2시간 달려와서 Alpine Center Cafe에서 7시 40분에 빵 도시락으로 아침을 들고 또 평

원을 달린다. 여기는 하루 200mm 비가 220일 온다. 배수도 잘된다. 화산 용암석 이므로 침엽수가 뻣뻣하다. 다행이 오늘 비가 안 와서 피오르드와 밀포드 사운드를 관광하게 되었다. 삼대의 적덕이다.

피오르드는 화산 작용 시 용기 침식 작용에서 떨어져 나간 협곡에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후미진 바다고, 사운드는 빙하물에 의하여 땅이 꺼져 나간 협곡이다. 세계적으로 피오르드는 3군데 있다.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이다. 여기 뉴질랜드 남섬, 피오르드, 만년설이 숨 쉬고 있는 해발 3,000m 고봉들이 즐비한 국립공원 에 그린 계곡, Monkey Creek에 와 있다.

그 협곡 사이에 거울호수가 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듯 호수 수면에 비쳐진 주위 피오르드 산 정상 모습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물이 참 맑다. 청정 그 자체다. 날이 좋아서 밀포드 사운드 유람선을 타고 빙하가 만들어낸 U자형 협곡을 오고가며 대자연의 신비로운 작품을 감상하며 선상에 차려진 각종의 요리로 점심 들면서 여기저기 눈에 들어오는 폭포, 만년설, 협곡을 돌아본다.

아마도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 지금이 천국, 극락이 아닌가? 자문 하면서 이 자리 저 자리에 폼 잡으며 사진 찍기에 세월이 만년설만큼이나 청정하다. 배가 움직이는 동태를 살펴보니 위도에 따라 바다의 깊이와 해로의 상태가 화면에 뜨며 해상 안전에도 좋고, 바다 속 깊이 들여다보아서 좋고 인간이 자연을 희롱하는 것 같아서 숙연했다.

특히나 최고 2,000m 위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스틸링 폭포를 배가 가까이 가며 눈여겨보란다. 이를 제대로 감상하면 10년 젊어진다고 홍보한다. 이곳은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1억만 년 전 태고적 자연에 그대로 흠뻑 젖어본 하루였다. 보웬 폭포, 코끼리산, 마이터 픽, 사자산, 물개 바위 등을 돌아보고 퀸스톤에 도착해서 어제 묵었던 숙소에 들었다.

오늘 선상 밀포드 사운드 관광에서 남위 44도 36분 585 / 동경 167도 51분 995 / 신선들이 들고 나는 물 깊이 106m에서 22m / 산 높이 2,000m 3,000m / 봉우리마다 산봉우리 품고 봉우리는 흰 꼬갈 모자에 신선인양 위엄 있게 천하를 내려다보고 봉우리마다 폭포를 품고 봉우리 마다 저 잘난 맛에 하늘을 향하여 나요, 나 손짓한다. 그 안에 나도 한몫했다. 이쯤에서 나도 신선으로 불려다오.

1. 문예마당

어제의 마운트 쿡 지대는 황토 빛 민둥산인데, 오늘은 파아란 이끼산이다. 왜, 다른가? 내 삶과 이웃들의 삶이 왜? 다른가? 생각을 했다.

남위 45도에 와 있다. 밀 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해발 970m에 호머 터널이 있다. 길이는 1,270m다. 일방통행이다. 이곳의 부자인 호머씨가 사비로 18년간 인력으로 터널을 뚫었다. 해서 통행료가 없다. 자연 유산이다. 출구 앞에 구름과 바위와 암벽에 이끼 낀 협곡이 조화롭다. 자연의 위용이다. 한 인간의 삶도 이렇게 좋은 일을 터널에 남기고 간다. 추억 속에 행복이 많은 삶이 행복이다. 밀포드 사운드 뱃길에서 스틸링 폭포 주위 해도를 보았다. 위도 남위 44도 39분 981 / 경도 167도 55분 281 / 깊이 154m에서 190m. 지금 여기 시각은 2024년 4월 21일 12시 37분 30초이다.

여행 7일 차 2024년 4월 22일 월요일 맑다. 오늘은 북섬 오크랜드로 간다. 비행은 오전 10시 35분에 출항하여 12시 25분에 도착, 점심 들고 뉴질랜드 최대 유황도시 로토루아(RotoRua)로 간다.

위치는 북섬 중간 오크랜드 동남쪽 200km 지점이며 지구 지열의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인 화산 지층판에 놓인 이 도시는 유황 냄새를 품고 지열이 담긴 수증기가 지상으로 내 뿜는다. 이 지열이 여기저기 연기처럼 솟아낸다.

여기저기 주택 안에서도 지열과 함께 유황가스가 나온다. 이런 집은 당국이 구입하며 이사 비용도 대주고 이주시킨다고 한다. 도시가 유황 냄새다. 지진 불판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심장은 어떤가? 이 불판 위에서도 반듯한 도시를 이루고 잘살고 있다. 인간의 자연 적응력은 참으로 기적이다.

ROTORUA(Te ROTORua Unia Kahaumatamome, 두번째 위대한 도시)는 면적이2,615㎢에 인구는 68,200명, 해발 280m에 오크랜드 남동쪽 230km에 위치하고, 화산으로 지열 발전의 시설이 되어있고, Maori민족 문화의 중심 도시다. 이 도시명이 품고 있는 의미는 현지인의 언어 표현으로 보면 ROTO(호수)며, RUA(둘)을 의미하고, Kahaumatamomoe(고대 탐험가)이며, 마오리족의 추장이다. 이 도시에 마오리 족의 종족인 아라와(Te Arawa)족이 살고 있었는데, 1870년대 유럽인들이 전입해 오고, 1880년에 호수 Lake ROTOMAHANA에서 간헐천이 솟아나 관광산업이 시작되었고, 1886년 6월 10일에 타라와라 산의 화산 폭발로 150

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3개의 마오리족 마을이 파괴되고, 일부는 지금 Tupuma Whara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오늘 관광할 마오리족 집단 마을(The Living Maori Village)이 여기 Tupuna Whara 지역이다. 이 도시에 1908년 정부에서 유황 온천장을 개설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이 Polynesian Spa 유황 온천장에서 온천욕 하였다. 화산 지열의 여파로 유황 온천수가 분출하여 옥외 온천욕을 즐기게 만든 시설에서 1시간 동안 몸을 담갔다. 온천욕 물의 온도는 섭씨 39도에서 41도 사이에 각자 선택하여 들어가는데 나는 41도에서 즐겼다. 특히 나는 발톱에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번 유황 온천욕으로 말끔해졌다.

아내와 함께하는 야외 온천욕은 여행의 백미다. 감사한다. 다양한 외국인관광객들도 유황 온천욕을 즐기며 시끌시끌 흥겨운 이야기들이 뜨겁다.

여행 8일 차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맑다. 북섬의 중심 도시 로투루아에 양 농장과 마오리족 민속촌을 둘러보다. 뉴질랜드 전통 농장에서 양들과 놀았다. 아크로돔(Agrodome) 농장에서 개들이 양떼를 모는 쇼를 한다. 단순히 양 목이 개와 팔려갈 때의 목이 개, 양들의 문제아를 잡은 개, 대자연 속에서 인간과 양떼들과 개, 초원의 풀, 물, 공기 그 모두가 소통 순환 속의 삶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있음을 배웠다. 양털 깎기 시범에서 양털도 부위에 따라 값이 다름을 알았다. 이어서 초원의 양들과 놀았다.

먹이를 손에 쥐고 양들 앞에서면 주는 대로 받아먹은 놈, 악착같이 먹이 달라고 매달리는 놈, 먹이 주는 나와 관계없이 초원의 풀에만 관심 있는 놈, 양들이 가진 성격도 제 각각 다양했다.

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어우러져 먹이 뜯은 모습이 장관이다. 산업이다. 농장에서 제공한 팜투어 자동차를 타고 농장을 순회하며 목장의 생태를 살펴보았다. 이곳은 여우나 사자 같이 양을 해치는 동물이 없어서 낮은 담장에 방목해도 좋다. 돼지는 양을 해치지 않아서 같이 한 우리에서 키운다.

이어서 스카이라인 콘도라를 타고 해발 900m 산정에 올라 시내를 전망하고 그곳에 차려진 뷔페로 점심 들고, 여유롭게 그 산속을 관찰했다. 우리네 말로 고사리가 많다. 무성하다. 이 나라 국장(國章)에 고사리 잎을 새겨 넣었다. 그 이유는 밤에

1. 문예마당

은빛 고사리 잎에 달빛이 비치면 반사된 빛이 길 안내자 역할을 했다. 길을 밝혀주는 자연 식물이므로 그들의 삶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길라잡이의 상징으로 고사리 잎을 국장으로 쓴다. 지혜롭다.

점심 후 로투루아(ROTROUA, 두 번째 위대한 호수) 시내에 있는 와카레와(Whakarewarewa) 마오리 민속촌(Maori Village)에 갔다. 이곳 원주민 마오리족이 한 마을을 이루고 그들의 문화, 풍습을 지키며 그들대로 사는 마을이다. 이곳 간판이 Tupuna Whara Cancostral Meeting Hous로 되어 있다.

이 마오리족은 약 300년 전부터 이곳 북섬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다. 화산 폭발로 150년 전에 이곳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현재 가구 수 25세대다. 이 마을에서는 마오리 말만 사용한다.

이곳도 화산 지열이 여기저기서 연기 같이 피어오른다. 이 지열 몇 군데에서는 지열 위에 돌을 쌓아놓고 그 돌에 음식을 놓고 있으면 음식이 익어서 요리하는 노상에 공동체 솥(?)이 있다. 이를 항이(Hangi)라 한다. 이 돌에 전도되는 지열의 온도는 섭씨 45도 이상이다. 또한 50m 거리 떨어진 곳에 화산 지하의 간헐천(Geyser)이 솟아오르고 있다. 순간순간 그 압력에 따라 솟구치는 높이가 50m에서 100m에 이르는 간헐천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화산 불판 위에서 화산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불판 위에서 살고 있는 마오리족 마을 모습을 둘러보고 그들의 풍습을 알려고 노력했다.

이 사람들의 인사말은 키아오라(Kia Ora, 안녕)이다. 이들은 몸에 문신을 하는데 왼쪽은 어머니 혈통을 오른쪽은 아버지 혈통 문신을, 이마에는 자기 업적을 새겨 넣는다. 마을 공동체 안에 큰 회관이 있는데 이 회관에서는 조상들과의 교감, 동시감응(同時感應) 제례를 모시며 조상 숭배 정신이 굳건히 이어져온다. 샤머니즘(Samanism)이 강하다. 결혼은 아무나 마음 맞으면 한다. 구전문화가 있다. 우리는 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자유롭게 들어왔다. 마침 그 회관에서 집회하고 나오던 마오리 사람들 20여 명을 만나서 “Kiaora(안녕)” 인사말을 나누고 그들이 합창하여 부르는 그들의 노래 Pokarekare ana를 따라 부르며 그들이 떠난 후 우리들은 우리의 “연가”를 합창하였다.

이 포카레카 아나 노래는 1950년 6·25전쟁 시 뉴질랜드 군인들이 그 중에는 마

오리족 군인들이 많이 참전하여 전투하면서 부르게 되어 한국에 유행하고 그 번안 가요가 나왔다. 오늘 저녁은 구시공관 자리에서 뷔페식 저녁으로 앉은 자리에서 마오리족의 노래 쇼를 관람한다. 입장 시 모자를 벗고, 색안경 벗고, 인물상이 확실해야 한다. 우리의 번안 가요 연가(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가 이곳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민요 “Pokarekare ana”를 번안한 것이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 흥미롭다. 넓은 식당 안에 여러 팀의 관광객들이 몰려와 식사하면서 마오리족의 놀이 무대를 본다. 무대가 낮고 좁으며 그들의 긴장한 외모에 비하여 연출은 알맹이 없이 별로였다. 오늘의 관광은 유황 온천으로 매끄럽게 잘 보냈다. 감사한다.

관광 9일째,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맑다. 오늘은 세계 8대 불가사의한 존재로 이름 올린 반딧불 동굴에 간다고 5시에 일어나 6시 20분에 식사하고 6시 30분에 출발했다. 동굴 안에 있는 생물인 반딧불의 동물 생태 보전을 위하여 하루에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고 한다.

요즘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들 보다 앞서 가야 한다고 서둔다. 3시간 달려서 9시 20분에 왔다. 벌써 한 팀이 들어갔다. 동굴 이름은 Waitomo Caves 동굴이다. 현지 마오리족 언어로 Wai(물)이라고 하고, Tomo(구멍)라 해서 물이 있는 동굴이다. 이 동굴은 1887년에 원주민 마오리족 촌장 타네틱노라익과 영국인 측량사 프레이드 메이스가 발견하고, 1987년에 일반에 공개, 관광 상품으로 개방하였다. 그 수입은 마오리족 관습에 따라 마오리족이 공동 분배한다.

동굴 안은 희미한 조명으로 겨우 조심스럽게 다닐 정도의 밝기다. 동굴 폭은 약 7m~8m 정도이고 깊다. 천정에는 아래를 향하여 길이 3m에서 1m 정도의 종류석이 나뭇가지인양 다양한 모습으로 늘어서 천정에 매달려 있다. 종류석은 1cm 자라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동굴에는 Glowworm(빛을 내는 곤충, 반딧불의 유충) 애벌레가 동굴 천정에 균락을 이루고 서식하여 그 빛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 별빛 같이 총총 빛난다고 하여 현지어로 아카리노캄피루비사노라 부르는 동굴이다.

관광 해설사의 말에 의하면 이 동굴은 3천만 년 전에 바다 밑 해륙봉이 지각변동으로 용기되어 지상에 올라온 지형으로 생겨난 것이다. 동굴 지면엔 곳곳에 물고기 뼈며, 조개껍질 등 바다 밑 생물들의 화석이 고스란히 묻혀 있으므로 알 수 있다. 바

다 속에서 치 받쳐온 석회 동굴이다. 동굴의 길이는 250m에서 300m이고, 넓이는 10m에서 15m 정도고, 높이는 5m 내지 10m되는데, 표면은 고르지 않고 종류적으로 열기설기 늘어져 있어 그 높이는 가늠하기 어렵다. 동굴 안에는 폭 5m 정도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그 강물 따라 배를 이용하여 동굴 속 천정의 불빛을 관찰했다.

한 100m 정도 걸어가면서 동굴 형태를 살펴보고 좀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동굴 속 강물에 떠있는 보트를 타고 밖으로 연결된 밧줄을 조금씩 잡아당겨 배를 끌고 가면서 동굴 속 천정에 붙어 있는 애벌레 빛을 관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동굴 관광이었다. 동굴 속 천정의 그 빛들이 마치 우리네 밤하늘의 은하수 별빛 같이 해맑게 총총하였다

이 애벌레의 관찰 결과 알 상태에서 4주간에 애벌레가 되고 이 애벌레 형태로 6개월에서 8개월 산다. 애벌레 때 입에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거미줄같이 밑으로 뻗어 나와 먹이를 낚아채서 먹고 살다가 성충이 되어 입이 없어져 먹을 수가 없게 되면 신속하게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은 뒤 스스로 애벌레의 먹이가 되어 일생을 마친다고 한다. 그런데 애벌레 상태일 때 먹이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몸 쪼갠 상태에서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밤하늘 별빛 같이 무리지어 밝고 깨끗한 빛을 내는 것이 신비스럽다. 그래서 세계 8대 불가사의 한 항목에 올랐다고 한다.

이런 때 시적(詩的) 표현이 요구되는데,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언어의 표현력 구사나 본인의 시적 은유가 없는 듯, 그 부족함에 허만 차며 그저 신비함에 고개만 끄덕였다. 인공 빛 한 점 없이 애벌레 빛만 가득, 그 빛에 황홀하여 총총한 빛만 바라보며 100m 정도 나오니 동굴 출구에 닿았다.

참 신비한 동굴이다. 저세상 내가 가야 할 곳을 사전 답사하고 온 기분이었다. 동굴 천정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저 애벌레, 너는 전생에 무엇이었느냐? 와이모토 동굴 속 반딧불에서 그 신비한 불에서 내 앞 날의 길을 찾아보았다. “셋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다음은 레드우드(Red Wood Grove) 삼림욕장에 들어갔다. 나무 표피가 붉은색이다. 나무 둘레가 4m에서 6, 7m에 이르는 나무들이 하늘높이 솟아있다. 그 높이는 어림잡아 100m이다. 이런 나무들이 뻑뻑하다. 울창하다. 하늘이 안 보인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50만 평에 이른다고 한다. 참으로 장관이다. 여기는 “쥬라기

공원” 시리즈 ‘잃어버린 세계’의 촬영지라고 한다. 땅을 밟은 발의 촉감이 레드카펫을 걷은 느낌이다.

오크랜드 시내관광에서 마이클 조셉 세비지 수상 기념공원을 돌아보고, 오크랜드 남, 북을 연결하는 하버 브릿지를 조망하고, 그곳의 고급 주택지인 미션베이를 돌아보고 숙소에 들었다. 오늘의 숙소는 공항인근의 Holiday Inn Auckland Airport Hotel이다.

관광 10일째, 귀국길에 오르는 날 2024년 4월 25일이다. 새벽 2시 30분에 기상하여 3시 30분에 오크랜드 공항에서 호주 시드니행 QF140편 비행기로 2,159km를 오전 6시 30분에 출발, 2시간 45분 비행하여 시드니 공항에 와서 시드니에서 QF087편 비행기로 시드니 시간 오전 10시 10분에 인천공항을 향하여 비행한다. 인천에는 2024년 4월 25일 저녁 8시 30분 도착 예정이다.

꼭두새벽부터 움직인다. 여행의 진미다. 여행, 참 좋다. 국내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여행은 일상에서의 일탈이다. 여행은 살아있음을 다방면으로 증언하고 있다.

새로움을 향하여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있게 먹어도 보고, 낯선 이들과의 어울림에서 친밀함과 소외함을 체득하고, 나와의 다름을 체험하고, 육신의 그 모두를 총동원하여 나를 알게 하는 여행. 그 좋음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에 나, 행복하다.

첫째 심신의 건강이요. 둘째 시간과 경제의 자유요. 셋째 함께 어울림의 유유상종의 무리요. 넷째 아내와의 동행에서 그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함께한 이들이 나를 받기니 행복하다.

앞으로 이 축복을 깊이 감사하며 더욱 삶에 정진하겠다.

서각



사무사(思無邪)

김홍중



신심(信心)

김홍중

서각



덕불고필유린
(德不孤必有隣)

박용만



수(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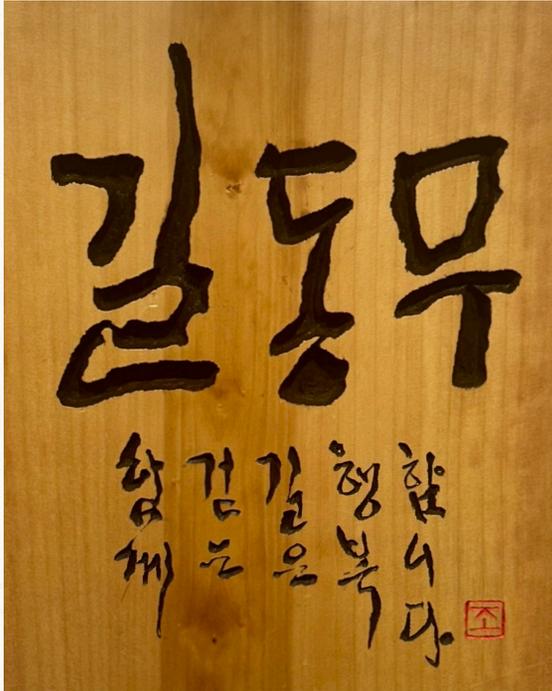
박용만



후오덕(厚吾德)

박용만

서각



길동무
조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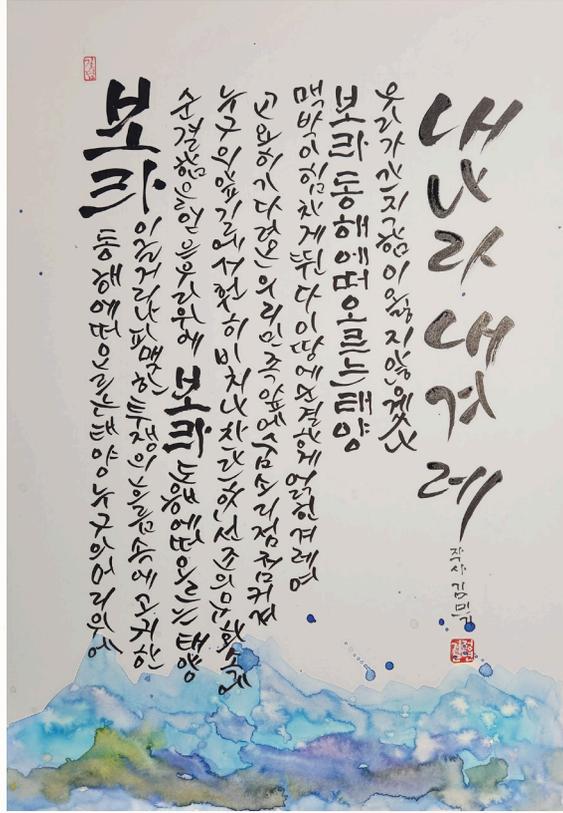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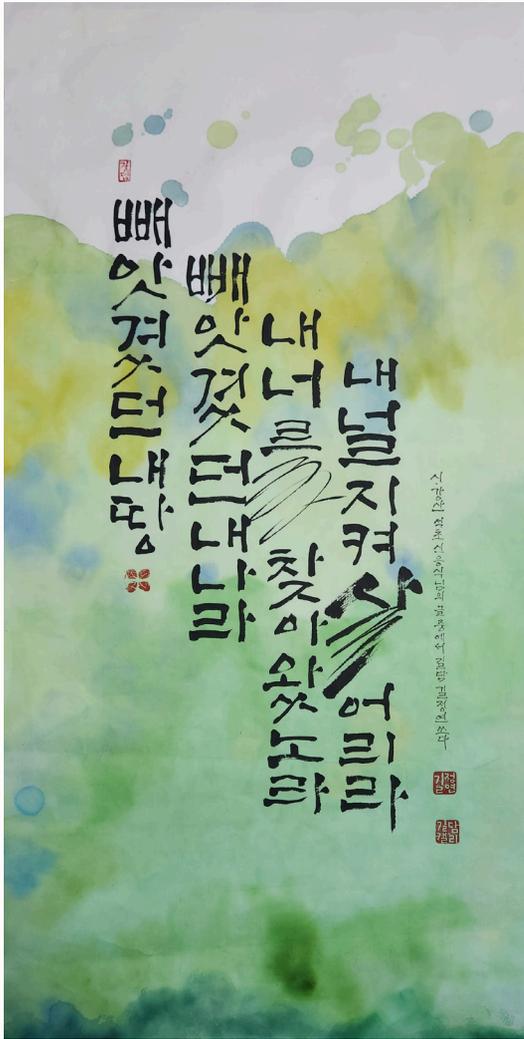
멀리보라
조재식



불이선(不二禪)
조재식

캘리그래피

길정연



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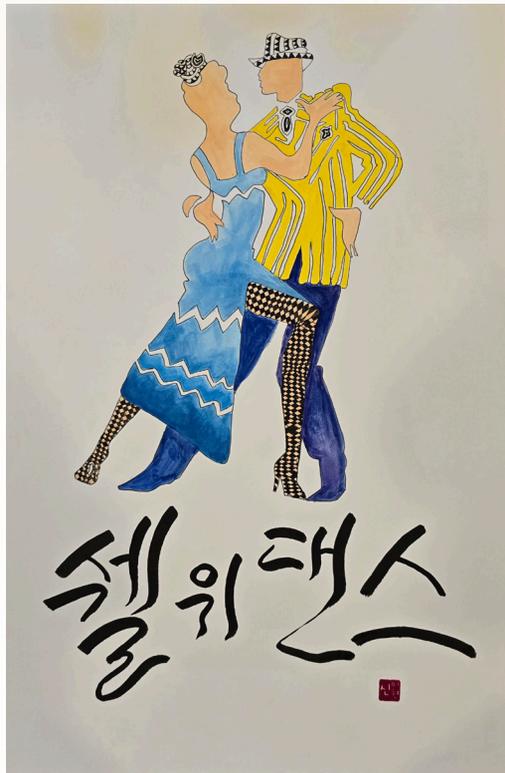
김수원(정숙)



캘리그래피

신미현

1. 문예마당



캘리그래피

육광자



그림

송지인(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6학년)



초저녁

그림

전미선

보이지 않는 세계-승리의 노래 The unseen world-Song of Victory

72.7x53.0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예술은 세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이다.”

현대 사회의 빠르게 발전해 가는 물질문명의 이기가 보이는 것들에 욕망케 하지만 그 욕망에 비례해 결핍은 더해지고 있는듯하다.

나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감각의 확장으로 이 세상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두 세계의 공존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서 존재(신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며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대한 심상을 메타포(Metaphor)로 고백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에너지는 상호 작용을 하며 우주의 조화를 이루어 간다.

팬데믹이란 힘든 과정을 지내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상생에 관해 좀 더 깊은 의식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랑의 힘’은 ‘기적’이란 놀라운 세계를 체험케 하며 기쁨에 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경이로운 시간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2024년 9월 In Kairos

사진

정규영

대이작도 장골아래
독특한 형상의 바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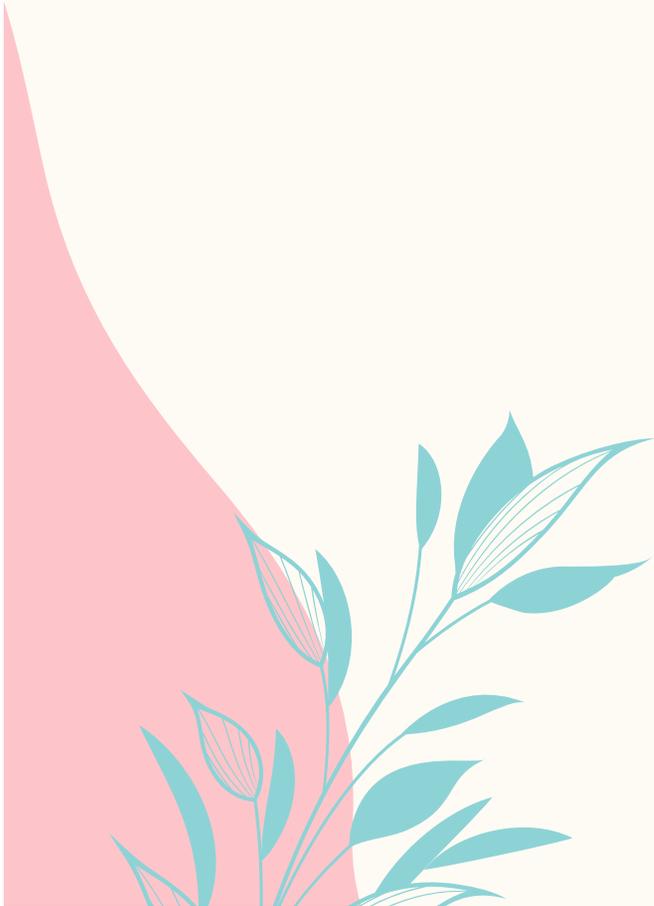
사람 형상 바위



조개 형상 바위



짐승 형상 바위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 ▶ 북도면 - 시도 화살탑
- ▶ 연평면 - 처음 건립했던 서방파제의 기점표석
- ▶ 백령면 - 백령진장선정비
- ▶ 대청면 - 소청도 등대
- ▶ 덕적면 - 능동의 전설
- ▶ 자월면 - 자월도 장골의 옛 수레길
- ▶ 영흥면 - 왕씨 묘비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시도(矢島) 화살탑

북도면 소재지인 시도리(矢島里-살섬) 당재 너머 노루메기 잠수도로(潛水道路) 입구 왼쪽 언덕 위에는 약 2.5m 높이의 화살탑[石鏃塔-석촉탑]이 서 있다. 이 화살탑을 보는 순간 살섬이라는 지명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화살탑이 이 섬의 상징임을 짐작하게 된다.



시도 화살탑 조사

본래 살섬의 옛 지명은 고서(古書)에도 거도(居島) 또는 거을도(居乙島) 등으로 표기되어 전해져 오다가 시도(矢島)라고 불리면서 옛 화살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섬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도 또는 거을도가 시도가 된 데에 대하여 『웅진군지』 역사편 중 각 면의 역사적 변천 북도면조 345쪽에서 “임진왜란이 진행 중이던 선조 31년(1598)에 왜군의 침입으로 남해안 목장으로부터 전마(戰馬)의 조달이 어렵게 되자 거을도를 비롯한 경기, 황해, 평안, 함경 소재 목장에서 전마 조달을 논의한 사실(선조실록 98, 31년 3월 을유조)” 등의 기록과 시도라고 부르게 된 유래에 대하여 “시도는 원래 살섬이라고 불렀는데 그 음을 따라 한자로 쓴 것이 거도(居島) 또는 거을도(居乙島)이고 그 뜻에 따라 한자로 쓴 것이 시도(矢島)인 것이다.”라는 등 시도의 지명을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원로들로부터 전하는 이곳 지명은 화살과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유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이곳 북도면의 유인도(有人島)를 비롯한 많은 섬들은 고구려 시대부터 강화도에 속해 있었는데 예부터 강화도 마니산(摩尼山) 부근에는 궁도장(弓道場)이 있어 활 쏘는 군사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활 쏘는 목표지점을 궁도장과 마주치는 섬인 살섬으로 정하고 이곳을 향하여 활을 쏘았기 때문에 섬의 지명이 시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조사 당시 시도 화살탑 전경

러한 구전에 따라 현지 주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외래인(外來人)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북도면사무소 뒷재등(큰 당재) 너머 잠수도로 입구에 세워진 화살탑도 이러한 맥락에 따라 1973년에 세워진 탑으로서 그 동기는 다음과 같다.

1973년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북도면 지서장으로 부임한 성낙주씨는 본래 고고학이나 유물, 유적 등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이곳에 부임 초부터 시도(살섬)라는 지명과 주민들로부터 들은 지명유래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언젠가는 이 섬의 북단(北端) 수기산(壽岐山) 부근에 패총(貝塚)이 있음을 알게 되어 현지 순찰점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패총의 이곳 저곳을 살피던 중 돌화살(石鏃)을 채집하게 되었다. 이 돌 화살은 신석기시대 유물로 추정되어 아주 귀중한 것일 뿐 아니라 시도에서 돌화살을 채집했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면서도 살섬 역사의 상징이 될 만한 유물인 데 대하여 만족해 하면서 이 화살을 오래도록 이곳 시도에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 끝에 화살탑을 세울 것을 마음 을 굳히고 탑의 명칭을 살섬탑이라고 하고 위치는 사람이 항상 많이 왕래하는 지점 이었던 노루메기 선착장 입구에다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살섬탑 표면에 새겨진 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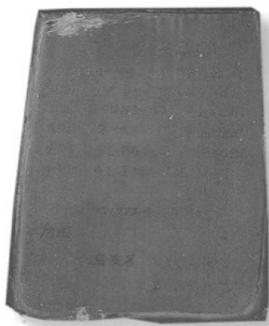
살섬탑[矢島塔]

강화도 마니산에서 본도를 목표지점으로 활 쏘기를 해서 살섬(矢島)으로 명명(命名) 했다는 전설이다.

그 유물을 찾던 중 본탑에서 서북간 2마장 지점(수기)에서 당시 사용했던 화살심을 발견(신석기시대 사용했던 석촉)되어 소장하고 그 탑을 세움

1973년 12월 25일

矢島 支署(시도 지서) 凡調(범조)



시도 화살탑에 새겨진 문구



현재 시도 화살탑 전경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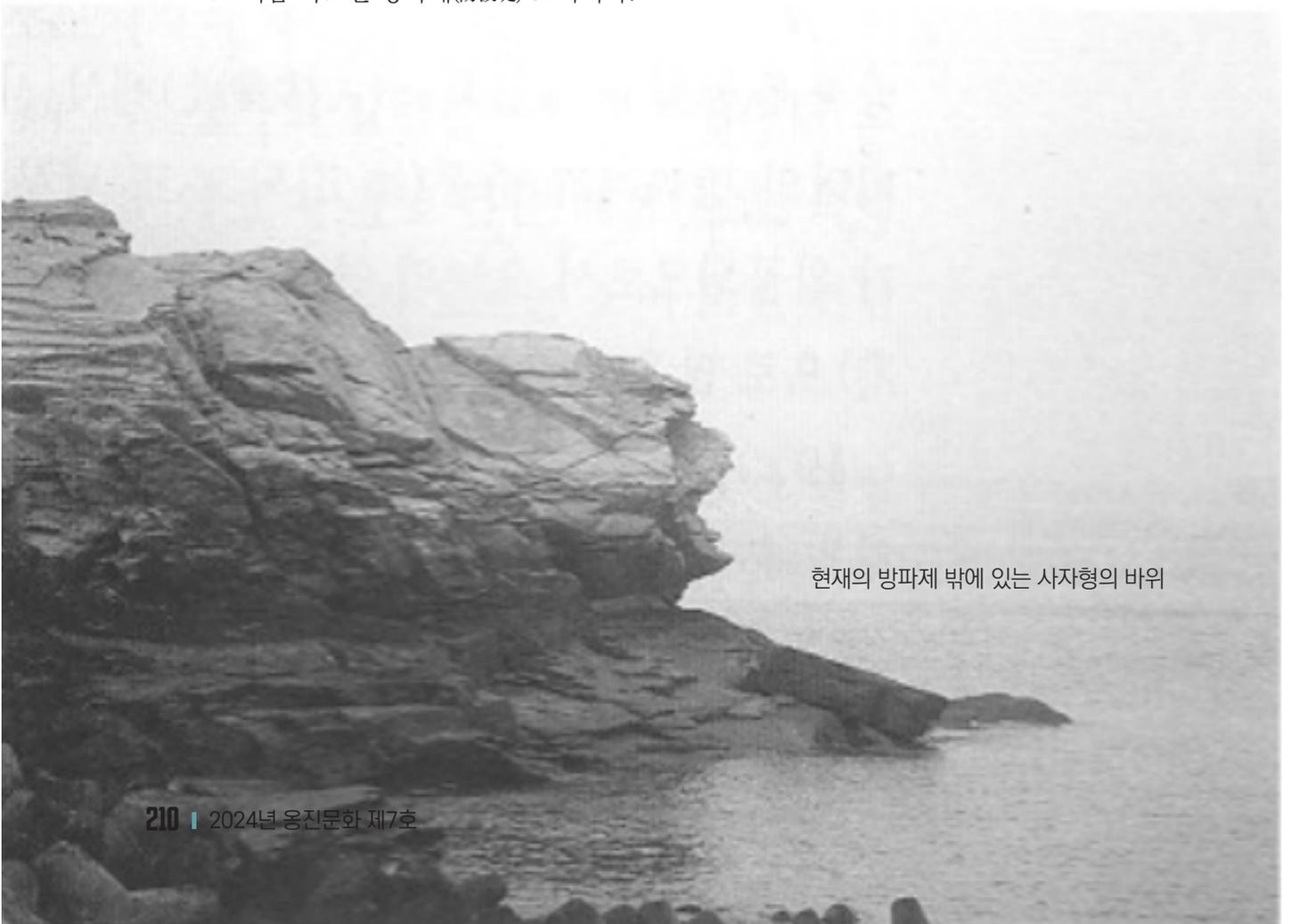
처음 건립했던 서방파제(西防波堤)의 기점표석(起點標石)

연평도 우체국 앞쪽 주택지 한편 구석진 곳에는 1929년에 연평항 서방파제 공사를 할 때 기점(起點)인 이곳에 세워놓은 표석(標石)이 그대로 남아있다.

표석에는 '소화 4년(昭和 4년, 1929년) 7월 기공(起工) 소화 6년(1931년) 4월 준공(竣工) 장(長) 941m 황해도'라고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 연평항이 생기고 처음 축조한 방파제(防波堤) 표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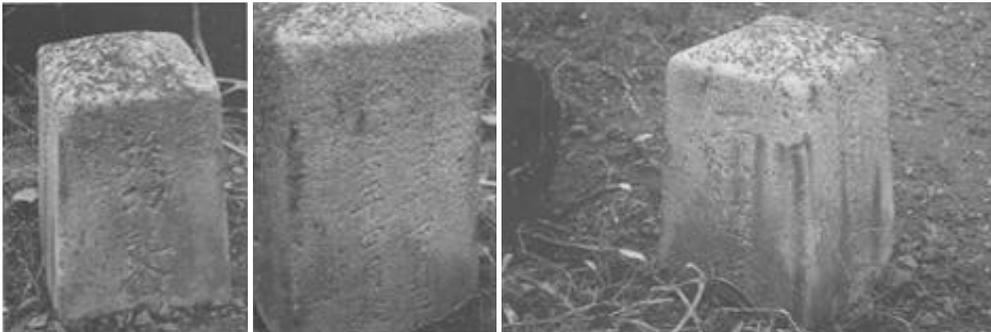
반이 땅에 묻혀있는 준공표석



현재의 방파제 밖에 있는 사자형의 바위

물론 일제강점기에 시공하였던 사업으로 이 표석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섬[堂島]까지 941여 미터의 방파제를 축조하였던 것으로 당시 이 공사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작업 도중 사고로 많은 중국인들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동부방파제(東部防波堤)도 축조가 안 되었던 때라 거센 파도나 태풍들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당섬이나 동쪽의 책섬[柵島]이었을 것이다.

연평항은 동남풍이 가장 무서운 바람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서방파제는 항상 파도와 폭풍우 등으로 파손되다 보니 보수하는 일이 큰 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은 8·15 해방 전후에 이르러서는 많은 파손으로 방파제 구실을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고, 다만 6·25 전부터 동부방파제 공사를 대림회사(大林會社)에서 시작하여 5·16 후에야 500여 미터의 방파제가 준공되고 또 남부방파제와 서방파제의 일부가 완공되므로써 오늘의 연평항은 전천후 연평항으로 많은 어선들을 보호하게 되었다.



비의 반이 땅에 묻혀 있는 준공표석

1929년에 축조했던 서방파제는 기초공사 분만 바닥에 남아있을 뿐 이제 본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본래 시공기점이었던 표석만은 남아있어 연평도 방파제 축조의 역사를 알 수 있어 이 표석만은 길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관계기관에서 관심있는 사람이 보존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백령진장(白翎鎭將-僉使) 선정비(善政碑)

백령진은 고려시대에 설치하여 조선조 말인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의하여 폐지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수군진(水軍鎭)이다.

백령도에서는 진장(鎭將)인 첨사(僉使)들 중에 유달리 공이 있는 첨사(수군첨절제사 : 水軍僉節制使)에게는 이곳 주민들의 정성된 마음으로 선정비(善政碑)를 세웠으며 이 많은 선정비들이 백령진의 역사를 대변이나 하듯이 6·25 전쟁 전까지는 현 천주교성당[白翎鎭址] 앞에서 백령 길병원 앞쪽 성곽 밖의 용기원(龍機院) 나가는 도로변에 질서정연하게 잘 보존되었었다.

그래서 이곳을 “비석거리”라고 하였으며 이곳 주민들 중 노인층은 비석거리라 부르고 있다.

비석거리는 이곳뿐이 아니라 진촌 서쪽 두룡산 깎등길(월내도촌)도 첨사선정비(僉使善政碑)가 줄지어 서 있던 곳으로 역시 6·25 전쟁 전까지 잘 보존되었었다.

이러한 비석거리가 두 곳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첨사선정비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백령진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사 당시 비석거리

그러나 6·25 전쟁과 1·4 후퇴 시에 군 주둔으로 인한 작전도로(作戰道路)와 기타 군 시설을 비롯, 당시 미국동사령부 소속의 유격부대(遊擊部隊) 거점기지가 된 진촌은 수만의 피난민들의 집결 등으로 대혼란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유격부대들의 막사는 비석거리 주변까지 점거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정비는 모두 뽑혀지고 쓰러져 여기저기 뒹굴게 된 대수난을 겪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막사건축이나 참호축석용(塹壕築石用)으로 쓰여지는가 하면 진퍼리의 징검다리 등 여러 용도로 쓰였다. 이같은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뜻있는 이곳 주민들에 의하여 여기저기서 보이는 대로 주위모아 두룡산(頭龍山) 남쪽 마을 앞에 있는 반공유격전적비(反共遊擊戰跡碑) 경내에 옮겨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인 몇 점만 찾아 세웠을 뿐 향토문화의 귀중한 자료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 십여 점은 행방을 모르는 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디엔가 땅속 깊숙이 묻혀 있던가 아니면 어느 비탈에 묻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이곳에는 첨사선정비와 함께 황해도 장연읍에 살면서 백령도 주민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를 하여준 임원석(林元錫) 명예백령도장(名譽白翎島長)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와 1946년 10월부터 1953년까지 7년간을 고향인 백령면장직에 있으면서 6·25 전쟁과 그 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수만 명의 피난민 구호에 전력하였으며 면장 사임 후에도 간척지 사업, 교육 사업 등에 헌신하다 고인이 된 최공(崔公) 경림(京琳)의 공적비도 함께 서 있다.



현재의 모습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진촌 앞 동산에 세워진 선정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첨절제사권공흥준애민선정비(行僉節制使權公興俊愛民善政碑)

응정 11년 9월 조선조 영조 9년 서기 1733년 9월에 건립(雍正 十一年 九月 朝鮮朝 英祖 九年 西紀 1733年 九月에 建立)

2. 제조조공만영영세불망비(提調趙公萬永永世不忘碑)

도광 7년 1월 조선조 순조 27년 서기 1827년 1월에 건립(道光 七年 一月 朝鮮朝 純祖 二十七年 西紀 1827年 一月에 建立) 비문 양편에 세전거흔소결도민, 지수지장비정민(世專祛痕蘇扶島民, 之誰之腸 比貞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행수군첨절제사이공명석애민선정비(行水軍僉節制使李公明錫愛民善政碑)

도광 28년 무신 11월에 조선조 헌종 14년 서기 1848년 11월에 건립(道光 二十八年 戊申 十一月에 朝鮮朝 憲宗 十四年 西紀 1848年 十一月에 建立)

4. 행첨사이공보협청백선정비(行僉使李公普憲淸白善政碑)

동치 11년 임신 9월 조선조 고종 9년 서기 1872년 9월에 건립(同治 十一年 壬申 九月 朝鮮朝 高宗 九年 西紀 1872年 九月에 建立)

5. 행첨사정공수현애민선정비(行僉使鄭公秀鉉愛民善政碑)

동치 13년 갑술 7월 조선조 고종 11년 서기 1874년 7월에 건립(同治 十三年 甲戌 七月 朝鮮朝 高宗 十一年 西紀 1874年 七月에 建立)

6. 수군첨절제사박공래명영세불망비(水軍僉節制使朴公來命永世不忘碑)

백령첨사선생안(白翎僉使先生案) (1829년 이후)에는 박래명 첨사와 경신 십일배(庚申 十一拜)라고 되어 있을 뿐 선정비 건립 연월은 알 수 없다.

7. 행도장임공원석영세불망비(行島長林公元錫永世不忘碑)

광무 11년 3월 조선조 순종 3년 서기 1907년 3월에 건립(光武 十一年 三月 朝鮮朝 純宗 三年 西紀 1907年 三月에 建立)

8. 영암회공경림공적비(靈巖崔公京琳功績碑)

1972년 9월 19일 건리위원 윤량숙, 이형곤, 곽영(1972년 9월 19일 建立委員 尹良淑, 李亨坤, 郭映)



소청도 등대(燈臺)



소청도 등대

소청도는 동서의 길이가 약 4km의 장방형을 이루고 있는 작은 섬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청면 소청1리, 소청2리로 동, 서로 나누어지고 마을도 소청1리에 예동, 소청2리에 노화동(蘆花洞)으로 2개 마을이다.

소청도 등대는 서쪽 끝인 소청2리 “당아니코쟁이부리” 위 83m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08년(순종 2년)에 설치한 등대

로써 우리나라 등대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널리 알려져 있는 등대이다. 우리나라 서해 일대와 중국 산둥반도 만주(滿洲) 대련(大連) 방향을 향해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표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 대청도, 백령도, 주위 어장으로 출어(出漁)하는 많은 어선들은 물론 서해군사분계선을 접경으로 하고 조업을 하는 북한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잘 보호해 주고 있다.

야간에는 축광(燭光)을 비추고 안개 낀 주간에는 45초마다 무신호(霧信號)를 보내며 향해하는 모든 선박들의 길잡이로 군사분계선 서북단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소청도 등대 실태를 약기(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 위 치 : 북위 37° 34.4 동경 124° 43.9
- 면 적 : 62.927㎡ (약 1,900평)
- 해발고지 : 83m
- 설치연도 : 1908년(융희 2년)
1954년 7월 석유 등을 전기식으로 교체
1990년 12월 소청도 발전소에서 발전기 인입
- 등대제원 : 등질 F1(4) W40S(1966년 현재)
- 무 신 호 : air sipe 대 45초에 1회 식취명



현재의 소청도 등대



2. 발걸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능동(陵洞)의 전설

덕적도 북2리 능동(陵洞)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치 않으나 이곳에 왕자(王子)가 묻힌 능(陵)이 있다 하여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국난(國難)을 당하자 급한 나머지 왕비가 피난을 하게 되었는데 해안까지 나와 무작정 배를 타고 서쪽으로 항해를 하다가 섬이 보여 찾아가 닿은 곳이 덕적도 북쪽 갯골로 들어갔던 것이다. 현재 능동 앞 북쪽 갯골은 모두 논으로 되어 있어 덕적도에서는 큰논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곳이 갯골로서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으로 왕비를 태운 피난 배가 이곳에 들어와 주위를 살펴보니 과연 피난처로서 적합함을 깨닫고 배에서 짐을 풀게 하였다.



멀리 능동 마을이 보인다

이때 마침 왕비는 임신 10개월로써 출산일이 오늘 내일로 다가온 긴박한 사정이었다.

국난을 당하여 배를 타고 피난을 하게 된 왕비는 심한 파도와 풍랑 속에 방황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곳으로 쫓겨 들어와 왕비야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경(死境)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곳 어느 집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왕자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출산하자마자 왕자는 죽고 말았다.

장차 임금이 될 왕자가 능동에서 출생과 동시에 죽고 말았으니 이때 왕비를 모시고 같이 따라온 궁인들과 뱃사공 그리고 이곳 주민들이 함께 국수봉(國壽峰) 아래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명당자리를 택하여 육지의 왕도(王都)가 잘 보이는 쪽에 시신(尸身)과 태(胎)까지 함께 묻었다.

비록 피난길에 죽었지만 왕자의 묘이기 때문에 모두들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아주 큰 능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왕자가 죽은 후 왕비마저도 지칠대로 지쳐 기진맥진하게 된 데다가 산후 병이 악화되어 역시 사망하게 되니 왕자묘 옆에 따로 묻었다고 한다. 그 후 왕자, 왕비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전해지지 않는다.

이 능동 뒤쪽에 큰 능같은 형태의 산봉(山峯)이 따로 떨어져 우뚝하게 솟아있다. 이 능과 같은 산봉이 과연 왕자가 묻힌 자리인지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다만 이러한 사연으로 이 마을 지명을 능동이라 부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한편 능동마을에서 불길한 일이 생기거나 또 마을이 공동으로 기원할 일이 생기면 이 능산(陵山)에 올라가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무당이 이곳 능산에서 축원(祝願) 곳을 하기도 하여 이곳을 당산(堂山)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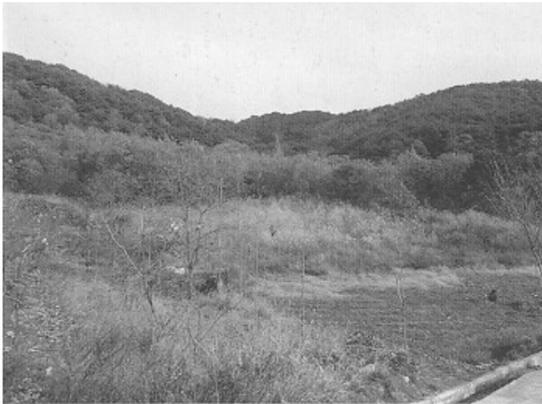
이와 같은 전설이 전해지는 능동은 덕적면에서는 가장 오지마을로 명산(名山)인 국수봉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자월도 장골의 옛 수레길



자월도 옛 수레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숲으로 우거졌다

자월도에는 장골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그 위치는 장골해수욕장 북쪽 국사봉 밑의 큰 골짜기를 말한다. 이 장골의 지명을 한자로 장곡(長谷)이라고 하며 골이 길고 깊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 고로(古老)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장골은 장곡이 아니라 원래는 장(시장-市場)이 섰다 하여 '장골'이라 불렀다고 하며 '장

이 섰던 골짜기'라고 전해진다고 한다. 옛날에 이 장골에는 100여 호(戶)가 살았다고도 전해진다.

장골에 장[시장]이 섰다는 유래(由來)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예부터 전라(全羅), 충청(忠淸) 방면에서 나라에 바칠 세곡(稅穀)을 실은 배들이 서울로 올라가다가 반드시 이 자월도에 들러 식수(食水)를 싣고 부식(副食) 등을 사고 막걸리(탁배기)를 마시며 수송책임자인 관리와 선장(船長), 선원(船員)들이 한패가 되어 세곡인 벼를 뽑아내어 부정으로 팔기 위하여 장골에서 달구지를 동원했다고 한다. 달구지에 싣고 장골로 들어가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시장]이 섰다하여 장골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곳에 세곡선(稅穀船)이 들렀다 하면 해적(海賊)들이 습격하여 약탈한 세곡을 강제로 달구지를 동원하여 장골로 싣고 가서 매매하였다고 하여 장골[시장곡(市場谷)]이라 하였다 하며, 그때 달구지길(수레길)이 현재는 삼림(森林)이 울창하지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

한편 자월면지(紫月面誌) <자월금석소고(紫月今昔小考) 강성대제공(姜成大提供)> 11항

에 의하면 1936년 고려 충신 김사형(金士衡 : 1333~1407) 이 대마도 정벌 후 수군(水軍) 들 몇 사람이 흩어져 들어와 장골[장곡]에 자리를 잡고 마 필(馬匹 : 軍用)을 방목(放牧)하여 생활을 영위하다가 흉년이 들어 생계가 막연하여지자 세곡 선이 분무골[부무곡(富務谷)]이나 어리골[어리곡[어렵곡(漁獵谷)]에 기착하면 약탈 하선(下船)시켜 이 곡식을 먹고 살았다고도 전해진다. 이때에도 장골과 고사리골 간의 산길을 달구지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자월도 옛 배터로 가는 길

이렇게 자월도는 세곡조운선(稅穀漕運船)들이 분무골이나 어리골로 들어와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부정으로 세곡을 뽑아 팔거나 또는 해적들에게 약탈당하는 세곡을 팔거나 아니면 저장을 위하여 어리골 쪽에서 장골 쪽으로 운반하는 수레길 이 있었는데 이 수레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행위가 이곳 자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2. 발굴 선양해야 할 향토 사료



왕씨 묘비(王氏 墓碑) (영흥면 내4리 산 392)

고려가 망할 것을 예측한 고려왕실 익령군(翼靈君) 왕기(王琦)가 개경을 탈출하여 배를 타고 서해 영흥도에 와서 정착을 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조선조 중기에 영흥도에 설치하였던 국영목장에서 목부로 일을 하며 살았다는 기록을 숙종 40년(1714) 지리학자 이중환(李重煥)의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흥도에는 왕씨가 한집도 없으며 또 어느 때 어느 지방으로 떠나간 것조차 아는 이도 없고 다만 영흥도 일원에서 흔히 눈에 띄는 고총(古塚)들이 3~4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이 왕씨들의 고총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왕씨들의 후손들이 번성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왕씨 묘비로 추측되는 구능지역

그렇게 많은 왕씨 고총이라지만 왕씨의 고총이라고 고증할 만한 근거가 없어 안타까웠을 뿐이었다.

그렇게 많은 왕씨 고총 중에 내 4리 태나골 산 392번지 구릉에도 고총 4기(基)가 나란히 줄지어 있는데 그 중 상위 고총에는 묘비(墓碑)가 세워져 있던 대석(臺石)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근세(近世)까지 비석이 보였다고 하며 근래 아이들에 의해 뿔혀졌는지 산 아래로 굴러 내려와 논길 뚝에 발판으로 놓여졌다가 또 어디론가 매몰되었는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던 1994년 어느 때인가 태나골 김병찬씨가 논일을 하다가 큰 돌이 있어 치

우려다가 무슨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닦고 보았더니 “왕공지묘(王公之墓)”라는 것이 보여 집 창고 옆에 세워두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지 김씨댁을 방문하여 절단된 비석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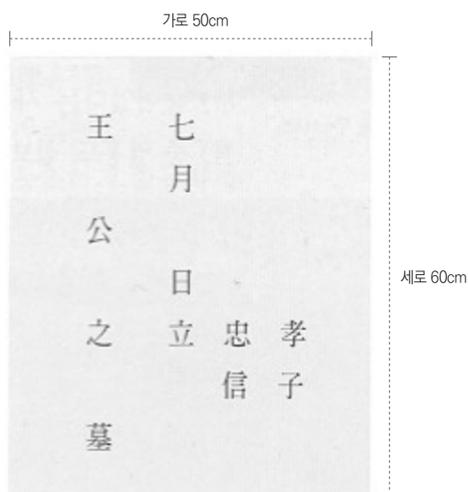
절반이 부러진 것으로 추측되는 약 60cm 길이에 약 50cm 정도 폭의 비석 아랫부분이다. 아랫부분에 새겨진 비문은 <효자 충신 칠월 일립 왕공지묘(孝子 忠信 七月 日立 王公之墓)>라고만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뒷면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으며 절단된 뒷부분이 있었으면 확실한 연대와 누구의 몇 대손이 세워졌던 묘비인지를 알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안타깝게도 묘비의 윗부분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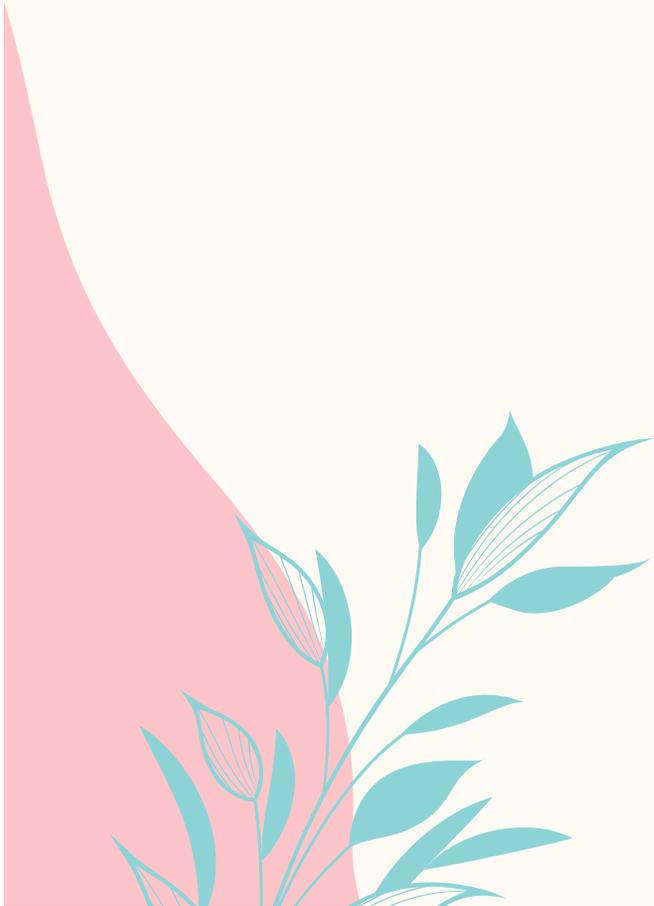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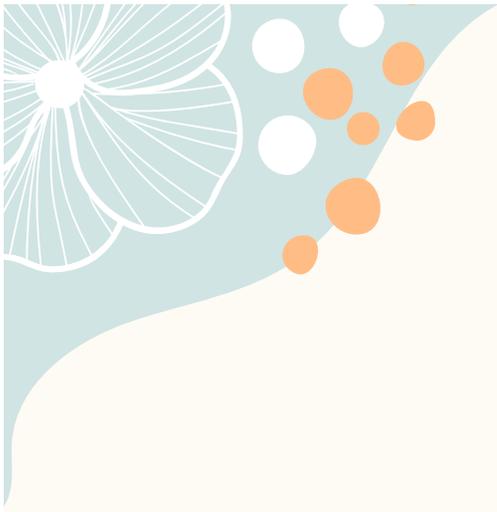
수풀이 우거져 구능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묘비는 틀림없이 태나골 산 392번지 능선에 있는 고층 앞의 대석(臺石)에 세워졌던 묘비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역시 수백 년을 살면서 변성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영흥도 일원에 흩어져 살았음을 짐작하게 된다.

부러진 왕씨 묘비가 늦게나마 나타났기 때문에 개성 왕씨 익령군(開城 王氏 翼靈君)의 후손들의 묘임을 확실하게 고증할만한 자료라고 생각되어 이 묘비가 한편 귀중할 뿐 아니라 영흥도 향토사 자료이기도 하다.



절단된 왕씨 묘비형(墓碑形)



3. 아름다운 옹진





3. 아름다운 옹진

아름다운 옹진

장봉도 일몰



아름다운 옹진

연평도 안목 해변 야경





3. 아름다운 용진

아름다운 용진

백령도 억새



아름다운 옹진

대청도 선착장 일출

3. 아름다운 옹진





3. 아름다운 용진

아름다운 용진

덕적도 소재 해변



아름다운 옹진

자월도 독바위 일몰

3. 아름다운 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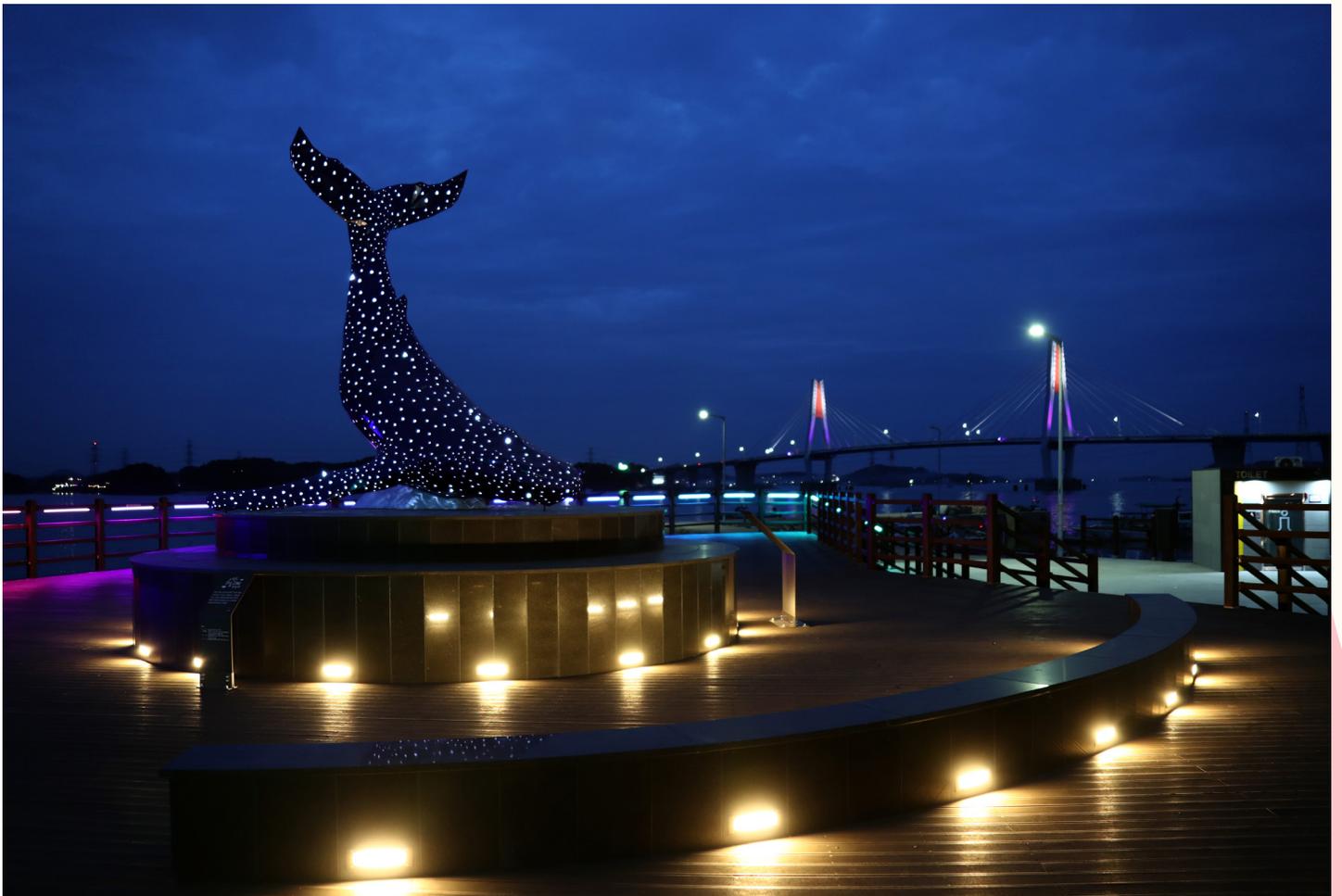




3. 아름다운 옹진

아름다운 옹진

영흥도 하늘고래공원전망대



4. 문화원 주요 사업

문화원자체역점사업

- 옹진문화 제7호 발간
- 문화유적탐방
- 신년인사회
- 도서지역 양서 보급
- 홈페이지 유지 보수

문화예술진흥사업

- 2024년 제1회 옹진문화예술인의 밤
- 찾아가는 예절교실

문화예술활성화사업

- 심청효학생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 옹진문화학교
- 찾아가는 생활문화강좌 '꿈꾸는 섬'
- 슬기로운 문화생활 강좌

공모사업

-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문화로 동행'

특성화사업

- 2024 옹진섬(북도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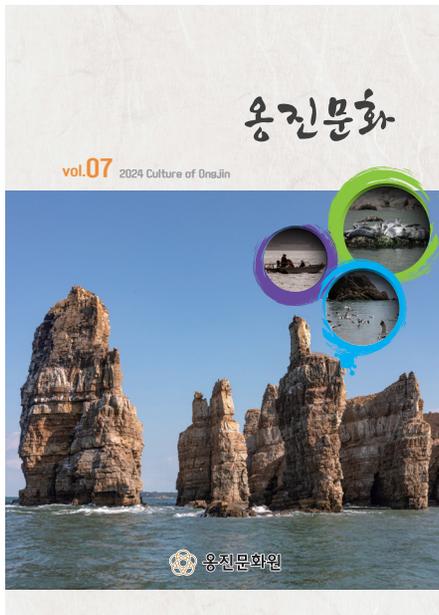


4. 문화원 주요 사업

1. 문화원 자체역점사업

응진문화 제7호 발간

- ◆ 목적 : 응진군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이야기와 작품, 지역 문화예술 정보를 수록하여 주민들의 향토문화 의식과 애향심 고취, 창작 활동을 위한 지면을 제공하여 인문학적 소양 및 가치관 확장의 공간 마련
- ◆ 기간 : 4월 ~ 12월
- ◆ 추진사항
 - 7월 : 원고/작품 접수 시작
 - 9월 : 원고/작품 마감
 - 10월 : 접수 원고 교정·교열 및 인쇄업체 선정
 - 11월 : 최종 편집 및 인쇄
 - 12월 : 2024 『응진문화』 제7호 발송



🔍 문화유적탐방

- ◆ 목 적 : 관내·외 문화유적탐방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향토사 및 우리 문화의 발굴·보존·전승에 기여
- ◆ 기 간 : 3월 ~ 11월
- ◆ 장 소 : 관내 영흥면, 관외 강릉시
- ◆ 추진사항
 - 상반기 : 용진군 영흥면 일대
해군전적비, 영흥화력발전소, 목섬, 십리포해수욕장 등을 탐방하면서 그 고장에 대한 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
 - 하반기 : 강원도 강릉시 일대
오죽헌, 선교장, 경포호 및 경포해변 일원, 강릉문화원,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등을 탐방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 문화의 발전 방향 모색





4. 문화원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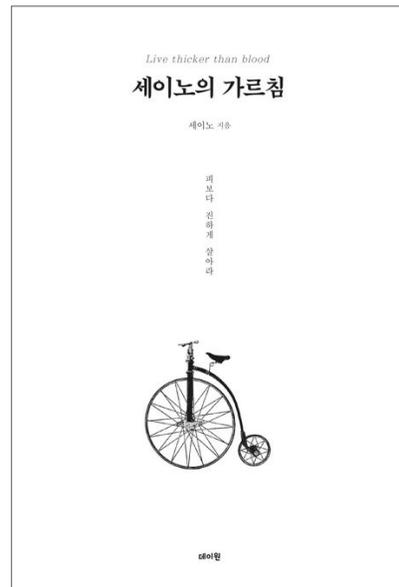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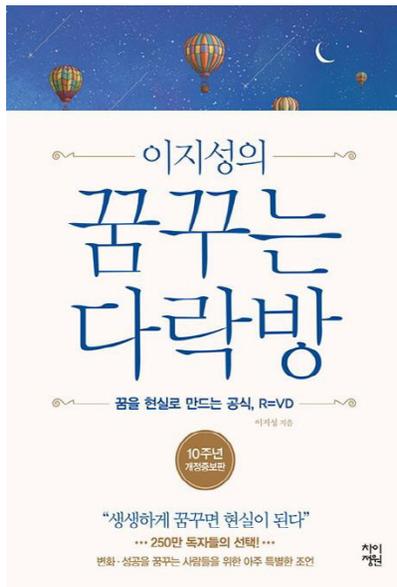
신년인사회

- ◆ 목 적 : 새해를 맞이해 화합과 협력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마련하여 희망을 전하고 응진 사랑의 마음과 애향심을 고취
- ◆ 기 간 : 2024년 1월 5일
- ◆ 장 소 : 대회의실
- ◆ 참석인원 : 60여 명



도서지역 양서보급

- ◆ 목 적 : 도서로만 형성된 응진군의 특성상 군민이 접할 수 없는 양서를 선별, 현지 보급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지식함양과 인문학적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함
- ◆ 기 간 : 3월, 8월
- ◆ 추진사항
 - 1차 양서보급 : 『꿈꾸는 다락방』(3월 우편발송 보급)
 - 2차 양서보급 : 『세이노의 가르침』(8월 우편발송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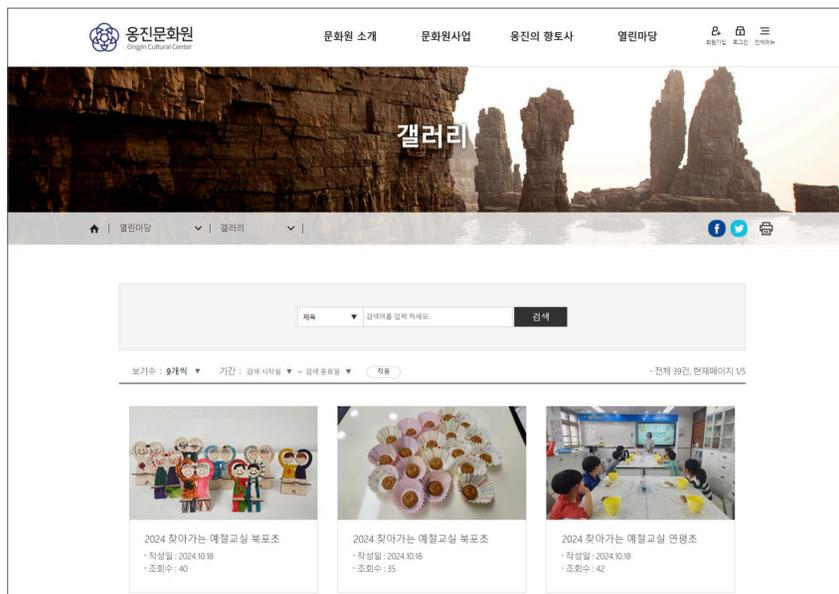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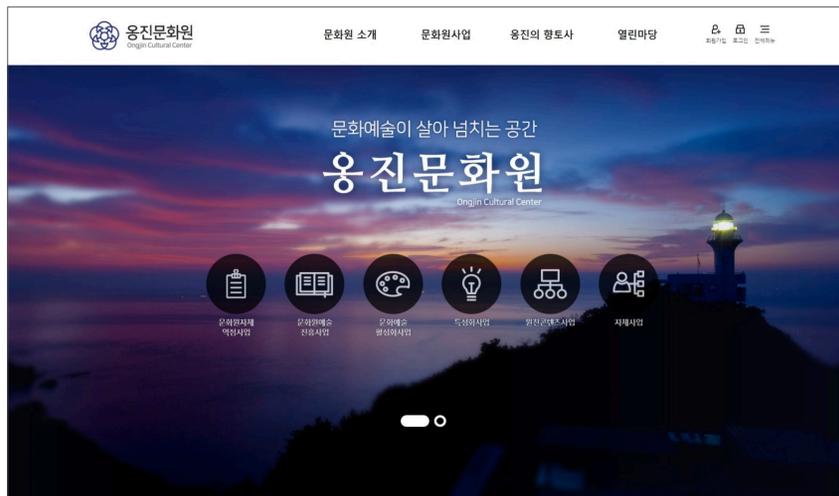




4. 문화원 주요 사업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 ◆ 목적 : 홈페이지 유지 보수 체제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안정성 확보 및 문화원 추진 사업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소통 창구 마련
- ◆ 기간 : 1월 ~ 12월
- ◆ 추진사항
 -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유지



2. 문화예술진흥사업

2024년 제1회 응진문화예술인의 밤

- ◆ 목적 : 응진문화원 회원과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예술을 통하여 소통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저변확대
- ◆ 일시 : 2024년 11월 29일
- ◆ 장소 : 하버파크호텔 대연회장
- ◆ 추진사항 :
 - 1월 : 추진계획 수립
 - 6월 ~ 7월 : 각 면 사전설명회 개최
 - 9월 : 1차 추진위원회 개최
 - 10월 : 2차 추진위원회 개최
 - 10월 ~ 11월 : 각 면 공연분야 경진
 - 11월 29일 : 제1회 응진문화예술인의 밤 개최





4. 문화원 주요 사업

찾아가는 예절교실

◆ 목 적 : 예절교실을 통한 어린이의 도덕·존중·배려·공동체의식 함양 및 전통문화를 체험하여 올바른 정신 함양

◆ 기 간 : 3월 ~ 11월

◆ 추진사항

- 학 교 명 : 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일 시 : 2024년 5월 20일
장 소 : 풀등반 교실
주 제 :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 학 교 명 : 인천용현남초등학교자월분교장
일 시 : 2024년 5월 24일
장 소 : 다목적실
주 제 :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 학 교 명 : 대청초등학교
- 일 시 : 2024년 6월 14일
- 장 소 : 음악실
- 주 제 :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 학 교 명 : 덕적초등학교
- 일 시 : 2024년 6월 24일
- 장 소 : 유치원 및 과학실
- 주 제 : 한복 모델 선발대회(나만의 한복 맵시 뽐내기)





4. 문화원 주요 사업

- 학 교 명 : 인천삼목초등학교장봉분교장
일 시 : 2024년 8월 29일
장 소 : 6학년 교실
주 제 :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 학 교 명 : 인천공항초등학교신도분교장
일 시 : 2024년 9월 5일
장 소 : 다목적실
주 제 : 우리 가족 미니정원 '테라리움'



- 학 교 명 : 영흥초등학교
- 일 시 : 2024년 9월 10일 ~ 11일
- 장 소 : 각 학년 교실
- 주 제 : 자존감 뽐뽐 물병 만들기,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게임 커뮤니케이션



- 학 교 명 : 연평초등학교
- 일 시 : 2024년 10월 15일
- 장 소 : 과학실
- 주 제 :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한복 모델 선발대회(나만의 한복 맵시 뽐내기)





4. 문화원 주요 사업

- 학 교 명 : 북포초등학교
일 시 : 2024년 10월 16일 ~ 17일
장 소 : 각 학년 교실
주 제 :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자존감 뽐뽐 물병 만들기, 사이좋은 디지털 생활



- 학 교 명 : 백령초등학교
일 시 : 2024년 11월 11일 ~ 12일
장 소 : 각 학년 교실
주 제 : 마음 듬뿍 사랑의 다식 배달, 우리 가족 미니정원 '테라리움'



3. 문화예술활성화사업

2024 심청효학생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 ◆ 목적 : 웅진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심청전 배경의 주요지역인 웅진군의 위상을 높여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함
- ◆ 기간 : 4월 ~ 11월
-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 추진사항
 - 4월 : 웅진군 내 초·중·고등학교 협조요청
 - 5월 : 제25회 심청효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실시
 - 6월 20일 : 작품 심사
 - 6월 : 결과 발표 및 시상





4. 문화원 주요 사업

응진문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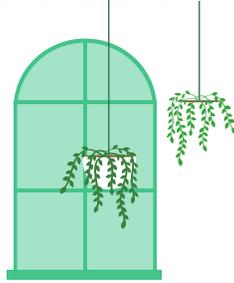
- ◆ 목 적 : 문화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강좌를 진행하여 차별화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생활문화강좌도 함께 진행
- ◆ 기 간 : 4월 ~ 11월
- ◆ 장 소 : 응진문화원 강의실(르네상스홀)
- ◆ 대 상 : 관내 주민, 응진문화원 회원
- ◆ 추진사항
 - 상반기 강좌
일 시 : 4월 ~ 6월(총 5차시)
주 제 : 꽃차·전통병과 만들기, 인문독서, 다례, 바리스타



• 하반기 강좌

일 시 : 8월 ~ 11월(총 5차시)

주 제 : 인문독서, 캘리그래피, 레진아트, 마크라메&라탄





4. 문화원 주요 사업

찾아가는 생활문화강좌 ‘꿈꾸는 섬’

- ◆ 목 적 : 지역특성상 응진문화학교에 참석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문화강좌를 진행하여 더욱 풍성하고 차별화 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
- ◆ 기 간 : 10월 ~ 11월
- ◆ 대 상 : 관내 주민, 응진문화원 회원
- ◆ 추진사항
 - 9월 6일 : 북도면 / 장소 : 북도면 생활문화센터
 - 9월 13일 : 영흥면 / 장소 : 영흥면사무소 회의실
 - 10월 15일 : 연평면 / 장소 : 연평면사무소 회의실
 - 10월 28일 : 자월면 / 장소 : 자월면사무소 회의실
 - 11월 4일 : 백령면 / 장소 : 백령면사무소 대회의실
 - 11월 5일 : 대청면 / 장소 : 대청면사무소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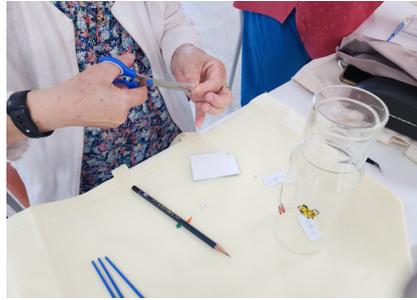
🔍 슬기로운 문화생활 강좌

- ◆ 목 적 : 지역특성상 체험하기 어려운 문화강좌를 실시하여 균형적인 교육·취미·여가생활의 참여를 돕고, 지역주민이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
- ◆ 기 간 : 3월 ~ 11월
- ◆ 장 소 : 백령면사무소, 대청면사무소,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 ◆ 대 상 : 백령면, 대청면 주민
- ◆ 추진사항
 - 상반기 강좌
 - 1차시 : 7월 4일 ~ 5일 / 백령면사무소 회의실, 대청면사무소 회의실
내열유리 머그 2인 세트 핸드페인팅
 - 2차시 : 7월 11일 ~ 12일 / 백령면사무소 소회의실, 대청면사무소 회의실
내열유리 병&컵 세트 핸드페인팅
 - 3차시 : 7월 25일, 7월 29일 / 백령면사무소 회의실,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내열유리 티포트 핸드페인팅
 - 4차시 : 8월 8일 ~ 9일 / 백령면사무소 회의실,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내열유리 화병/저그 핸드페인팅





4. 문화원 주요 사업



• 하반기 강좌

- 1차시 : 10월 31일 ~ 11월 1일 / 백령면사무소 소회의실,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석고방향제 만들기
- 2차시 : 11월 7일 ~ 8일 / 백령면사무소 소회의실,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종이방향제 만들기



4. 공모사업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문화로 동행'

- ◆ 목적 : 문화를 매개로 한 사회참여형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확산 및 문화안전망 구축
- ◆ 기간 : 6월 ~ 12월
- ◆ 장소 : 영흥면 내 지역시설
- ◆ 대상 : 영흥면 주민
- ◆ 추진사항
 - 문화 교육
 - 기간 : 7월(총 5차시)
 - 장소 : 영흥면 늘푸른센터 주민자치회실
 - 주제 : 입체꽃엽서(액자)만들기, 캘리양초 만들기, 나만의 문장쓰기, 판넬화판 Zen캘리 완성하기 등
 - 문화 봉사
 - 기간 : 8월 ~ 9월
 - 장소 : 영흥작은도서관(1차), 영흥면 해피타운(2차), 웅진군가족센터(3차)
 - 주제 : 캘리그래피 부채만들기





4. 문화원 주요 사업

5. 특성화사업

2024 응진섬(북도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 ◆ 목적 : 북도면의 역사, 인문·지리적 환경, 전통문화 등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 기록하여 보존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책자 발간
- ◆ 기간 : 4월 ~ 11월
- ◆ 추진사항
 - 4월 : 콘텐츠 및 영역별 집필진 구성
 - 4월~6월 : 현장답사 및 주민 인터뷰
 - 5월 : 1차 자문회의 진행
 - 7월~9월 : 현장답사 및 주민 인터뷰
 - 9월 : 2차 자문회의 진행
 - 10월 : 원고 집필
 - 11월 : 책자 인쇄



5. 2024 심청효학생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

글짓기

- 할아버지가 아기가 된다면 ‘할아버지는 여든 아기’를 읽고 - 오주하
- 하늘도 감동한 ‘효녀 지은’을 읽고 - 조이안
- 마법 같은 효도 - 유다경
-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 이하은
- 작은 마음 하나 - 최윤아
- 우리 외할머니 - 김유은
- 작은 변화 나부터 시작 - 정환
- 어버이날 - 박가은
- 가족 - 문지은
- 나의 효도 - 김륜아
- 작은 효도 - 장서하
- 孝道 - 김예지
- 효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 장민준
- 가족에게 효를 실천하는 나 - 조수빈

그림

옥구슬, 김서연, 정채은, 박소율, 창우현, 이서진, 김태린,
김유리, 최세은, 한서현, 황금물결, 김소윤, 이강우, 이강교



할아버지가 아기가 된다면 ‘할아버지는 여든 아기’를 읽고

오주하(영흥초등학교 2학년)



나의 할머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신다. 할머니께 주간보호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여쭙보니 “주하가 유치원을 다닌 것처럼 노인들이 다니는 노치원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곳에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신다고 했다. 치매가 뭔지 궁금해서 치매이야기 책을 찾아보았다.

‘할아버지는 여든 아기’라는 책은 지호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팔순기념 가족사진을 찍으면서 시작한다. 가족사진을 찍고 다음 날이 되자 지호를 빼고 가족들이 없어졌다. 집안을 살살이 뒤졌는데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가족들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힘도 없고 말도 없으셨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서 아빠에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했다. 며칠 뒤 할아버지 팔순잔치날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잔치 대신 여행을 갔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데이트한 동물원으로 갔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슬펐던 할아버지가 비틀거리자 아빠는 얼른 할아버지를 업어드렸다. 그날 이후 아빠는 할아버지를 매일매일 업어드리기로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다시 아기가 되어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호는 하루라도 더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치매는 사람의 기억을 야금야금 잡아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아는 멋진 초능력자 할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기로 했다. 지호와 아버지가 보여주는 마음과 행동이 ‘효’가 아닐까?

만약 나의 할아버지가 지호 할아버지처럼 아기가 된다면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사진을 많이 찍어드리고,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여행을 자주 가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웃을 수 있게 춤과 노래를 자주 보여드릴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매일 만나지만 인사만 하고 대화는 잘 안하는 것 같다. 하지만 두 분이 편찮으시면 아주 속상할 것 같다. 특히 치매에 걸리시면 나에게 대한 기억이 없어지니 미리 대화도 많이 나누고, 얼굴을 자주 봐야겠다. 그동안 할아버지 할머니께 선물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야겠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치매가 뭔지 몰랐는데, 읽고 나니 우리 가족에게도 지호네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하늘도 감동한 ‘효녀 지은’을 읽고

조이안(영흥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나는 효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중에 ‘효녀 지은’ 이야기가 있다.

신라 서라벌의 한 마을에 ‘지은’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눈이 먼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은 물론이고 끼니를 챙기며 어렵게 살아갔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어머니 모르게 쌀 10석을 받고 스스로 부잣집의 종이 되었다. 힘들게 일했지만 어머니께 쌀밥을 차려 드릴 수 있어 행복해했다. 그러다 어머니는 지은이 남의 집에 종이 되어 고생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한참을 슬피 울었다. 이런 사정을 들은 효종량이라는 사람이 지은의 몸값을 치러 주고 쌀 100석을 보내 주면서 지은은 큰 복을 받게 된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는 지은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다른 집의 종이 되면서까지 쌀을 얻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그런 결정을 한 지은의 용기가 대단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효심은 정말 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도 지은의 마음을 본받아 이제라도 효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



마법 같은 효도

유다경(영흥초등학교 3학년)



효 하면 떠오르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면 효도를 합니다. 효도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효도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사편지와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은 감사를 전하는 날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날에도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선물만이 효도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따뜻한 마음만 들어있다면 그 뿐만이라도 큰 선물 아닐까요? 우리 작은 생활 속에서도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 열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는 사랑, 열정 모두 2배, 3배, 4배, 5배로 돌려줄 시간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황금나무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열정에서 자랐으니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열매가 됩시다. 우리는 항상 효도 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효도합시다. 계속 미루다 보면 부모님과 시간만 없어집니다. 계속 받고만 있지 말고 효도에 동참합시다. 효도를 실천하면 부모님과 사이도 좋아지고 부모님과 시간도 많아집니다. 제일 좋은 건 바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간단한 효도라도 해보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보물처럼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5명도, 3명도, 2명도 없습니다. 효도는 마법입니다. 항상 부모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멋진 효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우리보다 10배는 더 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몸이니깐요. 이렇게 효도는 기적 같은 마법입니다.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이하은(영흥초등학교 2학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르듯 가족을 위한 날이 많다. 그 중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나의 부모님인 엄마, 할머니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뽀뽀하며 나를 꼭 껴안아 주는 사랑스런 우리 엄마, 나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따뜻한 밥상과 친구처럼 놀아주는 자상한 우리 할머니.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효일까?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일을 찾아서 하고 심부름하기, 내가 알고 있는 레시피로 음식 만들어 드리기, 안마해드리기, 노래, 춤, 재롱으로 많이 웃기게 하고 많은 웃어주기, 매일 안아주고 뽀뽀하기, 정리정돈하기, 엄마, 할머니 말씀 잘 듣기, 공부 열심히 하기,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등등...

나의 효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효도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요새는 부끄러워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날 낚아주고, 길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씀드려야겠다.

“엄마, 할머니 사랑해요.”





작은 마음 하나

최윤아(영흥초등학교 6학년)



곧 어버이날이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어느 날 잃어버린 물건을 찾다가 서랍 한켠에 편지봉투를 발견했다. 궁금해서 열어보니 매년 어버이날 과거의 내가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쓴 편지였다. 읽어보니 정말 별거 없는 내용이었다. 근데 왜 모아두었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 그 날, 퇴근하신 엄마께 물어보았다. “엄마~ 서랍의 내가 어릴 때 썼던 편지 왜 모아뒀어?” “아~그거? ㅎㅎ 우리 딸이 어릴 때 엄마 주려고 열심히 썼는데 그걸 왜 버려? 소중한게 모아뒀지~” “내 선물은?” “엄마는 선물보다 편지가 더 좋아. 진심이 느껴져서”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아주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고, 나는 느꼈다. 효도는 꼭 돈, 선물 물질적인 것이 효도가 아닌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다. 그래서 나는 이제껏 많은 선물을 드렸지만 효도도 하지 않았고, 효녀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을 기점으로, 달라지기로 했다. 마음을 먹은 뒤 나는 하루하루 달라지려고 노력했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즉 효도의 집중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갔지만 아직 우리 가족의 시간은 멈춰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족의 시간이 멈춰줘서 나는 과거처럼 늘 한결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효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날을 통해 사람마다의 행복의 의미와 효도의 진정함을 알 수 있었다. 덕분에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ㅎㅎ 효도의 대해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어려워도 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가 느낀 효도는 나와 가장 가깝고, 쉽고, 행복한 일 일이란 걸.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아주 지극히 평범했던 학생이고 사람이니 ‘이건 이 사람이니까 쉬운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효도를 한번해본 사람들은 다 똑같고 평범하니 도전을 해보길. 나의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구에겐 아주 큰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내년 어버이날, 나의 작은 마음 하나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외할머니

김유은(백령초등학교 6학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동생과 나는 외갓집인 백령도에 왔다.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할머니께서 백령초등학교로 전학을 오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백령초등학교는 청정지역이라 매일 등교를 했다. 2학년 때 전학을 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와 동생은 우리 집으로 가게 되었고 전에 다니던 만수북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예전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도 만났고 항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던 아빠랑 같이 살게 되어 기뻐지만 마음은 외갓집에 있었다. 공무원이 퇴직하신 외할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계신다. 외할머니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농사일도 같이하시는 바쁘신 분들이시다. 그런데도 3년 동안 우리들을 잘 돌봐 주셨다.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씻겨주시고 머리도 예쁘게 빗겨주셨다. 같이 놀아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주말엔 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시던 할머니.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가 계시는 외갓집으로 가고 싶어졌다.

아빠 엄마께 외갓집에 가서 살겠다고 졸랐다. 엄마는 할머니가 힘드셔서 안된다고 하셨다. “이번 효도 방학에 동생이랑 할머니 댁에 갈건데 괜찮으세요?”하고 말씀드렸더니 “너희끼리 올 수 있겠니?” 하셔서 “갈 수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배를 태워주셔서 백령도에 갔다.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아이구! 우리 강아지들 대견하네. 하셨다. 하루 이틀 지내면서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좋고 백령초등학교에 다니고 싶어졌다. 아빠, 엄마께 말씀드리니 할머니 힘드실까 봐 안된다고 또 하신다. 교환학생을 신청해 보겠다고 하셨다. 13일 월요일 오늘부터 백령초등학교 등교하라고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할머니께서도 은근히 좋아하셨다. 우리가 쓰다 남기고 갔던 학용품들을 큰 통에 담아 놓으셨다. 필요한거 가방에 넣고 실내화랑 필통 등을 사기 위해 마트에 갔다. 1년 만에 만나는 백령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해 과자를 사서 예쁜 봉투에 포장도 해주셨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항상 잘해주셔서” 그냥 저희들만 봐도 할머니는 좋다 하시는 할머니, “가끔은 너희들도 할머니가 원하는거 한 가지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하시며 웃으시는 우리 할머니 잘 몰랐습니다. 오늘 효행 글짓기를 쓰려고 생각하니 할머니께 받기만 했지 해드린게 없다.

이제부터라도 할머니께 잘해드려야지. “할머니 앉아보세요.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작은 변화 나부터 시작

정환(영흥초등학교 5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대청초 5학년 정환입니다. 오늘은 저의 작은 변화가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무뚝뚝하고 마음에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아주 대화를 아주 많이는 안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아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옆에서 동생을 보살피고 챙겼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작은 선한 효행이 우리 주변을 밝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우리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박가은(대청초등학교 5학년)



5월 8일 재작년 어버이날 어머니께서 생신이셔서 생신선물과 어버이날 선물을 같이 드리려고 했다. 어떤 선물을 드려야 좋아할지 고민을 했다.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용돈이었다. 아버지랑 어머니 선물을 같이 드리려니 돈이 부족해보였다. 다행히 돈을 다 모았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다음에도 생신선물과 어버이날 선물을 용돈으로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선물을 드릴 생각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드릴 준비를 하였다. 저녁을 다 먹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면서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을 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다음에도 선물을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른 친구들도 이런 선행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문지은(대청중학교 3학년)



여러분은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일? 아니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효도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라고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행동 모두 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를 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긍정의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 집이나 차를 사드리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 하루에 시간이 조금 빌 때 전화를 드린다거나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가는 것 등 부모님과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더 좋은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서 씻고 난 뒤에, 밥을 먹고 시간이 조금 남을 때 그때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나 메시지를 해보는 것을 어떨까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행복해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학생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학생일 때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부모님과 자주 싸우게 되고, 부모님보다 친구들이 더 좋을 때이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가족들과 한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그것도 일정의 효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행복한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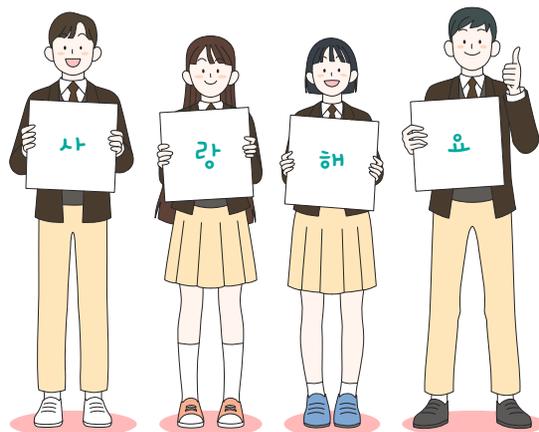


나의 효도

김륜아(대청중학교 3학년)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란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이 들 때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버이날이 다가오기 전에 항상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찾아보고 슬쩍 여쭙봐 선물해드린다.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렸고 예쁜 짓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에게 제일 감사한 부문이 뭐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러나 삶은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같이 있었지만 힘들어도 인해 내가 한층 더 성장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엄마 아빠도 표정이 안 좋아 보이고 나에게 대한 걱정도 많아 보였다. 그때 나는 엄마와 아빠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웃는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부모님에게 감동시켜 드리는 게 나의 목표이다.





작은 효도

장서하(대청고등학교 3학년)



나는 효도를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효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어버이날 카네이션과 편지 써드리기’나 ‘효녀 심청의 이야기’와 같이 특별한 날의 일회성 이벤트나 가슴 따뜻해지는 효도 이야기들을 먼저 생각해내곤 했다. 심지어 효도를 실천할 때도 남들이 하라는 말에 등 떠밀려 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나는 효도를 무거운 주제로만 생각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나의 ‘첫 효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중학생 시절, 부모님께서 나가계신 사이 빨래를 갠 적이 있었다. 거창한 것은 없었다. 그저 ‘빨래 개기’라는 아주 작고 소박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는 자발적으로 실천한 ‘첫 효도’였다. 물론 거의 처음으로 혼자 해본 것이라 잘하진 못하였다. 부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모양을 잡으려면 시간이 더욱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어느 옷이 누구 옷인지 구분하지도 못해 갠 옷을 나열해두고 일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대한 모양을 예쁘게 잡고자 다시 모양을 잡아보기도 하고 천천히 개기도 하며 얻어낸 내 나름의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부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빨래를 보시자마자 크게 웃으셨다. 웃으며 “웬일이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행복함이 흘러나왔다.

그 이후, 나는 ‘작은 효도’를 조금씩 실천해나갔다. 대청소하기, 설거지하기, 간단한 일 돕기... 심지어 자주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한층 더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평소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조금씩 돕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효도가 될 수 있으며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효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조그마한 변화만 일으키면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효도이다. 부모님께 전화하기와 같이 작은 것도 좋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함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티끌모아 태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작은 효도를 쌓아가다 보면 큰 산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孝道

김예지(대청고등학교 2학년)



‘효’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한자 ‘孝’이다. 효도 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윗부분은 허리가 휘고 등이 구부정한 노인의 모습이고 아래는 아들 즉, 자식의 모습이 담겨있다. 위에는 노인이 있고 아래는 자식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식이 노인인 부모를 등에 업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처럼 아주 예전부터, 특히 동아시아 문화 사회에서는 효를 일상생활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효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엄마이다. 물론 내가 효를 행해야 하는 대상도 엄마이지만 효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도 우리 엄마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엄마의 부모님인 내 할머니, 할아버지께 항상 효심이 가득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다. 특정하게 효와 관련된 어버이날이나 생신이 아니어도 매일 효심 가득하게 말하고 행동하신다. 나도 엄마를 보고 효를 실천한 적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효란? 특정한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함께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장민준(대청고등학교 1학년)



효란 자식이 부모에게 경애의 감정을 바탕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각각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각각의 개인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입장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전 상황에서는 효가 실천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를 실천해야 할까? 우선 부모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부모가 우리를 낳았으니 부모가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덕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낳아준 것에 감사하며 공경해야 한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감사를 바탕으로 효를 실천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로 사소한 일부터 돕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와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며,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등의 실천을 할 수 있다. 효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의 표현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효가 된다. 필자 또한 이 글을 쓰며 평소에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부모에게 효행을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독자들도 이 글을 통해 효행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가족에게 효를 실천하는 나

조수빈(대청고등학교 2학년)



나는 효에 대해 생각을 하면 가족이 먼저 떠오른다. 가족들에게 착한 행동을 하는 일이 효라고 생각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나는 가족들이 시키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그 일들을 군말 없이 행동하고 다친 가족들이 있다면 무시하지 않고 돌봐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효라고 보는 나는 가족들에게 효를 가족들에게 효를 실천한 사례 중 첫 번째로 가족들이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행동한다. 할머니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들이 가끔씩은 하기 싫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싫다고 말하거나 다음 싫다고 화를 낸 적은 없다. 그 때문인지 나에게 계속 일을 시키시긴 하시지만 나는 시키시는 일을 할 때마다 가끔씩 효를 실천하고 있는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뿌듯할 때도 있다. 두 번째로는 아프고 다친 가족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것의 매일 전화를 해서 이야기꾼이 되어주고 걱정을 해주며 먹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사다주는 일을 하였고, 어르신께서 아프실 때는 옆에서 걱정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옆에서 도와드렸다.

효는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면서 효를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효라는 의미는 사람다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효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에 나는 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5. 2024 심청효학생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

2024 심청 '효' 학생 그림 그리기 입상 작품



[초등 저학년부] 최우수 옥구슬(영흥초)



[초등 저학년부] 우수 김서연(북포초)



[초등 저학년부] 장려 정채은(북포초)



[초등 저학년부] 장려 박소울(영흥초)



[초등 고학년부] 최우수 창우현(북포초)



[초등 고학년부] 우수 이서진(영흥초)



[초등 고학년부] 장려 김태린(북포초)



[초등 고학년부] 장려 김유리(북포초)



[중등부] 최우수 최세은(대청중)



[중등부] 우수 한서현(대청중)



5. 2024 심정호학생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



[중등부] 장려 황금물결(대청중)

효도는 행복이다♥



家和萬福

[중등부] 장려 김소윤(대청중)

부모님이 짊어진
삼의 무게 덜어드리는
어떨까?



孝를 실천하자.

[고등부] 장려 이강우(대청고)



이제 당신이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고등부] 장려 이강교(대청고)

The page features decorative elements in the corners. The top-left corner has a teal background with white floral outlines and orange and white circles. The bottom-left corner has a pink background with teal leaves. The bottom-right corner has a teal background with white floral outlines and yellow circles.

6. 임원 및 회원명단



6. 임원 및 회원명단

웅진문화원 회원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연번	직위	성명	주소
1	원장	태동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31	회원	김경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	이사	이근덕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2	회원	김광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	이사	이한성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3	회원	김순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4	이사	전미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4	회원	김순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5	이사	최창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5	회원	김영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6	이사	유영우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36	회원	김영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7	이사	최성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37	회원	김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8	이사	김경협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8	회원	김은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9	이사	김진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39	회원	김혜연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0	이사	김진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40	회원	박관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1	이사	박용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41	회원	손현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2	이사	변영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42	회원	신영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3	이사	장정돈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43	회원	유연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4	이사	최대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44	회원	윤미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5	이사	강신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45	회원	윤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6	이사	김황용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46	회원	이길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7	이사	장윤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47	회원	이명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8	이사	김용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48	회원	이방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19	이사	서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49	회원	이순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0	이사	서옥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50	회원	이순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1	이사	강도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51	회원	이순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2	이사	김희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52	회원	이용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3	이사	정철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53	회원	이윤행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4	이사	김현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54	회원	이은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5	이사	임선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55	회원	이정애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6	이사	장성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56	회원	이향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7	이사	조세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57	회원	전창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8	이사	김기룡	인천광역시 연수구	58	회원	최선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9	감사	박용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59	회원	최영광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30	감사	오명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60	회원	송영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연번	직위	성명	주소
61	회원	이명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91	회원	김유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2	회원	이성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92	회원	김태중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3	회원	조종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93	회원	김형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4	회원	차애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94	회원	나명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5	회원	최옥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95	회원	문혜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6	회원	김효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6	회원	박은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7	회원	박세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7	회원	서혜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8	회원	심현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8	회원	송복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69	회원	심효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99	회원	신애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0	회원	이인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100	회원	신재석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1	회원	임정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101	회원	안규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2	회원	김능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2	회원	윤기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3	회원	김옥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3	회원	윤인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4	회원	도민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4	회원	이경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5	회원	류석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5	회원	이미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6	회원	이은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6	회원	이영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7	회원	임현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7	회원	이정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8	회원	정대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8	회원	이원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79	회원	정희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09	회원	이지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0	회원	조철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0	회원	이충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1	회원	주영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1	회원	임경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2	회원	지형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2	회원	임성민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3	회원	최광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3	회원	장연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4	회원	황명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114	회원	진광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5	회원	강일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5	회원	최한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6	회원	김금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6	회원	현혜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7	회원	김남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7	회원	황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88	회원	김연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8	회원	강명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89	회원	김영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19	회원	강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90	회원	김영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120	회원	구옥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6. 임원 및 회원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연번	직위	성명	주소
121	회원	권경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1	회원	김경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2	회원	김관휘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2	회원	김기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3	회원	김명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3	회원	김동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4	회원	김길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4	회원	김병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5	회원	김시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5	회원	김선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6	회원	김연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6	회원	김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7	회원	김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7	회원	김수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8	회원	김은금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8	회원	김연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29	회원	김정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59	회원	김은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0	회원	김현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0	회원	김정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1	회원	반숙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1	회원	김좌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2	회원	신금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2	회원	문옥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3	회원	신호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3	회원	박순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4	회원	윤윤남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4	회원	박오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5	회원	이미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5	회원	박인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6	회원	이민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6	회원	박종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7	회원	이순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7	회원	손동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8	회원	임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8	회원	서정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39	회원	장미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69	회원	신미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0	회원	정순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70	회원	신영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1	회원	정철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71	회원	양선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2	회원	차안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72	회원	유신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3	회원	최선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173	회원	유이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4	회원	강미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4	회원	육광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5	회원	강영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5	회원	윤하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6	회원	강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6	회원	이경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7	회원	강응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7	회원	이경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8	회원	곽인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8	회원	이민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49	회원	권석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79	회원	이소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50	회원	길정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180	회원	이영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연번	직위	성명	주소
181	회원	이의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1	회원	문경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182	회원	이종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2	회원	문용승	경기도 수원시
183	회원	임순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3	회원	박용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184	회원	장성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4	회원	서은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5	회원	정명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5	회원	서완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186	회원	정연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6	회원	서향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187	회원	정영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7	회원	신명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8	회원	정찬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8	회원	심상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189	회원	조연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9	회원	오영선	인천광역시 연수구
190	회원	조인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0	회원	윤인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191	회원	조해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1	회원	윤지웅	서울특별시 구로구
192	회원	천종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2	회원	이명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193	회원	최기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3	회원	이문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194	회원	최문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4	회원	임경남	경기도 시흥시
195	회원	최은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5	회원	임금자	경기도 고양시
196	회원	최현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6	회원	장광덕	인천광역시 연수구
197	회원	한은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7	회원	장미애	경기도 안양시
198	회원	홍용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28	회원	장종철	경기도 양주시
199	회원	곽윤철	인천광역시 연수구	229	회원	정민영	경기도 부천시
200	회원	권태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230	회원	정영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	회원	김관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231	회원	조한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	회원	김성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232	회원	최계철	인천광역시 서구
203	회원	김성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33	회원	최금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4	회원	김양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34	회원	최두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205	회원	김영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235	회원	태수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206	회원	김용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36	회원	허덕규	인천광역시 덕적면
207	회원	김용란	경기도 시흥시	237	회원	조병상	인천광역시 서구
208	회원	김인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238	회원	김인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209	회원	김정훈	경기도 안산시	239	회원	최동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10	회원	노만익	인천광역시 서구	240	회원	김석훈	인천광역시 연수구



6. 임원 및 회원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연번	직위	성명	주소
241	회원	허복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69	회원	한춘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42	회원	홍은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70	회원	허순철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43	회원	김태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71	회원	박채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44	회원	조성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72	회원	김혜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45	회원	김필남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273	회원	최준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46	회원	이정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274	회원	최현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47	회원	김춘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75	회원	안영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48	회원	종명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76	회원	이옥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49	회원	문영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77	회원	김성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50	회원	이성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78	회원	김가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51	회원	심정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79	회원	김옥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52	회원	강계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0	회원	최성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53	회원	박예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1	회원	이미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54	회원	유신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2	회원	김준수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55	회원	정진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3	회원	안영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256	회원	김진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4	회원	안송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57	회원	노혜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5	회원	김숙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58	회원	박은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6	회원	조은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59	회원	서신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7	회원	김의성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260	회원	최윤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8	회원	문신진	경기도 부천시
261	회원	지은숙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89	회원	최윤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262	회원	이영노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290	회원	이해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263	회원	백종빈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91	회원	박재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64	회원	이춘화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92	회원	임익현	인천광역시 서구
265	회원	조진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293	회원	이광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266	회원	김태은	인천광역시 중구	294	회원	이동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67	회원	임병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295	회원	이용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268	회원	이영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